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 제주 금기어 유형과 의미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한국학협동과정

고 선 희

2023년 2월



# 제주 금기어 유형과 의미 연구

지도교수 허 남 춘

고 선 희

이 논문을 문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12월

고선희의 문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한 승 환 (인)

위 원 신 우 봉 (인)

위 원 허 남 춘 (인)

제주대학교 대학원

2022년 12월

# A Study on the Types and Meaning of Taboo Language in Jeju

Sun-Hee Ko

(Supervised by professor Nam-Chun Heo)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Korean Studies

2022. 12.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Department of Interdisciplinary Postgraduate  
Program in Koreanology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 목 차

Abstract	
I. 서론	1
1. 연구 목적	1
2. 선행 연구 검토	3
3. 연구 대상과 방법	8
II. 이론적 배경	14
1. 금기어의 정의	14
2. 금기어의 영역	17
3. 금기어의 발생 요인	21
III. 제주 금기어 유형 분석	25
1. 유형별 분류	25
2. 내용과 사례	29
3. 주절(主節)부 특징	55
IV. 제주 금기어 주제와 의미	61
1. 생활관	62
2. 자연관	86
3. 신앙관	94
V. 결론	100
<참고문헌>	104
부록 : 제주 금기어 유형 분류	108

<표 차례>

<표 1>	금기어의 개념 .....	14
<표 2>	금기어 범주 및 유형 .....	20
<표 3>	제주 금기어 유형별 분류 결과 .....	27
<표 4>	제주 금기어 세부 항목별 빈도 분석 .....	28

## Abstract

# A Study on the Types and Meaning of Taboo Language in Jeju

Sun-Hee Ko

Taboos generally restrict people's consciousness and behavior by controlling the thoughts in human mind and making them think that something should not be done. Also, it has strong vitality and transmission power like tradition. This paper aims to look into the people's thought about taboos in Jeju, through taboo languages, which are the philosophy of life and the cultural products of the region.

Accordingly, I analyzed various aspects through the classification of Jeju taboo languages by type to find out what activities were subject to taboo in daily life, where taboo languages have widely been used, such as clothing·food·housing, rite of passage, occupation, and seasonal customs. In addition, I also contemplated various concepts and meanings such as the visions of the old people about the universe, world, religion, life, and society in taboo words, which are developing human thinking.

In order to examine the consciousness structure and lifestyle of the ancestors, I divided taboo languages in Jeju into three types: daily life, nature, and religion according to socio-cultural categories. As the result of classifications for three times, I could organize 617 taboo words, in to 10 categories, such as clothing·food·housing, rite of passage, seasonal customs, occupations, religions, nature, human relations, gender, objects, and body parts. Among the taboo languages I organized, the highest percentages of

taboo languages were in categories which are related to daily life, and among them, there were many taboo languages in the order of rite of passage, clothing·food·housing, seasonal customs, occupations, body parts, gender, objects, and human relations. The objects of taboos are related to people, stuffs, actions, animals, faith and and so on, that is everything humans encounter in their lives. And it has been widely and variously formed throughout human life, along with realistic needs and problems of human to maintain a safe and peaceful daily life.

I divided the subject of taboos into views of a lifestyle, a nature, and a faith, and interpreted the meanings from the perspectives of rationality, practicality, and educational contained therein. I first looked at taboos as a norm that must be observed within our society, in terms of axiomatic aspects of adjusting and educating individuals and society to work well systematically. Above all, it was important to protect food and life to survive. Also, taboos conveys guidelines and methods for smooth social life and basic manners. In addition, taboos contain not only information that pays attention to health, such as unsanitary environments, habits, and behaviors, but also the wisdom of life that informs the balance of work and rest and the use of objects. From the nature view of taboos, it was possible to examine the attitude of respecting the right to life of all natural objects and the symbiotic world view of nature and humans. This is the notion that all natural objects should be recognized for their uniqueness and that humans should not invade the realm of nature recklessly but respect. It also educates people that nature and humans are in a symbiotic relationship as a destiny community. In the case of faith view, which is inextricably related to taboos, taboos serves to protect the sacred realm and maintains the values and order of the community. Taboos are a must-have condition for rituals such as Gut(a ritual or exorcism performed by a Korean shaman) to proceed safely. So, members who participate in accept taboos to ensure the safety, perpetuation and order



of the community, and conveys the value of the community to future generations.

Taboo languages are the shortest instructive stories and a miniature of every story in the world. They condense long stories into one sentence, put people's life stories in it, and let people know what is right or wrong. The message contained in a single sentence carries the joys and sorrows of countless people and exerts the strongest binding force and influence on human life. Stories of always being careful, clean-minded, and wary of frivolous behavior and attitudes for the future in taboo languages, does not exist only in the old days when taboo words had been created. It's still with us living in the 21st century and makes us reflect on ourselves and think about our lives.

# I. 서론

## 1. 연구 목적

우리는 임신이나 출산, 결혼, 초상 등에서부터 각종 경기 및 시험, 시험 등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무엇을 먹지마라’, ‘무엇을 하면 좋지 않다’ 등의 말을 전통적인 관습처럼 따르며 지켜왔다. 이는 속담이나 수수께끼처럼 오랫동안 공유되며 사람들이 널리 알고 사용하는 언어 표현 가운데, 마음에 꺼리어 하지 않거나 피하는 금기어의 영향이라 할 수 있다. ‘금기(禁忌, Taboo)’<sup>1)</sup>란 인간의 모든 생활주변에서 일어나는 행위에 대해 자신을 공포의 대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원시적인 금제(禁制)수단을 말하며, ‘금기어(禁忌語)’란 금기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사항을 언어로 서술한 것<sup>2)</sup>을 말한다. 금기어<sup>3)</sup>는 민속 문화 가운데 언어전승의 한 분야로써 민간에서 신앙처럼 잘 지켜지는 속설 혹은 속신이다. 그 내용을 분석해 보면 비과학적, 비합리적, 맹신적인 것이 대다수이나 비교적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것도 더러 있어 선인들의 풍습, 신앙, 언어생활, 생업, 사고의식, 인간관계 등에 상당한 영향<sup>4)</sup>을 주었다. 지금도 중요한 상황을 앞두고 좋은 결과를 바라는 소망과 더불어 혹여 좋지 않은 일이 생길까 염려하여 행동을 조심하는 등 금기 사항을 지키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이는 금기어가 여전히 인간의 심리와 사고 안에서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렇듯 모든 인간은 다양한 금기 속에 살아간다. 누구나 어떤 대상이나 현상에

- 
- 1) 김성배는 금기하는 방법으로 행동이나 표시로써 하는 것과 말로써 하는 것 두 가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행동이나 표시로써 하는 금기의 경우, ①부정한 것들의 출입을 금기하는 표시 ②씨름할 때 씨름 장소에 소금을 뿌리는 일, ③동짓날 팔죽을 쑤어 먹기 전 집 안팎에 뿌리는 일, ④역신을 물리치기 위한 표시, ⑤고갯길에 돌을 던지는 행위, ⑥산야에서 행하는 ‘고시래’ 등을 열거했다. (김성배, 「한국 금기어고(韓國 禁忌語考)上」, 『국어국문학』 25, 국어국문학회, 1962, 2쪽)
  - 2) 김선풍 외, 『우리 민속학의 이해』, 월인, 2002, 445쪽.
  - 3) 금기어는 어휘 자체로 존재하는 어휘적 금기어와 통사적 구조로 존재하는 통사적 금기어가 있는데, 본고에서는 통사적 구조로 이루어진 문장 형식의 금기어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허재영, 「금기어의 구조 및 발생 요인」, 『사회언어학』 Vol.9, 한국사회언어학회, 2001, 194쪽)
  - 4) 김기설, 「영동지방의 생업과 관련된 금기어연구」, 『한국민속학』 18, 한국민속학회, 1985, 191쪽.

대해 꺼리거나 피하고자 하는 마음을 느끼는데, 이는 인간의 가장 원초적이고 지속적인 본성 가운데 하나로, 심리학적으로 불가지(不可知), 불가능한 힘에 대한 공포·외경의 반응<sup>5)</sup>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금기는 보편적으로 인간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생각, 즉 어떤 것은 해서는 안 된다는 타고난 특질로부터 발생<sup>6)</sup>한다. 금기는 사회적·종교적 상황, 나라와 민족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내용으로 존재하며 하나의 전통처럼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지켜져 왔다. 금기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간의 가장 오래된 불문법으로 사회 도덕률의 일부를 차지하여,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이 가능하도록 하한선을 규정해주는 ‘최소도덕’의 의미를 지닌다는 점이다. 따라서 금기는 어겼을 때 법적인 제재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죄책감을 경험하며, 이는 사람들의 의식과 행동을 규제하는 강력한 힘<sup>7)</sup>이 된다.

일상생활에서 언어를 중심으로 인간을 구속하고 제약하며 교육해 온 금기어는 민속학을 비롯하여 언어학, 국문학, 종교학, 심리학, 인류학 등의 연구 대상이 될 수 있는 귀중한 언어문화 유산이다. 특히 금기어를 살피는 것은 당시 사회 구조나 사람들의 의식을 살피는 것과 같은 의미<sup>8)</sup>를 지니며 한 사회의 생활과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 제주의 경우, 금기어에 관한 연구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제주의 구비전승물 중 설화류를 비롯한 민요와 무가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물이 체계적으로 이뤄져서 그 성과가 나름대로 결실을 맺고 있는데 반해<sup>9)</sup>, 유독 언어전승물에 관한 연구는 단편적이고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금기어에 대한 연구는 기존 언어 전승물에 관한 연구의 범주를 더욱 확장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제기되며 의미가 있다.

본고에서는 오랜 경험이 담긴 생활철학이자 문화적 산물인 금기어를 통해 제주의 언중(言衆)들이 갖고 있는 금기의 사고를 들여다보고자 한다. 종교적·윤리적·심리적 이유로 발생한 금기가 오랫동안 지속되고 전승된 이유는 보다 안전하고 안락한 삶을 누리하고자 하는 인간 본연의 욕구와 생존에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며, 그 내용을 보면 대체로 비합리적이고 미신적인 것이 많으나 과학적이고 논

5) 장장식, 「몽골 금기어의 원리와 몇 가지 특징」, 『몽골학』 제9권, 2000, 9쪽.

6) 최창모, 『금기의 수수께끼』, 2003, 27쪽.

7) 박정열 외, 「금기어 분석을 통한 한국인의 심층심리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Vol.22, 한국심리학회, 2003, 47쪽.

8) 허재영, 『생활 속의 금기어 이야기』, 역락, 2000.

9) 고재환, 「제주도속담연구사」, 『논문집』 제29집, 제주교육대학교, 2000, 11쪽.

리적인 것도 있어 제주의 전통문화와 풍습, 신앙 등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금기어가 두루 통용되는 의식주·통과의례·생업·세시풍속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떠한 행위가 금기 대상이었는지 제주 금기어의 다양한 양상을 분석하고 금기어 속에 담긴 옛 사람들의 우주관, 세계관, 종교관, 인생관, 사회관 등 인간의 사고를 형성하는 다양한 관념들과 그 의미를 탐구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

## 2. 선행 연구 검토

‘금기’ 및 ‘금기어’, ‘금기 문화’에 관한 연구는 김성배(1962)와 문효근(1962)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 60-70년대에는 민속학적 관점에서 출발하여 현지 조사를 통한 금기어 수집 등의 연구<sup>10)</sup>가 이루어졌다. 김성배는 가정이나 사회의 구조 속에 잔존 구승되어 오는 여러 민속학 분야 중 금기어 등에 주목하고, 1945년 해방 후부터 15년간의 현지답사를 통해 50세 이상의 노인층을 중심으로 전국 각지의 말을 수집했다. 이를 인간관계, 인조물 관계, 동물 관계, 식물 관계, 영혼 관계, 토지 관계, 제사 관계 등 총 11개 항목으로 금기어를 나누고 정리했다. 문효근은 고문헌을 통해 금기어를 낳게 된 신앙적 언어관을 약술하고 전국 108개 지역, 40세 이상을 대상으로 조사·수집한 금기어를 제시하고 분석했다. 보편적으로 금기되고 있는 말과 글자 40여 종의 금기어를 완전히 기피하려는 경우와 간접적으로 표현하려는 경우로 나누어 그 분포 상황과 지방적 특이성에 대해 밝혔다. 심재기(1970)는 금기가 어떻게 현대사회에까지 맥락을 유지하고 있으며, 현대에는 어떤 양상으로 존재하고 있는지 등의 문제에 관심을 두면서 특히 언어 현상에 반영된 모습을 살피고자 했다. 기존 학자들이 연구한 금기의 발생원인,

10) 김성배, 「한국 금기어고(韓國禁忌語考)상·하」, 『국어국문학』 25·26, 국어국문학회, 1962·1963; 문효근, 「한국의 금기어」, 『人文科學』 Vol.8, 연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1962; 심재기, 「금기 및 금기담의 의미론적 고찰」, 『論文集』 Vol.2, 서울대학교 교양과정부, 1970; 진성기, 『남국의 금기어 연구』, 제주민속문화연구소, 1972; 김영돈, 「창천리 학술조사 - 금기담」, 『국문학보』 제4집, 濟州大學 國語國文學會, 1972; 김기설, 「영동지방의 금기어연구」, 『關東語文學』 Vol.1, 관동대학교, 1978.

금기의 방법과 대상 등 금기의 일반론을 정리한 후, 한국의 금기가 어떤 양상으로 존재하며 그 특성은 무엇인가를 금기담의 분석을 통해 고찰하였다. 금기의 대상은 주로 귀신, 조상, 시체, 자연·자연현상, 시·공간, 어린아이 및 임산부, 사물 등이며 금기담의 내용에는 우리 민족이 지금까지 무엇을 원했으며 어떻게 살기를 바랐느냐하는 이상과 이념을 집약시키고 있는 것이라 했다. 주요소로 장수, 부유, 복, 관상, 가족의식 등 생활 및 인생관과 바람직한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보건, 예의, 살림, 여성, 사물, 휴식 등에 관한 생활규범에 대해 분석했다.

진성기(1972)는 금기어가 전통적인 신앙으로서의 권위와 오랜 경험에서 얻어진 생활의 지혜, 거동과 처세의 교훈, 정신생활의 범도가 되는 등 민속학적 또는 인류문화 과학적 의의가 있음에 주목했다. 그는 1958년~1972년까지 15년 동안에 걸쳐 제주도 전역에 흩어져 있는 금기어를 발견하여 메모해둔 것을 정리 및 풀이해 『제주민속문화총서』로 발간했으며, 1,500여 편의 금기어를 편의상 내용별로 크게 분류하여 살림, 출산, 신앙, 동물, 꿈, 정초, 병고, 사망, 사주, 계절, 농사, 간지, 건축, 뱀, 방위, 하천, 산악, 해상 등으로 세분화했다. 김영돈(1972)은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학술조사의 일환으로 1972년 8월 21일부터 24일까지 서귀포시 안덕면 창천리를 방문해 방언, 금기담, 설화, 신앙에 대한 현지조사를 진행했다. 그 가운데 금기담에 대해 채집한 결과, 통과례, 일일거동(一日舉動), 일상거동(日常舉動), 세시거동(歲時舉動), 의식주, 동식물 등 6개의 주제에 대한 총 389개의 금기어들을 수집·정리했다. 창천리 금기담의 경우, 한 마을 내의 현지 조사라는 점과 단순 금기담의 수집 및 정리에만 그쳐 풀이나 분석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겼다. 그러나 제주도의 학술조사보고서에서 속담보다 먼저 금기담이 연구 대상이 되었다는 점<sup>11)</sup>에 의미가 있다. 김기철(1978)은 영동지방의 금기어와 관련 민속을 산속(産俗), 장(葬)·제(祭), 세시풍속, 생업으로 분류하여 정리하고, 금기어에 나타난 민중들의 의식으로 민간·신앙적 사고, 유교적 점잖음, 남존여비적 사고, 윤리·도덕적 교훈관, 보건 위생적 사고 측면에서 밝혔다. 또한 영동지방 금기어의 합리성과 비과학성 및 특질에 대해 고찰하였다.

11) 고재환은 1982년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와 국어교육과에서 남제주군 안덕면 덕수리를 대상으로 학술조사를 진행한 가운데 속담분야에 대한 채집 결과 등을 수록한 학술조사보고서에 대해 정리하며, 제주도 학술조사보고서에서 속담이 대상이 된 것은 처음이라 밝혔다. (고재환, 『제주도속담연구사』, 『논문집』 제29집, 제주교육대학교, 2000, 15쪽)

80~90년대에는 지역의 금기어 수집과 더불어 민중의 생활 및 의식, 관념 등에 관한 금기어 연구<sup>12)</sup>가 진행됐다. 최현섭(1983)은 인천 교육대학 국어과의 학술조사로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을 방문하여 금기언을 조사했다. 50세 이상의 여성을 중심으로 총 231개의 금기언을 정리하고, 조사된 금기언을 바탕으로 분류 및 해석도 진행했다. 분류의 결과 행동적 금기언 193개, 심리적 금기언 38개로 행동적 금기언이 대부분이었으며, 임신 및 해산, 육아와 관련된 것이 가장 많았다. 귀결절의 내용은 대부분이 “나쁘다”, “불길하다”, “재수없다” 등 막연한 것으로 불확실한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기설(1985)은 앞서 발표한 영동지방의 금기어연구 가운데 생업과 관련된 금기어를 중심으로 그 특징을 규명했다. 농업과 어업에 나타난 금기어에는 농경민의 소원인 풍요로운 결실을 바라는 행위와 또 어민들은 풍어와 해상에서 사고 없이 조업하여 무사귀향하고자 하는 심리가 내재해있다고 밝혔다. 김승찬(1991)은 기장지방에 전승되고 있는 금기속신을 세시, 성별, 대인관계, 산속(産俗), 혼사, 장례, 제사, 생업, 신체, 취침, 의복류, 음식 등 총 20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정리했다. 가덕도의 기층문화를 파악·보존하기 위해 반농반어촌의 도시화 과정에서 일어나는 생활양식의 변화과정과 문화의 변동과정을 학술적으로 탐구하고, 가덕도의 기층문화를 통과의례, 세시풍속, 금기생활로 나눠 구술 조사를 진행했다. 김선풍(1994)은 한국 금기어의 분석과 금기담의 구조·기능을 통해 금기 양상을 발견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금기는 인류 모두가 보편적으로 소유한 사회적, 종교적 문화현상이라 설명하며 사회의 질서와 종교적 신성성을 위해 원용되었고, 그 속에서 민족 나름의 색다른 금기속을 창출하였다고 보았다. 김승찬(1996)은 지역의 현지조사를 통해 세시, 성별, 대인관계, 산속, 소아, 혼사, 장례, 제사, 생업, 신체 등 총 20개의 목록으로 나누어 기장 지방의 금기 속신을 수집, 정리했다.

2000년대 이후에는 언어학, 교육학, 사회학, 심리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금기어에 관한 연구<sup>13)</sup>가 이루어졌다. 김종수(2000)는 언어가 어떤 사물을 표현하지 않

12) 최현섭, 「경기도 팔탄면의 금기언」, 『기전문화연구』 Vol.11, 仁川教育大學, 1983; 김기설, 「영동지방의 생업과 관련된 금기어연구」, 『韓國民俗學』 Vol.18, 한국민속학회, 1985; 김승찬, 「가덕도의 기층문화 조사(2)-통과의례, 세시풍속, 금기생활-」, 『문창어문논집』 28권, 문창어문학회, 1991; 김선풍, 「한국인의 금기어와 금기담」, 『語文論集』 Vol.23, 중앙어문학회, 1994; 김승찬, 「기장지방의 금기 속신」, 『한국민족문화』 Vol.8, 釜山大學校 韓國民族文化研究所, 1996.

13) 김종수, 「금기와 사전에 나타난 금기어」, 『독어교육』 20, 한국독어독문학회, 2000; 허

기 위해 사용되는 점에 주목하고, 금기 개념과 그 영역, 금기의 대체 형태인 완곡어법을 살핀 후, 사전에서 금기어에 해당하는 외설적인 어휘들, 욕설과 성적인 낱말들을 고찰했다. 허재영(2001)은 언어와 문화의 상관성을 다루는 연구 대상 가운데 금기어라는 언어 형식에 관심을 두고 금기어를 어휘적 금기어뿐만 아니라 통사적 금기어를 모두 포함하여 설정했다. 어휘적 금기어는 완곡어법과 관련을 맺고 있으며 통사적 금기어는 가정적 조건절과 종속절의 구조를 이루는데, 가정적 조건절은 금기 대상과 행위가 제시되며, 조건절은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의 결과나 지켜야 할 이유가 제시된다는 특징을 밝혔다. 발생 요인으로는 공포와 혐오의 정서와 관련한 심리학적 요인과 유추와 연상(聯想)의 인지적 사고, 사회적 요인 등이 있음을 정리했다. 박영준(2004)은 금기어의 개념을 언어학적 관점에서 재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언어학적 금기어는 한 언어 공동체에서 사용하기를 꺼리는 언어 표현으로 한정했다. 금기어 유형을 사용 환경과 사용 언종의 범위에 따라 나누고, 금기어가 원형태 그대로 실현되는 경우는 언종에게 거부감을 주기 때문에 원형태의 형태적 변형과 원형태의 의미적 변형으로 실현된다고 밝혔다. 정종진(2012)은 금기의 형성과 그 사회적 대응 양상에 대해 밝혔다. 금기와 연관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서 특히 위반의 긍정적인 가능성과 사회적 수용의 측면에 초점을 두어 논의를 진행했다.

이 외 나라별 금기어와 금기 민속 및 문화 비교에 관한 연구<sup>14)</sup>도 진행돼 왔다. 장장식(2000, 2010)은 몽골의 민간신앙어의 한 갈래인 금기어를 분석하고 그에 대한 원리와 특징을 살폈다. 민간신앙어는 예조어, 금기어, 주술어 등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조건절과 결과절을 기본문형으로 몽골민족의 역사와 생활상 및

재영, 「금기어의 구조 및 발생 요인」, 『사회언어학』 Vol.9, 한국사회언어학회, 2001; 박영준, 「한국어 금기어 연구-유형과 실현 양상을 중심으로-」, 『우리말연구』 Vol.15, 우리말학회, 2004; 정종진, 「금기 형성의 특성과 위반에 대한 사회적 대응의 의미」, 『인간연구』 23, 가톨릭대학교 인간학연구소, 2012.

14) 장장식, 「몽골 금기어의 원리와 몇 가지 특징」, 『몽골학』 제9권, 한국몽골학회, 2000; 이안나, 「금기를 통해 본 몽골의 민속-생활 예법과 의례를 중심으로-」, 『중앙민속학』 Vol.1, 중앙대학교 한국문화유산연구소, 2007; 장장식, 「생태적 관점에 본 몽골 유목민의 금기와 의미」, 『비교민속학』 41, 비교민속학회, 2010; 맹경연, 「중·일 금기문화의 비교연구」, 계명대 석사논문, 2013; 오나, 「한·중 상례문화와 죽음에 관련된 금기어 비교 연구」, 동국대 석사논문, 2014; 왕뢰, 「한국어와 중국어의 금기어 비교 연구 - 죽음에 관한 금기어를 중심으로-」, 조선대 석사논문, 2014; 김동환, 「한중 금기어 비교 연구」, 호남대 석사논문, 2015; 우상, 「한중 동식물 관련 금기어 비교 연구」, 대구대 석사논문, 2015; 김미진, 「한국어와 중국어 금기표현 비교연구 -관혼상제를 중심으로-」, 강원대 석사논문, 2017; 박환영, 「금기어 속에 내재된 농촌과 어촌의 생태민속 비교-민속문화의 지속 가능성을 중심으로」, 『비교민속학』 67, 비교민속학회, 2018.



신앙성을 내포한다고 밝혔다. 생태적 관점에서 몽골 유목민의 금기와 그 의미에 대한 연구를 이어갔다. 생태 금기어의 내용과 양상으로 가축과 짐승, 강과 강물, 대지, 나무, 이사 관련한 금기로 나누었으며, 이는 목초지의 이용과 보존이라는 측면에서 발생한 금기로 해석했다. 금기를 통해 소비의 무한욕망을 통제하고 목초지의 재생력을 강화하려는 사회적 기제이며, 현대적 의미에서 볼 때 생태 또는 생태학, 생태관념의 또 다른 표현이라 밝혔다. 이안나(2007)는 몽골의 금기 가운데 명절과 일상생활, 인사, 주거, 식생활, 의생활, 상장례 등 생활 예법과 의례를 중심으로 그 안에 나타나는 금기를 살펴봄으로써 삶의 순리적인 측면 등 몽골인의 의식과 생활 방식을 설명했다. 박환영(2018)은 금기어 속에 내재되어 있는 농촌과 어촌의 생태민속을 비교해 봄으로써 주어진 자연환경을 소중히 여기면서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려는 민중들의 상생과 공생의 생태문화와 민속 문화의 지속가능성을 고찰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특히 농촌과 어촌지역의 일상적인 생활문화 속에서 발굴할 수 있는 금기어를 민속학의 시각에서 분석하여 금기어 속에 내재되어 있는 친환경문화인 생태민속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심리학적 측면에서도 금기어에 관한 연구<sup>15)</sup>가 진행됐다. 최상진 외(2002)는 한국의 금기어 중 여성 관련 금기어에 대해 일반인들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지, 실제로 여성의 행동을 제어하는데 작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확인하고자 했다. 모두 384명의 남녀 대학생 및 성인들을 대상으로 총 63개 여성 관련 금기어의 타당성과 수용성 정도를 5점 척도에서 평가했는데, 타당성에서 남녀 모두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했다. 여성 응답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타당성 평정과 수용성 평정을 비교한 결과에서는 거의 모든 금기어에 대해 타당성 평정치보다는 수용성 평정치가 유의하게 높아, 이는 자기가 관여되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서 타당성이 없다하더라도 금기를 수용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박정열·최상진(2003)은 금기어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국인의 심층심리를 파악하였다. 전체 금기어 중에서 인간생활과 관련된 금기어가 가장 많았으며, 꿈, 동식물, 그리고 자연과 관련된 금기어들 순이었다. 금기어의 후반

15) 최상진·양병창·박정열·김효창, 「여성관련 금기어의 타당성 및 수용성 지각 :성차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Vol.7, 한국심리학회, 2002; 박정열·최상진, 「금기어 분석을 통한 한국인의 심층심리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Vol.22, 한국심리학회, 2003.



주절부 분석을 통해 과거 사람들이 인생에서 얻고자 했던 가치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무병장수, 풍요로운 삶, 자연과 순리에 따르는 삶, 그리고 화목한 가정과 관련된 것이 주종을 이루었다.

이상의 연구를 분석해보면, 금기 및 금기어에 관한 연구는 민속학적 연구와 언어학적 측면에서 많이 진행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금기어 연구는 60~70년대 민속학적 관점에서 출발하여 현지 조사를 통한 금기어 수집 및 정리가 이뤄졌고, 80~90년대에는 지역의 민속과 관련하여 금기어를 통한 민중의 생활과 의식, 관념에 대한 연구가 많았다. 2000년대 이후에는 언어학, 교육학, 사회학, 심리학 등 다양한 분야와 관점에서 금기어 연구가 이뤄지며 여러 측면에서 꾸준히 진행돼 왔다. 제주 금기어 연구의 경우, 70년대 비교적 이른 시기에 자료 정리가 시작되었으나 이후 금기어 수집 및 연구가 빈약한 상황이다. 기존에 정리된 금기어 자료를 바탕으로 소주제에 대한 연구<sup>16)</sup>만 있을 뿐, 전체 금기어를 모두 다루어 분석한 연구는 찾아 볼 수 없다. 이에 따라 제주 금기어와 관련한 다각적인 자료 수집 및 분석이 요구되며, 국문학, 사회학, 민속학적 측면에서의 다양한 연구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 3. 연구 대상과 방법

#### 1) 연구 대상

본고에서 분석의 대상으로 채택한 주요 연구 자료<sup>17)</sup>는 진성기(1972)가 1958년에 서부터 1972년까지 약 15여 년 동안 제주를 돌며 틈틈이 수집·정리한 금기어다. 진성기는 제주 금기어를 살림, 출산, 신앙, 동물, 꿈, 정초, 병고, 사망, 사주, 계절, 농사, 간지, 건축, 뱀, 방위, 하천, 산악, 해양 총 18개 항목으로 분류했다. 서문에

16) 김순이는 제주 금기어 중 산속(産俗)에 관련한 금기어만을 다루어 분석했으며, 고재환은 금기어의 형성배경, 유형을 정리하고 금기담 내용으로 통과의례와 생업 금기어만을 가지고 밝혀 제주 금기어의 전반적인 내용을 담아내지 못했다. 두 자료 모두 제주 금기어 전체를 다루고 분석한 연구가 아니라 일부만을 다룬 연구이다. (김순이, 「금기어에 나타난 제주여속-산속을 중심으로」,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조사연구보고서』 7집, 1992, 179~188쪽.; 고재환, 「방언·속담-제3장 금기담」, 『제주의 전통문화』, 제주도교육청, 1996. 851~864쪽).

17) 진성기, 『남국의 금기어 연구』, 제주민속문화연구소, 1972 ; 진성기, 『제주도 금기어 연구사전』, 제주민속연구소, 2002.

서 저자는 1,500여 개의 금기어를 수집·정리하였다고 밝혔으나 필자가 자료 속 금기어를 확인해 본 결과, 총 793개였다. 항목별 금기어 개수를 살펴보면 살림 281개, 출산 96개, 신앙 81개, 동물 79개, 꿈 70개, 정초 12개, 병고 30개, 사망 37개, 사주 10개, 계절 12개, 농사 21개, 간지 15개, 건축 12개, 뱀 7개, 방위 9개, 하천 4개, 산악 3개, 해양 14개다. 금기어 개수에서 이러한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내용 및 의미가 같거나 극히 유사한 금기어의 경우, 항목(목차)에서 제외하고 기본형 금기어 안에 괄호로 같이 포함시켰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자료 속의 금기어<sup>18)</sup>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오는 언어 형태 중 짧은 한두 문장으로 고정된 관용적 언어 표현이며, 대체로 ‘무엇을 하지 마라’, ‘무엇을 하면 나쁘다 또는 좋지 않다’ 등 특정 대상이나 상황에 대한 금기의 말과 그 풀이에 대한 내용이 정리되어 있다.

『남국의 금기어 연구(1972)』는 비교적 이른 시기에 현장 조사를 통해 수집된 구비전승물이자 제주 민속어 분야의 귀중한 자료이기는 하나, 몇 가지 논의점이 있다. 첫째, 제주 금기어와 관련하여 다각적인 자료 분석 및 연구를 위해 다른 자료와 비교하여 내용을 보완하고자 한다. 1972년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서 진행한 학술조사로 수집된 창천리 마을의 금기담<sup>19)</sup>을 함께 살펴볼 것이며, 금기어가 속담이나 다른 속신어<sup>20)</sup>와 비슷한 언어 형식을 가짐에 따라 제주속담사전<sup>21)</sup>과 비교하며 그 의미를 고찰해 볼 것이다. 둘째, 자료에 수록된 금기어가 제

18) 금기어는 어휘론적 금기어와 문장 형식의 금기어로 나눌 수 있다. 어휘론적 금기어는 한 낱말이 금기를 이루는 경우다. 특정 낱말을 일상생활에서 규범적으로 발설하지 않는 원칙이 있는데, 성에 관련된 것, 불쾌한 사물에 관련된 것, 순위 어른의 이름 등이 있다. 다른 하나는 문장 형식의 금기어로 여러 낱말이 문장을 이루어 금기 의미를 가진 표현이다. 무엇을 하면 안 된다, 무엇을 하면 좋지 않다 등 조건문과 종속문의 겹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허재영, 앞의 책, 259-260쪽.) 본 연구에서는 문장 형식의 금기어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며, 그 금기 문장의 의미를 분석하고자 한다. 진성기 자료의 경우 금기어뿐만 아니라 전조어, 흥조어 등이 포함되었다.

19) 김영돈, 「창천리 학술조사 - 금기담」, 『국문학보』 제4집, 濟州大學 國語國文學會, 1972.

20) 최래옥은 속담, 수수께끼와 더불어 구비단문(口碑短文)의 3영역으로 민간속신어가 있다고 정리했다. 구비문학에는 짧은 문장으로 된 말 중 속담도 수수께끼도 아닌 구비단문(口碑短文)이 있는데, 이는 일상생활에서 큰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가 심각한 것도 있어 결코 미신이나 불합리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이것을 그동안 금기(禁忌), 금기어(禁忌語)나 길조어(吉兆語), 속언(俗諺), 속신(俗信) 등 여러 가지 말로 써 왔으며 결국은 민간에서 신앙같이 여기는 언어현상이라 하여 민간 속신어(民間 俗信語)라 명명했다. 민간속신어는 각 분야에 수만 개가 전승되며 우리의 사상과 감정을 독특한 양식의 언어로 표현한 언어전승물이며 인간을 구속하고 제약하고 교육하는 구연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비문학으로 포함시켜야한다고 주장했다. 민간속신어는 과학적 합리성, 교육적 윤리성, 주술적 심리성, 세 가지의 존재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최래옥, 『한국 민간 속신어사전』, 집문당, 1995, 3~4쪽, 313~318쪽.)

주의 고유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한국의 금기어<sup>22)</sup>를 검토한 결과, 제주 금기어는 제주에서 채록되었지만, 육지부에서 두루 통용되는 금기어와 상당히 유사하다. 이는 같은 언어권에서 사용하는 말이 전국으로 전파되며, 제주 내에서는 방언으로 전승되고 통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제주는 오랜 기간 육지부와 동떨어져 고유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으나, 고려 시대(1105 숙종) 이후 중앙 정부의 통제권에 들어가고, 조선시대 태종16년(1416)에 전라도 관할 제주목, 정의현, 대정현을 설치, 완전하게 중앙 정부의 지휘를 받는 행정 구역이 되었다. 이에 따라 점점 본토의 문화적 유입이 강해지고 이념적 동질성도 커져갔다.<sup>23)</sup> 자연스레 언어와 언어적 사유체계도 비슷해지며 상당 부분 언어·문화적 체계를 공유하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같은 언어·생활 문화권에서 사용되는 말이 전국으로 전파되며 자연스럽게 수용되고 속신어 등 언어 전승에 있어서도 많은 부분 유사성을 가지게 된 것이다. 본 연구는 앞서 밝힌 것처럼 육지부의 금기어와 제주의 금기어가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보편성이 있음을 인지하고 동시에 제주에서 오랫동안 전승되어 어느 정도 제주인들에게 통용되고 유효하였다는 점에 중점을 두어 제주 금기어를 연구하고자 한다. 제주는 자연환경과 함께 한반도 본토와는 다른 지리적 조건으로 독립된 생활양식 및 문화 등 독특한 정체성을 지님에 따라 금기어 일부에서 제주 고유의 특징이 담긴 말을 살펴볼 수 있었으며, 제주 언중들 사이에서만 공유되는 문화와 민속, 사회적 상황 등을 유념하여 제주 금기어 속에 내재된 사회·문화적 의미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셋째, 자료에 제시된 금기어가 다른 속신어와 구별되지 않는 선별상의 문제가 있다는 점이다. <남국의 금기어 연구>에는 금기어가 아닌 것을 금기어로 처리하거나 전조어 등이 함께 수록되어 있다. 여기서 금기어의 범주는 언어 형식에 따라 설정된 것이 아니

21) 고재환, 『제주속담사전』, 민속원, 2002; 진성기, 『제주도속담전집』, 도서출판 디딤돌, 2010.

22) 김성배, 「한국 금기어고(韓國禁忌語考) 상·하」, 국어국문학 25·26, 국어국문학회, 1962·1963.

최래옥, 『한국 민간 속신어사전』, 집문당, 1995.

23) 여말선초 제주에는 육지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정착하여 후손을 남겼는데, 이들을 제주에서는 입도조라 부른다. 입도조는 말 그대로 제주 도착 성씨인 고, 양, 부를 제외하여 '섬에(처음) 들어온 조상'을 뜻한다. 제주 입도조들은 대부분 양반으로 일정한 학문적 소양과 중앙에서의 신문물 경험치를 지닌 존재들이었으며 나름의 경제적 기반까지 수반해 입도하였다. 이들의 입도는 제주의 토착문화와 외래문화의 접촉과 수용, 흡수와 통일 등 상호 정보 교류 및 영향을 주고받는 계기가 되었으며, 특히 양반인 입도조가 들어와 살면서 제주 민간에서는 그들의 언어 및 문화를 상위 문화로 인식하였고 이에 따라 속신어 등 제주 본래의 금기어가 자연적으로 없어지거나 육지부와 비슷해진 것으로 보인다. (홍기표, 「여말선초 제주 입도조 연구」, 『제주도연구』 제49권, 제주학회, 2018.)

라 의미에 따라 설정된 것이기 때문에 보는 이에 따라 금기 범주를 나누는 데 차이가 클 수 있다. 허재영(2001)은 금기어를 다루는 두 가지 방향에 대해 (가) 금기어를 속신어나 속담과 같은 유형으로 교훈적인 문화어구, 비유담, 길흉담을 모두 묶어 처리하는 방식과 (나) 속신어 가운데 금기어만을 따로 설정하여 연구하는 방식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

본고에서는 금기어가 다른 관용적 표현과 비교하여 심리적·사회적 차원에서 다르게 해석되는 부분이 있음에 따라 독자적인 연구 영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금기어의 범주를 의미에 따라 설정하여, 그 내용을 검토하고 금기적 성격을 지니거나 심리적 기휘(忌諱)가 드러나는 말은 금기어로 보아 폭넓게 분석하고자 한다.

## 2) 연구 방법

선행 연구에서 볼 수 있듯이 금기어의 범주 및 분류 방식은 연구자의 연구 분야와 분석 방법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최현섭(1983)<sup>24)</sup>은 금기언이 대부분 “~하면~나쁘다”인 조건절과 귀결절의 짜임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먼저 조건절과 귀결절로 나누는 후, 조건절에서 행동적 금기와 심리적 금기로 나누어 분석했다. 그 대상에 따라 행동적 금기는 사람, 신체 부분, 행사, 절기·날짜, 음식·식사, 임신·해산·육아, 업·살·손, 동물, 기거로 나누었고, 심리적 금기는 꿈, 자연현상으로 나누어 정리했다. 또 구체적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나쁘다”, “불길하다”, “재수없다”와 구체적 결과인 “병든다”, “흉년든다”, “죽는다” 등 높은 빈도를 보이는 귀결절의 내용도 분석한 바 있다.

최래옥(1984)<sup>25)</sup>은 민간에서 신앙적인 구실을 하며, “하지 말라”의 금기나 “하라”는 권장, 또는 판단이나 예언을 하는 짤막한 말 곧 문장 형태인 민간 속신어의 구조적 특징을 파악하여 해석 방법을 모색했다.

24) 최현섭, 「경기도 팔탄면의 금기언」, 『기전문화연구』 Vol.11, 仁川教育大學, 1983

25) 최래옥, 「민간 속신어의 해석방법」, 『한국민속학』 17, 한국민속학회, 1984.

$$\begin{aligned} \text{속신어} &= \text{기능요소(조건절±결과절)} \\ &= \alpha ( X \pm Y ) \end{aligned}$$

속신어의 구조를 먼저 “X면 Y다” 형식인 조건절과 결과절로 나누고, 분류 할 수 있는 관별 구실의 기능요소(예를 들어, ‘꿈에’, ‘죽어서’, ‘병나서’ 등)가 고정적으로 들어간 것을 파악했다.

$$\begin{aligned} \text{속신어 해석} &= \text{기능요소 해석(조건소±결과소)} \\ &\beta ( x^n \pm y^n ) \end{aligned}$$

다음으로 조건절을 이루는 단어들과 결과절을 이루는 단어들을 분해하는데, 이때 소문자 x는 조건소(條件素), y는 결과소(結果素)라 하며 조건소와 결과소 하나하나에 담긴 내적의미를 추출한다고 설명했다.

박정열·최상진(2003)<sup>26)</sup>은 금기어 전체에서 인간생활, 꿈, 동·식물, 자연 등 내용면에서 유사한 것끼리 분류·정리하고, 그 중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는 금기어를 분석했다. 금기어의 문장 구조에 따라 크게 조건절과 주절로 나누어, 결과에 해당하는 주절부만을 정리했는데, “재수 없다”, “나쁘다” 등의 일반적 결과와 “병든다”, “죽는다” 등의 구체적 결과를 밝히며 우리 민족이 원했던 이상적인 생활 혹은 가치가 무엇이었는지 분석했다.

본 연구에서도 위의 연구 방법에 따라 금기어의 구조를 조건절과 귀결절로 나누는 후, 조건절에 해당하는 금기의 대상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는 내용을 분석하고, 조건소와 결과소에 담긴 표면적인 의미와 내적 의미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금기어의 분류는 사회·문화적인 범주에 따라 선인들의 의식구조나 생활상 등을 살펴보기 위해 인간의 삶과 생활 전반을 두루 아우를 수 있는 기준을 택했다. 금기는 하나의 문화현상으로 인간의 다양한 생활 속에 스며 있기 때문에 그 양상이 복잡하고 다양하지만, 개인과 가정, 사회생활 등 금기의 양상을 크게 인간에 관한 것, 외물(外物)에 관한 것, 종교에 관한 것으로 나누어 내용면에서 일상생활, 자연, 신앙 세 가지 유형으로 설정했다.

26) 박정열·최상진, 「금기어 분석을 통한 한국인의 심층심리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Vol.22, 한국심리학회, 2003.

본 논문은 크게 다섯 부분으로 나누었다.

제 1장 서론 부분에서는 연구의 목적을 밝히고, 선행 연구들의 성과를 검토한 후, 연구의 대상과 방법을 제시한다.

제 2장에서는 금기어의 개념 등 이론적 배경에 대해 살펴본다. 금기어를 다루기 전 용어에 대한 개념 정립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에 따라, 선행학들의 연구 자료를 검토하여 금기어의 정의 및 영역, 발생요인을 분석하고 기술하고자 한다.

제 3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제주 금기어를 다룬다. 금기어를 언어학적 범주가 아닌 사회·문화적 범주로 설정하여 내용과 의미에 따라 새롭게 유형화하는 단계다. 무엇과 관련된 금기어가 가장 많으며, 금기 대상에 따라 어떠한 금기 방법과 행위가 수반되는지 등 제주 금기어의 유형 분류를 통해 다양한 금기의 내용과 양상에 대해 살펴본다.

제 4장에서는 주제에 따라 분류한 제주 금기어의 의미에 대해 살펴본다. 인간의 삶과 사회 전반에 두루 통용되는 금기어의 내용을 소개하고, 금기어 속에 담긴 옛 사람들의 생활관, 자연관, 신앙관을 고찰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 결론 부분에서는 각 장의 내용을 요약·서술하고, 제주 금기어의 유형 분류와 분석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도출해보면서 이 논문의 의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금기어의 정의

#### 1) 금기어의 개념

금기(禁忌, taboo, tabu)는 어떤 대상이나 현상에 대한 불가지(不可知), 불가해(不可解)에 대한 심리로 발생하는 인류 보편적인 문화 현상이다. 영어의 타부(taboo, tabu)라는 말은 우리말로 ‘금하는 일’, ‘삼가는 일’, ‘가리고 지키는 일’, ‘구기(拘忌)’, ‘금기(禁忌)’라고 번역된다. 원래 폴리네시아 단어로 ‘신성(神聖)’ 또는 ‘부정(不淨)’의 이중 개념을 포함하며 1977년 영국의 쿡Cook, J. 선장이 통가 *Tonga: The South Sea Islands*에서 타부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을 처음으로 발견했다.<sup>27)</sup> 타부는 어느 특정된 물건, 언어, 행위에 대해서는 신성불가침의 것이라 하여 보지도, 다치지도 못할 뿐더러 입에 오르내리기까지를 기피한다. 만약에 이를 범하면 화를 입거나, 신이나 혼령을 노하게 하여 자기 신상에 비참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한다.<sup>28)</sup> 이러한 금기의 대상이나 행위에 관한 언어적 표현을 금기어라 하는데, 사회문화적 산물로서 그 민족이 갖는 사고와 관념의 일면을 알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됨에 따라 많은 학자들로부터 학문적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금기어는 비합리적인 요소가 많지만 때로는 법률보다 강하게 사회적 관습을 규제하고, 오랜 기간 전승되어 사람들의 정신 및 사회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금기어에 대한 개념은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게 정의되고 있는데, 기존 연구에서 제시한 금기어의 개념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1> 금기어의 개념

연구자	정의
김성배(1962)	경계(警戒)나 주의(注意)를 주고 금지(禁止)와 기의(忌意)를 일으켜 어떠한 행동을 못하게 하는 말
문효근(1962)	사회·습관적 원인, 신앙적·속신적 원인 등으로 사용을 기피하

27) 민속학회, 『한국민속학의 이해』, 문학아카데미, 1994, 304쪽.

28) 문효근, 「한국의 금기어」, 『人文科學』 Vol.8, 연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1962. 1쪽.



	는 언어나 문자
심재기(1970)	금기(禁忌)된 단어(單語)의 뜻
진성기(1972)	금기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금하고 꺼리는 말
김기설(1978)	금기하는 구체적 사항을 언어로 서술한 것
최현섭(1983)	금하거나 꺼리는 내용이 문장으로 표현되어 구전되어 온 말
김선풍(1994)	어떤 징후나 조짐을 경험론으로 풀어나가는 구연 진술체
장장식(2000)	일정한 사물에 대한 접근, 접촉의 금지나 그 행위를 기피하도록 하는 언어 진술
허재영(2001)	거리끼고 싫어하는 대상, 또는 행위를 표현한 말 또는 어떤 행위를 금지하거나 특정한 말을 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을 하는데, 이와 같은 의도에서 형성된 말
박영준(2004)	한 언어 공동체에서 사용하기를 꺼려하는 언어 표현

김성배(1962)는 ‘경계(警戒)와 주의(注意)를 주고, 금지(禁止)와 기의(忌意)를 일으켜 어떠한 행동을 못하게 하는 말’이라 정의하며, 금기하는 방법으로 행동이나 표시로써 하는 것과 말로써 하는 것 두 가지를 제시했다. 문효근(1962)은 ‘사회·습관적 원인, 신앙적·속신적 원인 등으로 사용을 기피하는 언어나 문자’라 했으며, 심재기(1970)는 ‘금기(禁忌)된 단어(單語)’의 뜻이라 했다. 진성기(1972)는 ‘금기어란 글자 그대로 금하고 꺼리는 말’로, 금기를 표시하는 일종의 속담이라 했다. 김기설(1978)은 ‘금기하는 구체적 사항을 언어로 서술한 것’이라 했으며, 최현섭(1983)은 ‘금하거나 꺼리는 내용이 문장으로 표현되어 구전되어 온 말’이라 했다. 김선풍(1994)은 금기어를 속담이나 수수께끼처럼 그 민족 신앙, 곧 속신(俗信)의 언어적 구연들 중의 하나라 보고, 속담처럼 화려한 수사법을 동원하고 있지는 않지만, 가정법적 조건절이 짙게 나타나면서 ‘어떤 징후나 조짐을 경험론으로 풀어나가는 구연 진술체’라 했다. 허재영(2000,2001)은 ‘거리끼고 싫어하는 대상, 또는 행위를 표현한 말’ 또는 어떤 행위를 금지하거나 특정한 말을 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을 하는데, 이런 의도에서 형성된 말을 금기어라 정의했다. 박영준(2004)은 ‘한 언어 공동체에서 사용하기를 꺼려하는 언어 표현’이라 설명했다.

이상의 기존 연구들을 바탕으로 금기어의 개념을 정리하면, 금기어는 ‘어떤 대상이나 행동에 대해 금하거나 꺼림을 나타내는 말’로 규정할 수 있으며, 단어 형식의 구조로 된 일반 어휘에서부터 행동이나 행위와 관련된 특정한 언어 표현까지 포함되는 것을 알 수 있다.



## 2) 금기어의 용어

금기어(禁忌語), 금기담(禁忌談), 금기언(禁忌言) 등의 ‘용어’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다르게 정의하고 있다. 김성배(1962), 진성기(1972), 김기설(1978) 등은 대체로 문장 형식의 금기어를 대상으로 ‘금기어(禁忌語)’라는 용어를 사용, 경계나 주의를 주고 금지나 기의를 일으켜 어떠한 행동을 못하는 말이나 혹은 글자 그대로 금하고 꺼리는 말, 금기하는 구체적 사항을 언어로 서술한 것이라 했다.

심재기(1970)는 금기의 대상이나 종류를 막론하고 금기행위(방법)를 지시하는 일종의 관용문구를 가지고 있음을 지적하며, 앞선 금기 연구는 모두 이 ‘금기담(禁忌談)’을 수집·분석한 것이라 했다. 이는 대체로 하나의 문장을 구성하기 때문에 ‘금기담’이란 용어를 창안했으며,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금기어’는 ‘금기된 단어(單語)’의 뜻이 강하기 때문에 금기의 대상과 행위를 지시하는 관용문구의 뜻으로 금기담(禁忌談)이란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현섭(1983)은 ‘금기어’와 ‘금기담’이라는 용어가 함께 쓰여 온 것에 대해 모두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논의된 것은 금기된 단어가 아니라, 금하고 꺼리는 내용이 문장으로 표현, 구전되어 온 말이기 때문에 ‘어(語)’가 붙으면 고어(古語), 반어(反語) 등 단어의 뜻을 나타내고, ‘담(談)’이라는 말이 붙으면 군담(軍談), 괴담(怪談) 등 ‘비교적 긴 이야기’라는 뜻이기에 두 가지 모두 용어로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다. 반면 금기언(禁忌言)의 경우, ‘言’이라는 말이 격언(格言), 발언(發言) 등 ‘비교적 짧은 말’을 뜻하기 때문에 여러 용어 중 ‘금기언(禁忌言)’이라는 용어가 가장 적당하다고 주장했다.

필자는 선학들이 주장한 ‘금기어(禁忌語)’, ‘금기언(禁忌言)’, ‘금기담(禁忌談)’ 등 유사한 용어 중 ‘금기어(禁忌語)’를 채택했다. 본고의 연구대상은 금하고 꺼리는 내용이 문장으로 표현, 구전되어 온 것으로 대부분 하나의 문장으로 구성된 구비단문(口碑短文)의 형태를 띤다. ‘담(談)’의 경우, 단문이 아닌 하나의 이야기를 나타내는 뜻이 강하기 때문에 ‘금기담’이란 용어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 ‘어(語)’와 ‘언(言)’의 경우, 모두 ‘말’을 의미하지만, 한자의 뜻풀이에서 차이점이 존재한다. ‘言’은 ‘말씀 언’이라는 한자로 ‘말씀’, ‘말’, ‘견해’, ‘의견’, ‘맹세의 말’, ‘하소언’, ‘건의’ 등을 뜻한다. 용례를 살펴보면, ‘言’은 직언(直言), 발언(發言), 공언(公言), 단언(斷言) 등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으로 어떠한 의견에 대해 직접

말하는 것을 뜻한다. 반면 語는 ‘말씀 어’라는 한자로, ‘말씀’, ‘말’, ‘이야기’, ‘(새, 벌레의)소리’, ‘말하다’ 등을 뜻하며 인간의 언어뿐만 아니라, 새가 지저귀는 소리를 포함한 동물의 음성 의사소통 신호까지 모두 포괄하는 글자로 사용된다. 따라서 ‘까마귀가 울면 동네에 영장이 난다’, ‘가뭄에 청개구리가 울면 비가 온다’ 등의 말과 같이 자연 현상이나 인간 생활의 현상에 토대를 두고 이언(俚言)으로서 형성, 구전되어 내려온 종교적, 무속적, 신앙적인 민속 언어를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흉조어(兇兆語), 길조어(吉兆語) 등 오랫동안 굳어진 언어로 사람들 사이에서 관용적으로 사용되고 이야기되는 말을 ‘어(語)’로 보고, ‘금기어(禁忌語)’라는 용어가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또 語에는 ‘발표하다’, ‘대답하다’, ‘깨우치다’, ‘가르치다’, ‘설명하다’라는 뜻이 있는 반면, 言에는 이런 뜻이 없다. 금기어는 사람들 사이에 전승되며 교훈적으로 깨우치고 가르치는 기능과 역할이 크기 때문에 ‘언(言)’이 아닌 ‘어(語)’로 사용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

## 2. 금기어의 영역

### 1) 금기어의 판단 기준

금기어는 ‘어떤 대상이나 행동에 대해 금하거나 꺼림을 나타내는 말’로, 속성상 다양한 뜻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종류도 그만큼 다양하다. 어쩌면 인간이 부딪히고 대하는 모든 사물이 금기와 관련되어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금기는 행위·사람·사물·말 등 모든 것에 관련되어 있고, 종교적·주술적·교훈적·전설적인 측면에서 인간의 행동과 사고방식을 규제하고 있다.<sup>29)</sup>

심재기(1970)는 내용면에서 금기어의 구성요소로 첫째, 금기의 대상이 명시되어야 하고 둘째, 금기의 방법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장은 대체로 금기의 대상과 방법이 모두 밝혀져 있는 것이 보통이지만 단지 어떤 행동의 금기 방법만을 강조하고 금기의 대상이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것은 엄격한 의미에서 금기어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심재기는 금기어의 판단 기준으로 다음 세 가지를 설명하였는데, 첫째는 금기의 대상과 금기 방법의 유무, 둘째는 당연한 사실

29) 민속학회, 앞의 책, 217쪽.

의 서술, 셋째는 꿈의 해몽에 관한 문장이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금기의 대상과 금기 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거나 당연한 사실을 서술하였거나 꿈에 관한 것들은 금기어가 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금기가 반드시 종교적 특징만 가진 것이 아니고 사회적·윤리적 의도 하에서 부차적으로도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금기의 대상과 방법이 갖추어져 있는 기원적 금기어와 어떤 행위의 윤리성을 강조하여 방법만 제시된 부차적 금기어로 구분하여, 그 전부를 금기어로 보았다.

허재영(2001)은 금기어가 다른 관용적 표현인 속담, 격언, 속신어와 유사한 형식을 갖기 때문에 이를 구분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일반적인 관용 표현과 금기어에 대한 개념 정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러한 금기어 설정 문제에 대해 몇 가지 논란을 지적했는데, 예를 들어 일반적 관용어(속담, 수수께끼, 속신어)와 금기어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금기어 속의 신앙성·속신성을 어떻게 규정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일반적인 ‘금지문’과 어떻게 구분될 수 있는가에 대해 검토했다. 첫째, 일반적인 속신어에서 금기어를 구분할 필요가 있는가의 문제에 관해 금기어는 다른 속담이나 길흉어와 달리 발화나 행동에의 경계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구분될 가능성을 갖는다고 밝혔다. 곧 금기어는 민간에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속신어이지만 금기어 발생 과정이 언어 공동체의 심리나 언어사회에 존재하는 행위 규범 등과 자연스럽게 연계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경우가 많다고 했다. 따라서 금기어는 ‘금기의 대상이나 행위’가 존재하며, 이를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방법’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다른 속신어와 구분된다고 정리했다. 둘째, 금기어 속에 반드시 신앙적인 요소가 들어 있는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금기어를 신앙적·속신적 의미와의 관계 속에서만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입장은 금기 문화가 원시적이고 미개한 문화라는 편견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았는데, 인류 보편적인 심리를 고려한다면 현대인에게도 금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금기어의 신앙적·속신적 성격을 지나치게 원시문화로 국한시킬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그렇기 때문에 금기어의 속신성은 문화적 지속성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셋째, 금기와 금지의 구별 문제에 대해 금지는 부정명령문인 언어의 본질적 기능인 의사소통 능력과 관련하여 화자와 청자의 관계를 맺어주는 데 비해 금기어는 화자와 청자의 관계보다 잠재의식과 관련된 언어 형식이라는 점에서 구분될 수 있다고 했다. 금기어는 특별한 화자를 전제하지 않고, 청자

의 경우도 일인이나 불특정 다수가 아닌 보편적인 언어공동체 구성원들의 공통된 심리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논의를 종합하여, 금기어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다고 밝혔다.

<금기어의 개념과 속성><sup>30)</sup>

- ㄱ. 금기어는 어떤 대상이나 행위에 대한 꺼림을 나타내는 말이다. (금기성)
- ㄴ. 금기어는 속신어와는 달리 금기 대상이 존재한다. (금기 대상성)
- ㄷ. 금기의 표현 방법이 존재한다. (표현성)
- ㄹ. 언어 사회에 지속적으로 작용한다.(지속성)
- ㅁ. 금기어는 언어공동체 구성원들의 공통된 심리를 전제로 한다.(사회 심리 공유성)

최현섭(1983)은 금기어의 판단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제시했다. 첫째는 금지하거나 기휘(忌諱)함이 있어야 한다. 둘째, 문장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셋째, 구전되어 온 것이어야 한다.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이면 모두 금기어라 밝히며, 기휘의 심리적 반응 유무가 금기어 판단의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금기어는 근본적으로 예방 가능성의 여부보다 심리적 기휘가 본질임에 따라 “가슴이 새 가슴이면 병이 잦다”, “꿈에 어린애를 안으면 재수 없다.” 등은 금기 방법이 없지만 기휘의 대상이 있고, 문장으로 표현되어 있으며, 구전되어 왔으므로 금기어라 보았다. 그러나 “머리에 이가 많으면 궁하다.”는 기휘하는 바가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매우 상식적인 것이므로 금기어가 아니라고 보았다.

필자는 민간에서 오랫동안 전해 내려오는 민속어이자 어떤 대상이나 행동에 대한 꺼림을 나타내는 말인 금기어의 판단 기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자 한다. 금기의 대상이나 행위가 명시되고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된 것뿐만 아니라 금기적 성격을 띠며 심리적 기휘(忌諱)가 드러나는 말을 모두 금기어로 보고자 한다. 어떠한 말로 인하여 사람의 행동이나 심리를 구속하고 제약하며, 경계와 기피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라면 모두 금기어로 판단하고, 폭넓게 금기어의 영역을 설정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또 ‘~해야 한다’ 형태로 어떠한 행위를 강하게 요구하는 말도 금기어로 보았으며, 반면 당연한 사실을 서술하거나 꿈에 관한 것은 금기어로 판단하지 않았다.

30) 허재영, 앞의 논문, 2001, 199쪽.

2) 금기어 범주 등 유형 문제

금기는 다양한 생활 속에 스며있기 때문에 한계나 종류를 쉽게 규정지을 수 없고 원리 역시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금기 또는 금기어의 유형을 제시하는 데도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 있는데, 연구 분야의 주제와 접근법에 따라 범주 및 영역 등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기존 연구에서 제시한 금기어 영역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2> 금기어 범주 및 유형

연구자	주제	영역
김성배 (1962)	「한국 금기어고 상·下」	인간관계, 인조물 관계, 동물 관계, 식물 관계, 광물 관계, 수화(水火)관계, 천공(天空)관계, 영혼(靈魂)관계, 토지관계, 미신(迷信)관계, 제사(祭祀)관계,
문효근 (1962)	「한국의 금기어」	1.완전히 기피하려는 경우(사람, 동물, 농작물, 물, 불, 기타 관련) 2.금기된 말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려는 경우(사람, 동물, 기타 관련)
심재기 (1970)	「금기 및 금기담의 의미론적 고찰」	1.위구(危懼)의 대상: 귀신, 조상, 시체 등 인격적인 것 자연 및 자연현상, 정령, 시간, 공간 등 비인격적인 것 2.보호의 대상: 어린아이, 자식, 임산부 / 여러 가지 생활 필수품
진성기 (1972)	「남국의 금기어연구」	살림, 출산, 신앙, 동물, 꿈, 정초, 병고, 사망, 사주, 계절, 농사, 간지, 건축, 뱀, 방위, 하천, 산악, 해양
김영돈 (1972)	「창천리의 금기담」	1.통과의례: 임신·출산·산후·육아 등 출산, 혼인, 장·제례 등 사망 2.일일거동: 조조, 야간, 취침 3.일상거동: 일상생활, 신체관계, 대인관계, 여인거지(女人擧止), 기상(氣象)관계, 농사관계, 질병관계 4.세시거동: 정월, 2월~12월 5.의식주: 복식, 음식(식사 시, 음식), 거주(주택, 가구) 6.동식물: 동물, 식물
김기철 (1978)	「영동지방의 금기어연구」	산속(産俗) 금기어, 장(葬)·제(祭) 금기어, 세시풍속 금기어, 생업(生業) 금기어
최현섭 (1983)	「경기도 팔탄면의 금기어」	1.행동적 금기: 사람(여자), 신체 부분, 행사(상례·제례·혼례), 절기·날짜, 음식·식사, 임신·해산·육아, 사물, 업·살·손, 동물, 기거 2.심리적 금기: 꿈, 자연현상
김기철 (1985)	「영동지방의 생업과 관련된 금기어연구」	1.농촌지역 금기어 : 행동 조심, 여성 비하, 풍년 관련 2.어촌지역 금기어 : 출어 전(배를 건조하여 첫출어 때, 평소 출어 때), 조업 중, 귀항 후
김승찬 (1996)	「기장지방의 금기 속신」	세시, 성별, 대인관계, 산속(産俗), 소아, 혼사, 장례, 제사, 생업, 신체, 시(時), 취침, 의복류, 음식·식사, 안택(安宅)·가사·가재도구, 집기류, 치병·복약(服藥), 당제(동제/당산제)·산신
김중수 (2000)	「금기와 사전에 나타난 금기어」	성, 죽음, 배설, 신체기능, 종교적 문제, 정치, 초자연적인 존재, 태양, 달, 불, 시어머니, 어떤 특정한 동물, 왼손의 사용 등 특정 신체부분
박정열 외 (2003)	「금기어 분석을 통한 한국인의 심층심리 탐색」	1.전체 금기어 분석 범주 : 인간생활, 꿈, 동식물, 자연 2.인간생활과 관련된 금기어 분석 범주 : 의식주, 가재도구·생활용품, 통과의례, 시간, 신체부위, 질병, 대인관계, 남녀, 인물, 기타

이안나 (2007)	「금기를 통해 본 몽골의 민속」	명절, 방문·대접할 때, 일상생활, 인사 예법, 주거, 식생활, 의생활, 어린이, 임산부, 상장례
---------------	-------------------------	---

<표 2>에서 주제에 따른 금기어 영역을 살펴보면 금기어의 범주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금기의 대상은 주로 인물, 사물, 자연, 행동 등으로 분류되는데, 그 중 인물은 인간관계, 임산부, 어린이 등이 있으며, 사물 영역에서는 동물, 식물, 생활필수품 등이 있다. 자연은 하늘, 땅, 바다, 시·공간 등으로 하위분류되고, 행동 면에서는 통과례, 의식주, 생업 등으로 나누어진다.

### 3. 금기어의 발생 요인

#### 1) 심리적인 측면

심재기(1970)는 금기의 발생 근원에 대한 해답으로, 첫째 인간의 심성과 관련지을 수 있다고 했다. 인간의 가장 원초적이고 지속적인 본성 가운데는 불가지(不可知)·불가해(不可解)한 힘, 곧 마술(魔術)·마력(魔力)에 대한 공포라 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금기는 원시민족이나 미개민족에게는 광범위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급의 정신문화를 가지고 있는 어떠한 인종이나 사회나 집단에도 금기는 존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귀신이나 도깨비를 인정하는 사회나 집단은 금기현상이 피할 수 없는 구속력을 가지게 되며,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회에서는 신이나 신앙의 대상에 대해 금기가 발생함은 물론 종교이전의 상태에서는 경외의 대상(的), 주로 인간 또는 토템에게 금기가 작용했을 것이라 했다. 이와 같이 애초에는 종교적 원인에 의해서 금기가 발생하였으나 그것이 점차 사회적 인간 관계에까지 확대되면서 사회적·윤리적인 이유에 의해서도 발생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렇듯 종교적·윤리적 이유로 발생한 금기를 지속시켜 나가는 인식론적 근거에 대해서는 프레이저의 공감적 마술, 또는 공감률(共感律)이라는 용어로 설명했다. 착중사유(錯綜思惟)의 전형이라고 생각되는 이 공감률은 다시 두 가지로 갈라지는데, 하나는 유사마술 또는 유사률이며 또 하나는 접촉 마술 또는 접촉률이다. 전자는 상이한 두 물체간의 유사성을 동질성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까마귀



고기를 먹으면 기억력이 쇠미해져서 모든 생각을 까맣게 잊어 먹는다는 따위이고, 후자는 돌 잔칫날에 돌 된 어린아이가 돌상에 차려 놓은 물건 중에서 무엇을 집느냐에 따라 그 아이가 어떤 계통으로 성장할 것인가를 예견한다고 생각하는 따위를 가리킨다. 대개 유사율과 접촉률은 하나의 사실에 함께 작용하는 것이 보통인데 이런 사고방식은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면 갈수록 인간의 생활을 광범하게 지배하였을 것이라 했다. 또한 금기가 비합리적이면서도 미개한 사회에서 법률 이상의 강제적 구속력을 띠게 되는 까닭으로, 생활에 안정을 얻어 사회질서를 확립하려는 인간 욕구 및 금기를 통하여 사회질서를 세우려는 심리적 요소로 해석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금기를 발생시키는 가장 중요한 감정, 곧 공포에 대한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적 해석으로 요약했다.

「강박상태와 금기 간에는 ①금제적 행동에 뚜렷한 동기가 없고, ②정신적 안정을 위해서 유지되며 ③쉽게 치환될 수도 있고 금제된 대상으로부터 쉽게 감화될 수가 있으며 ④의식행사를 하는데 강제성이 있다는 점에서 상호간의 일치를 발견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기치 않은 상황에 대하여 애증병존(愛憎並存)의 갈등을 일으키고 그 속에서 이상하고 위협스런 힘을 의식한다. 또한 금기는 외부로부터 강하게 주입된 원시적 금기에 바탕을 두고, 대개는 인간이 가장 동경해 마지않는 대상을 향하고 있으므로 이것에 대항하고 범하겠다는 욕망이 무의식 속에 남게 된다. 그리하여 순종과 증오가 상극적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금기에 귀속된 주술적인 힘을 두려워하고 그 힘은 동일집단에 계속적으로 전염, 전파되고 만일에 금기를 범하면 내버림을 받는 것으로 보상된다. 그러므로 금기는 순종해야 한다. 이것이 금기의 본성이다.」<sup>31)</sup>

허재영(2001)은 금기어의 발생 요인을 크게 심리적 요인과 언어 및 사회적 요인으로 설명했다. 심리적 요인은 정서적 차원과 인지적 차원 두 가지로 나뉘는데, 정서적 차원에서 금기어가 발생하는 주된 요인을 살펴보면, 인간의 보편적인 심리와 관련을 맺는다. 이러한 심리는 흔히 정서로 표출되는데,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정서는 인지, 동기와 함께 마음을 이루는 3요소로 불린다. 금기어가 발생하는 첫 번째 정서적 요인은 공포(두려움)의 정서와 관련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곧 공포의 정서는 “갑자기 외부의 위협한 사태나 천재지변을 만났을 때, 그 대상으로부터 도피하거나 혹은 문제 해결 능력이 없다고 느낄 때 생기는 불쾌한

31) Freud, op. cit. pp28~35 passim (심재기, 「금기 및 금기담의 의미론적 고찰」, 『論文集』 Vol.2, 서울대학교 교양과정부, 1970, 6쪽에서 재인용)

심리 상태”로서 자신의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대상이 공포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천재지변, 무서움을 주는 동물, 아픈 자극을 주는 대상, 어머니와 떨어져 혼자 있는 것 등은 원시적이고 유아적인 상태에서 느끼는 공포의 대상이며, 성숙해감에 따라 사회관계에서 오는 질투, 경쟁 혹은 자기 스스로 상상해 낸 자극-죽음, 질병, 실패- 등이 공포를 경험하도록 하는 요인이 된다. 금기어 발생과 관련된 두 번째 정서적 요인으로는 ‘쾌-불쾌의 정서’와 관련된다고 설명했다. ‘쾌정서’는 일반적으로 행복, 쾌락, 기쁨, 희열과 같은 정서로 본능적이며, 자신이 추구하는 목표가 달성되었을 때의 부산물이다. 반면 이러한 만족을 느낄 수 없는 상태는 불쾌의 상태가 되는데, 혐오감을 주는 것(불결함)을 피하고자 하는 금기어가 생성된다고 했다.

인지적 차원에서 금기어의 발생 이유는 연상이나 유추 작용과 관련된 인지적 사고로 설명했다. 인지란 정보를 획득하고, 저장하고 활용하는 고등 정신 과정을 말하는데, 언어란 인간 인지의 통합적인 일부이므로 언어 구조에 대한 기술은 특별한 언어 모형을 설정하든 그렇지 않든 일반적인 인지적 처리 과정과 관련되어 있다고 했다. 언어인지의 바탕을 이루는 것은 지각과 범주화로, 범주화는 다양성 속에서 유사성을 찾는 능력이자 인간의 인지과정상 가장 중요한 책략의 하나다. 한 범주에 속하는 요소가 다른 범주와 관련을 맺는 과정에서 본질적으로 무관한 사항이 ‘사물의 속성, 또는 모양’이나 ‘언어적 요인’에 의해 연합관계를 이룰 수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연상 작용을 ‘유추’라고 부른다. 금기어의 경우도 실질적 관련성이 없음에도 연상에 따라 관련성이 부여됨으로서 생성된다. 곧 유추적 추론은 유사성의 원리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금기어에서는 가정적 조건절에서 관계성이 없는 두 범주가 연합관계를 이루는 셈이다.

## 2) 언어 및 사회적인 측면

허재영(2001)은 금기어의 발생 요인으로 두 번째, 언어 및 사회적 요인으로 설명했다. 개별 언어공동체마다 언어의 본질을 인식하는 양상이 달리 나타나는데, 이러한 언어 인식에 따라 개별공동체는 서로 다른 언어문화를 갖게 된다. 어떤 문화권에서는 구술 중심의 문화를 이루고, 다른 문화권에서는 문자 중심의 문화를 이루기도 한다. 금기어는 한 언어공동체의 언어에 대한 의식을 반영한다. 우



리 조상들은 말을 조심할 것을 특히 강조했는데, 그 까닭은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듯이, 언어로 표현된 것은 그것이 부정적일수록 현실로 나타날 것이라는 믿음<sup>32)</sup>이 강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표현은 전통적으로 행동을 조심하고 말을 삼가야 함을 가르친 도덕률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이름 자체는 자의적으로 형성되지만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그 이름 속에 정체성이 부여되므로 이름이 개인의 생활에 알게 모르게 작용된다는 의식을 반영한다. 예를 들어 여성의 이름이나 어린아이의 이름을 천하게 지어야 장수할 수 있다는 믿음이나 자녀를 부를 때 ‘돼지’와 같이 비속적으로 불러야 한다는 생각 등도 이를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금기어 가운데 상당수는 인간의 사회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고 밝혔다. 사회생활 및 규범과 관련한 금기어는 자연발생적 성격을 지니는 정서적 차원의 금기어나 인지적 차원의 금기어와는 달리 한 언어공동체 구성원들의 인생관이나 윤리를 반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문화적인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금기어라 설명했다. 이와 같은 금기어는 금기의 방법을 지시하여 개인의 건강을 지키고, 원만한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을 하도록 유도하는 기능을 하며 의미상 경계의 뜻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

32)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15324>, (2022.11.02.) 우리 선인들은 말에 영적인 힘이 있어서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고 믿었다. 언령관념(言靈觀念)이라고 하는데, 음성 내지 언어에 신비한 힘이 들어 있어서 ‘무엇이 어떻다.’하면 말 자체가 그대로 실현되어지는 영력(靈力)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다.

### Ⅲ. 제주 금기어 유형 분석

#### 1. 유형별 분류

자료 분석은 기존 연구의 금기어 분석 방법<sup>33)</sup>에 따라 내용 분석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총 3차례에 걸쳐 금기어를 유형별로 분류하였는데, 먼저 내용면에서 유사한 금기어를 집단화했다. 기존 18개 항목의 분류법을 택하지 않고, 금기어 속에 담긴 제주의 생활상과 문화적 특징을 집중적으로 살피기 위해 의·식·주, 통과 의례, 세시, 생업, 신앙, 자연, 인간관계, 성별, 사물, 신체 부위 총 10개의 유형으로 재분류하였다. 금기어 중 기본이 되는 금기어 외에 동일하거나 극히 유사한 금기어는 삭제했으며 당연한 사실의 서술, 꿈에 관한 것도 금기어로 판단하지 않고 연구 대상에서 제외했다.

<예시><sup>34)</sup>

- a1. 바농 빌레 온 사름안티 바농에 썰 꿰어주곡, 그 썰에 므작지와주민 그 므작 풀어지도록 썸나  
(바늘 빌리러 온 사람한테 실을 꿰어주고, 매듭지어주면 그 매듭 풀어질 때까지 싸운다)
- a2. 놉 바농질흔는디 썰므작 지와주민 그 므작 풀어지도록 그 사름광 싸움한다(삭제)  
(남 바느질하는 데 실매듭을 지어주면 그 매듭이 풀어질 때까지 그 사람과 싸움을 한다)
- b1. 마당 도투민 승험이 한다  
(마당 돌우면 흉험한 일이 많다)
- b2. 마당 도투는 택일 엇나(삭제)  
(마당을 돌우는 택일은 없다)
- c1. 담배 숲은 물을 먹으면 죽는다  
(담배 끓인 물을 먹으면 죽는다)
- c2. 책을 박대하민 글 못한다  
(책을 박대하면 글 못한다)
- d1. 꿈에 구름을 보민 뜻을 이루지 못한다

33) 최현섭, 「경기도 팔탄면의 금기어」, 『기전문화연구』 Vol.11, 仁川教育大學, 1983; 최래옥, 「민간 속신어의 해석방법」, 『한국민속학』 17, 한국민속학회, 1984; 박정열·최상진, 「금기어 분석을 통한 한국인의 심층심리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Vol.22, 한국심리학회, 2003.

(꿈에 구름을 보면 뜻을 이루지 못한다)

d2. 꿈에 개가 주인을 물어뜯면 집안에 파산이 온다

(꿈에 개가 주인을 물면 집안이 파산한다)

a1과 a2는 바늘의 뽀족하고 날카로운 속성과 매듭짓는 일이 일상생활에서의 불안과 불화를 상징한다는 속신에 대한 것으로 비슷한 금기어이고, b1과 b2 역시 마당을 함부로 돋우면 좋지 않다는 금기어로 내용이 거의 동일하다. 두 가지 금기어 모두 같거나 지극히 유사한 금기어로 보아, 기본 금기어 외에 중복되는 금기어는 삭제했다. c1은 담배에 독이 있어 몸에 좋지 않다는 내용이며, c2는 책을 멀리하면 공부와 멀어진다는 당연한 사실을 서술한 금기어로 너무나 평면적 서술이라 금기어에서 제외했다. d1와 d2는 꿈에 관한 금기어로 비현실적이며 사회·문화 현상 파악에 도움이 되지 않기에 금기어에서 제외했다.

반면 금기의 대상이나 행위, 방법이 직접적으로 제시되지 않더라도 금기적 성격을 띠거나 심리적 기휘(忌諱)가 드러나는 말, 사람의 행동이나 심리를 구속하고 제약하며 경계와 기피하는 효과가 있는 말은 모두 금기어로 판단했다.

<예시>

a. 쌀을 끼와줄 땐 옷봉으로 걷어두엉 끼와주어사 한다

(쌀을 끼어줄 때는 윗 곡식으로 걷어두고 끼어 주어야 한다)

b. 시숫물을 하영 농왕 시수흐민 저싱가민 그 물을 먼 먹으랭 한다

(세숫물을 많이 놓아서 세수하면 저승가면 그 물을 모두 먹으라고 한다)

c. 귀신을 위찬흐레 갈 땐 앞테레만 고추 브래명 가사 한다

(귀신을 위하여 대접하러 갈 때는 앞만 곧장 보면서 가야 한다)

d. 기일제스 땐 고사리 탕설 올려사 한다

(기일제사 때에는 반드시 고사리 탕쉬를 올려야 한다)

e. 자원당을 넘어갈 땐 인정 걸어사 한다

(자원당 걸을 지날 때는 그 당신에게 인정을 베풀어야 한다)

a~e와 같이 ‘~해야 한다’ 형태로 어떠한 행위를 강하게 요구하는 말은 금기어로 포함했다. 이는 대체로 ‘~하지 말라’형의 금기어와 대조적인 것처럼 보이나 그 내용을 검토해보면, 의도하는 바가 ‘~하지 말라’형의 금기어와 같음을 알 수 있다.

34) 금기어 예시는 원문 그대로 실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제주어 표기법이 다르거나 원문의 오타 등을 수정하지 않았으며, 내용 파악에 크게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추가 설명을 넣는 것으로 했다.

분석의 결과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었다. 첫 번째는 전체 금기어 중 유형별로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는 금기어를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하고, 예시를 통해 금기의 유형과 사례를 살폈다. 두 번째는 금기어를 문장의 구조에 따라 조건절과 주절(主節)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 금기를 지키지 않았을 때의 결과에 해당하는 주절부 분석을 통해 과거 제주인들이 경계하며 중요하게 강조했던 내용을 알아보았다. 먼저 주요 연구 자료인 전체 금기어 795개를 대상으로 재분류를 진행한 결과, 필자가 새롭게 정리한 금기어는 모두 617개였다.

<표 3> 제주 금기어 유형별 분류 결과

범주	유형	개수
일상생활(497)	통과의례	172
	의식주	167
	세시	42
	생업	33
	신체부위	27
	성별(남녀)	26
	사물	21
	인간관계	9
자연(77)	동물	63
	식물	7
	산,하천 등	7
신앙(43)	신앙	43
총		617(개)

제주 금기어의 유형별 분류 결과를 살펴보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유형은 ‘일상생활(497개)’과 관련된 금기어다. 세부적인 항목을 살펴보면 통과의례(172개), 의식주(167개), 세시(42개), 생업(33개) 등이 있다. 그 다음으로 높은 빈도를 차지한 것은 ‘자연(77개)’과 관련된 금기어인데, 동물(63개)<sup>35)</sup>과 관련된 금기어가 식물(7개), 산·하천(7개) 금기어보다 훨씬 많았다. 세 번째 유형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것은 무속 및 곳 등 신앙(43개)과 관련된 금기어였다.

35) 진성기의 동물(79개)과 필자가 분류한 동물(63개)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청개비 올민 비 온다’, ‘줄개비나 맹마구리가 집가지 아래 오민 비 하영 온다’ 등 단순히 전조어에 해당하는 것은 금기어에서 배제하였고, ‘배엿을 거실민 칠성 동티에 걸린다’, ‘배엿 거실지 말라’, ‘가마귀 올민 동니에 장스난다’, ‘가마귀가 낮이 곳이 올민 동니 사름이 죽나’ 등 비슷하거나 동일한 내용의 금기어는 삭제하여 총 16개를 삭감한 63개로 보았다.

<표 4> 제주 금기어 세부 항목별 빈도 분석

범주 및 유형	빈도(백분율)
<b>통과의례</b>	<b>172(27.9%)</b>
임신·출산·육아	90(14.6%)
결혼	21(3.4%)
죽음·장례	37(6.0%)
제사	24(3.9%)
<b>의식주(衣食住)</b>	<b>167(27.1%)</b>
의생활	29(4.7%)
식생활	83(13.5%)
주생활	55(8.9%)
<b>자연</b>	<b>77(12.5%)</b>
동물	63(10.3%)
식물	7(1.1%)
산·하천(물) 등	7(1.1%)
<b>신앙</b>	<b>43(7.0%)</b>
<b>세시</b>	<b>42(6.8%)</b>
<b>생업</b>	<b>33(5.3%)</b>
<b>신체부위</b>	<b>27(4.4%)</b>
<b>성별(남녀)</b>	<b>26(4.2%)</b>
<b>사물</b>	<b>21(3.4%)</b>
<b>인간관계</b>	<b>9(1.4%)</b>
<b>총 계</b>	<b>617(100%)</b>

제주 금기어 세부 항목별 빈도 분석을 살펴보면,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금기어는 통과의례는 물론 의식주, 신앙, 생업, 사물, 인간관계 등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넓고 다양하게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통과의례의 경우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한 금기어가 가장 많았으며, 의식주의 경우 식생활과 관련된 금기어가 가장 많았다. 자연, 신앙과 관련된 금기어 역시 인간의 삶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며 기본적인 생활을 안전하고 평안하게 유지해나가기 위한 현실적인 욕구와 문제가 반영되어 오랫동안 전승된 것으로 보인다. 물론 단순히 금기어 빈도의 많고 적음만을 가지고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는 단정을 내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와 관련된 ‘말’이 많다고 하는 것은 그와 관련된 현상의 중요성에 대한 반증이라고 추론해 볼 수 있다.<sup>36)</sup>

36) 박정열·최상진, 앞의 논문, 51쪽.

## 2. 내용과 사례

### 1) 일상생활

#### (1) 통과례

전체 금기어 중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금기어를 빈도순으로 살펴보면, 통과례에 대한 것이 가장 많았다. 그 중에서도 임신 및 출산 관련 금기어가 월등히 많았으며, 다음으로 죽음 및 장례, 제사, 결혼 관련 순이었다. 일생 의례라고도 불리는 통과례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과정으로 인간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차지한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임신, 출생, 백일, 돌, 혼인, 환갑, 장례 등 중요한 순간마다 그 당사자를 위해 행하는 의례로, 인간의 삶 전반에서 별 탈 없이 편안하기를 기원하는 마음과 행동들이 반영된 금기로 볼 수 있다.

#### ① 임신 및 출산

임신과 출산은 금기의 신성(神聖)과 부정(不淨)의 복합 관념이 작용하여 생명의 탄생과 죽음에 대한 금기의 중요성이 더욱 크게 부각된다.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기원한다는 점에서 가장 깨끗해야 하며 부정이 끼어들지 않게 하기 위해 금기해야 할 일들이 많았던 것이다. 사람의 일생에서 첫 번째 맞는 관문으로 출산을 앞둔 시기를 전후하여 태아를 위해 산모가 먹는 음식에서부터 마음가짐, 행동 하나 하나까지 삼가야 하는 일과 가족 및 이웃에게도 각별히 조심해야 할 것들을 전한다. 임신 및 출산에 대한 금기어는 크게 산전과 산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산전에는 임신 중 산모가 먹는 음식에 대한 것과 행동에 대한 금기어들이 많다.

<예시>

- 뉘으우 된 때 ㄱ르음식을 먹으면 애기의 술성이 거칠어진다  
(임신했을 때 가루음식을 먹으면 아기의 살성이 거칠어진다)
- 뉘으우 된 땀 독 잡앙 먹지 아니한다  
(임신했을 때는 땀을 잡아 먹지 말라)
- 뉘으우 된 때 툃개고기 먹으면 얼챙이 난다  
(임신했을 때 토끼고기를 먹으면 언청이를 낳는다)
- 뉘으우 된 땀 물 넘영 가민 해롭다

- (임신했을 때는 물을 건너가면 해롭다)
- 놈으우 된 땀 밤길 걷지 아니한다  
(임신했을 때는 밤길을 걷지 말라)
- 애기 뺨 때 나쁜 병에 걸린 사람이나, 중싱 잡는 걸 배래지 안 한다  
(임신 중에는 나쁜 병에 걸린 사람이나, 짐승 잡는 것을 쳐다보지 말라)
- 놈으우 된 사람은 시릴 들렁 땁기지 안한다  
(임신한 사람은 시루를 들고 다니지 말라)

임신했을 때 먹는 음식의 속성이나 동물의 어떤 특징이 고스란히 태아에게도 나타난다고 믿는 유감(類感)주술적인 사고방식이 흔하게 보인다. 임신 중 가루음식을 먹으면 그 아기도 가루음식과 비슷한 거칠거칠한 피부를 지니게 된다고 생각했으며, 젓이 없는 닭을 잡아먹으면 산후에 산모의 젓이 모자라거나 아기의 피부에 닭살이 돋는다고 믿었다. 임신부의 행동과 심성에 대한 금기에는 임신 중 바다를 건너거나 어두컴컴한 밤길을 걷는 등의 행동을 유의하도록 했으며, 무거운 시루를 들면 낙태가 되기 쉽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내용이 있다. 임신 중 병에 걸린 사람을 보거나 짐승을 잡는 잔인한 장면을 보는 것도 금했는데, 임신부가 사산을 하게 되거나 아이가 불길한 병의 증세를 타고나게 된다고 여겨 임신부는 그러한 장면을 피하도록 했다. 임신 관련 금기어는 단순히 속신적인 내용이라기보다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고 임신부의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유의하고 경계해야 하는 것으로, 예나 지금이나 임신 중 태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산후에는 새 생명이 아무런 질병이나 사고 없이 무사히 태어나 자라고 산모의 건강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출산은 늘 부정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불안과 불확실성을 경계했다. 따라서 출산 날을 비롯하여 출산 후 최소 삼칠일 동안 산모와 아이를 위해 집안에서 삼가야 할 행동에 대한 금기와 타인의 방문을 금하는 내용이 있다.

<예시>

- 애기 난 때 놈 시 불턱 알리지 말라  
(아기 낳은 때 남의 세 집에 알리지 말라)
- 애기 날 때 못질호민 늦다  
(아기 낳을 때 못질을 하면 나쁘다)
- 물애기 낳 사흘 전이 윈 사람이 들어오민 애기에게 해롭다

- (갓난아기 낳아 사흘 전에 그른 사람이 들어오면 아기에게 해롭다)
- 애기 낳 사흘 전인 동냥주지 아니한다  
(아기 낳아 사흘 안에는 동냥을 주지 아니한다)
- 애기 낳 사흘 전이 술강알에 붙셀 파내면 안 된다  
(아기 낳아 사흘 전에 술 밑의 재를 파내면 안 된다)
- 애기 낳 일퇴 전이 스답에 풀 훑민 풀 스지 아니한다  
(아기 낳아 이레 전에 빨래에 풀을 하면 풀이 서지 않는다)
- 애기 낳 일퇴 전이 영장칩이 가민 해롭다  
(아기 낳아 이레 전에 상가에 가면 해롭다)

과거에는 전문적인 산파가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출산하는 과정이 더 어렵고 조심스러웠다. 따라서 일상의 부정이나 오염으로부터 새 생명과 산모를 보호하는 것이 금기의 목적이었다. 출산하는 날에도 아이 낳는 것을 세 집 이상 알리지 말아야 했다. 괜히 여러 집에 알리게 되면 많은 사람이 모여 들어 별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출산이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가족들도 못질을 하는 등 집안의 여러 일은 잠시 멈추고 정숙한 분위기에서 출산을 위해 정성을 다하도록 했다. 그것은 산후에 금줄을 쳐 외부인의 출입을 막고 갓난아이의 건강과 산고를 치룬 산모의 회복을 위한 것으로 연결된다. 갓 태어난 아이는 면역력이 약하고 산모 또한 출산으로 인해 몸의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외부인의 출입은 물론 상가 방문 등 모든 출입에 대해 삼가도록 했다. 집안의 물건이나 곡식을 바깥으로 내보내거나 동냥을 주는 일도 금했는데, 혹여 새로 태어난 아이의 복이 없어질까 조심했던 것이다. 또 산모가 몸조리에 더욱 힘쓰고 마음 편히 쉬 수 있도록 부엌일이나 빨래 등 집안일을 하지 않도록 하는 금기어도 있다. 출산 후 산모는 집안일을 하거나 찬바람을 쐬어서는 안 되는데,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현실 때문에 출산 후 몸이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음에 따라 이를 경계하는 것으로 보인다.

## ② 죽음 및 장례

죽음은 자연의 흐름에 따라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듯 인간의 힘으로 초월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죽음은 인간이 가장 큰 공포를 느끼며 두려워하고 신성하게 생각한다. 죽음과 장례는 사람이 태어나서 살다가 일생의 마지막에 해



당하는 의례로, 임신·출산과 마찬가지로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신성함과 부정함의 두 가지 관념으로 형성되어 전해진 금기로 볼 수 있다.

<예시>

- 죽은 사람 묶으는 뱀 짓배론 안 묶는다  
(시신을 묶는 뱀은 짓배로 묶지 않는다)
- 동네나 부미 초상난 땀 성복하기 전인 머리 빗지 아니한다  
(동네 또는 부모 초상났을 때는 성복하기 전에는 머리 빗지 아니한다)
- 삼이웃데(동네) 영장난 때 바농질을 하나 머릴 곱으나 스답을 하나 흐민 그 죽은 사람이 저싱장 소도리 흐여불민 그 사름도 재게 죽게 된다  
(동네에 초상난 때 바농질을 하든지, 머리를 감든지, 빨래를 하든지 하면 그 죽은 사람이 저승가서 고자질해 버려 그 사람도 빨리 죽게 된다)
- 혼 동네에 곱은 날에 영장이 나곡 잔치가 시민 그 새시방이 나가기 전인 초혼을 못 불른다  
(한 동네에 곱은 날에 초상과 결혼이 있으면 그 신랑이 나가기 전에 초혼을 못 부른다)
- 동관흐영 나갈 때 관이 문지방에 다대기민 즈손이 안 된다  
(동관을 하고 나갈 때 관이 문지방에 다치면 자손이 안 된다)
- 영장 매영 갈 때 선묘 앞에서 해매흐지 아니흐민 즈손 안 된다  
(상여를 매고 갈 때 선묘 있어, 그 앞에서 하마하지 아니하면 자손이 안 된다)
- 장발디 밥흐레 간 솟이 영장 비추민 벌려진다  
(장지에 가져 간 술에 시신이 비추게 되면 그 술은 깨진다)

사람이 죽으면 시신을 수의로 단장시켜 입관한 뒤 장지로 향하는 과정에서 엄숙히 지켜야 할 일들이 있다. 따라서 죽음 관련 금기어보다 장례에 관한 금기어가 많다. 이는 시체, 영혼에 대한 두려움과 신성함으로 그것을 잘 모시고 보내야 그 정성으로 자식들에게 동티가 생기지 않는다고 믿는 것에서 비롯됐다. 사람이 죽으면 시신을 씻긴 뒤 수의로 갈아입히고 염포로 묶는 일인 염습<sup>37)</sup>이란 절차가 있는데, 이 과정에서 시신을 묶을 때 ‘짓배’로 묶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있다. ‘짓배’란 베틀에서 짠 그대로 세탁, 다듬이질 따위를 하지 않은 상태의 무명이나 삼베를 가리키는데, 사람이 죽은 다음에 시신을 묶는 천은 반드시 빨아서 방망이질을 하여 풀이 선 것을 써야 한다는 것이다. 장례를 위해 미리 삼베나 무명을 잘 다듬어 준비해둬야지 경황이 없어 다급하게 준비해서는 안 됨을 경계하는 말이

37) 한국민속대백과사전(한국일생의례사전) <https://folkency.nfm.go.kr/kr/topic/detail/310>, (2022.11.02)

다. 결국 시신과 영혼에 대한 예의를 지키고 그에 알맞은 장례 준비를 정성껏 잘 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초상이 났을 때의 금기어를 살펴보면, 성복(成服) 전에 여유롭게 머리를 단장해서는 안 되며 동네에 초상이 났을 때도 바느질을 하거나 머리 감기, 빨래를 하는 등의 행동을 경계했다. 이웃의 큰일에 무심하거나 외면하는 행동은 저승에 가는 죽음까지도 맞이할 수 있는 금기된 일이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 동네에 초상과 결혼이 동시에 진행 될 경우, 신랑이 집 밖에 나가기 전에 초혼을 부르면 안 된다는 말이 있는데, 이는 초상이 난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시작을 앞둔 신혼부부에게 먼저 양보해야하며 죽음과 삶이 맞서지 않고 대등하지 않다는 현실 중시 의식이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제사

제사 관련 금기어는 제사 음식을 장만하는 일과 제삿날 제주(祭主) 및 자손들의 행동에 있어 삼가고 조심해야할 내용이 있다. 제사 금기어도 장례 금기어와 마찬가지로 조상을 잘 대접하고 모시는 일이 매우 중요하며 그것이 곧 자손들의 앞날에 큰 영향을 준다고 믿었다.

<예시>

- 비린 사람은 제 보지 말라  
(꺼린 사람은 조상님의 기일제사 때 절을 하지 말라)
- 식궂날 싸우민 조상이 식게 먹으레 아니온다  
(기일제사날 집안에서 싸우는 일이 있게 되면 그 날 조상님이 오지 않는다)
- 식궂날 피 내우민 조상의 영혼이 오지 아니혼다  
(제삿날 피를 내면 조상신이 오지 않는다)
- 식게 멩질날 바농질 안혼다  
(제사 멩절날 바느질 안한다)
- 식궂날 머리 빗이민 간이 망혼다  
(제삿날 머리 빗으면 집안 망한다)
- 식궂날 스답줄을 매민 조상이 오당 돌아가분다  
(제삿날 빨래줄을 매면 조상신이 오다가 돌아가버린다)
- 기일제스 때 조왕 앞이서 바룻피기 구민 거얼어진다  
(기일제사 때 술 엮은 아궁이불에서 바닷고기를 구우면 탄다)

- 기일제스 땀 고사리 탕썰 올려사 혼다  
(기일제사 때 고사리 나물 올려야 한다)
- 산이서 꺾은 고사리 식개 맹질에 안씬다  
(무덤에서 꺾은 고사리는 제사 명절 때 차례상에 안 올린다)
- 칠리터 곡속은 식개 맹질에 아니 씬다  
(이묘를 해버린 자리에서 난 곡식은 제사, 명절에 아니 쓴다)

제사는 조상에 대한 가장 경건한 의식행위로, 며칠 간 정성으로 준비한다. 제주(祭主)는 사흘 전부터 상가(喪家) 방문을 피하고 싸움, 피 흘림, 성생활, 싸움 등 부정애 노출되지 않도록 몸가짐을 조심해야 했다.<sup>38)</sup> 비린 사람은 제사 때 절도 하지 말아야 했는데, ‘비리다(꺼리다)’는 것은 부정 탄다는 말로 정결치 못함을 뜻한다. 초상집에 드나들었거나 피를 보았거나 짐승 죽는 것을 보았거나 개고기, 말고기를 먹었을 때 비리는 것으로 속신된다. 이렇게 몸과 마음이 정결치 않은 상태에서 조상께 인사를 드리는 것을 큰 무례로 보았고, 조상신이 부정하다 하여 제를 보러 오지도 않을뿐더러 자손들의 앞날도 밝지 않다고 여겼다.

제삿날 바느질을 하거나 머리를 빗는 등 사사로운 일들도 멀리했다. 정성껏 제물을 차려야 할 사람이 머리를 빗게 되면 머리털이 빠지고 그것이 제물에도 섞일 수 있어 불결한 일로 본 것이다. 특히 제수(祭需)를 준비하는데 유념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 생선을 구울 때는 화로에 숯불을 피워 정성껏 구워야 했으며, 다른 나물들은 못 올리더라도 고사리만큼은 꼭 차려 조상님께 올려야 했다.

고사리와 관련한 제사 금기어는 육지부에서는 볼 수 없는 제주만의 특징적인 금기어로 보인다. 육지부의 금기어<sup>39)</sup>를 보면, ‘제사상에는 고춧가루 음식을 놓으면 못쓴다’, ‘제사상에는 복숭아 같은 털 있는 과일을 놓지 않는다’, ‘제사 지낼 때 상에는 고추, 마늘, 치(갈치, 쏜치, 넙치, 쥐치로 끝나는 고기)를 쓰지 않는다’, ‘제삿날 제사상에 호박나물을 놓으면 우환이 많이 생긴다’ 등의 금기어는 있지만 고사리와 관련된 금기어는 없다. 제주에서는 봄이 되면 집집마다 제사상에 올릴

38) 오영주, 『제주음식생활문화사』, 제주도·제주한라대학교, 2017, 106쪽.

39) 육지부의 금기어 자료는 ‘한국금기어고(韓國禁忌語考) 上·下’(김성배, 『국어국문학』 25·26, 국어국문학회, 1962·1963.)와 ‘한국 민간 속신어 사전’(최래옥, 집문당, 1995)을 검토했다. 김성배의 한국금기어고는 15년에 걸쳐 조사·수집한 인간 관계, 인조물 관계, 동물 관계, 식물 관계 등 총 11개 항목으로 가장 폭넓은 분야의 금기어를 담고 있으며, 최래옥의 민간속신어사전은 금기 및 흉조어 등 전국적으로 전해지는 약 1만 5천개의 속신어를 실고 있어 한국의 금기어를 살피는데 적절한 자료라 판단했다.

고사리를 미리 꺾어 준비해 잘 보관해두는 것이 오랜 풍습<sup>40)</sup>이다. 질 좋은 고사리를 정성껏 부지런히 마련하는 것은 곧 조상님을 잘 모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남다른 것이다. 제주의 고사리는 한라산 넓은 산야에서 자라 꺾고 또 꺾어도 그 자리에서 아홉 차례나 돌아난다는 강인한 식물이다. 이러한 고사리를 조상님 기일제사에 올리게 되면 것처럼 자손이 번성<sup>41)</sup>하게 된다고 믿었다. 이와 같이 제사 관련 금기를 잘 지키는 것은 곧 조상의 영혼, 조상신에게 경건한 마음을 표하는 일이었다.

#### ④ 결혼

결혼은 성인이 된 두 남녀가 가족으로부터 분리되어, 하나의 가정을 이루며 사회적으로 결합을 인정받는 의식이다. 성스러운 결혼을 위해서는 혼인을 하는 날부터 중요했는데, 오뉴월에 혼사를 하면 나쁘다는 금기어가 있다. 이는 계절과 관련된 금기로, 시기적으로 음력 5~6월은 더위가 한창이라 ‘앉은 자리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말처럼 큰일을 치르기에 적절치 않았다. 따라서 잔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음식이 상하는 등 여러모로 좋지 않고 농사일로 바쁜 때이니 5~6월에 결혼을 하는 것은 되도록 금기시했다. 또 소날에 결혼을 하면 살림이 분산되는 등 반드시 어떠한 흉사가 뒤따르게 된다고 믿어 이를 경계했다. 결혼 당일 신랑과 신부, 주변인들의 행동에 있어서도 조심해야 하는 금기가 있다.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는 날 처음 내딛는 발을 오른쪽으로 내딛어야 그 살림이 오래 간다 여겼으며 신부가 처음으로 상을 받을 때도 가장 먼저 천정을 바라보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했다. 결혼식 날 새롭게 시작하는 신랑 앞을 가로 건너 지나다니는 일은 예의 없는 일이라 하여 조심했으며, 신부가 신랑 집에 들어올 때도 시어머니가 이를 보면 사이가 좋지 않다고 믿었다. 이는 고부관계에 있어서의 조심스러움과 어려움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40) 제주 세시풍속 중 하나로 고사리 꺾기가 있다. 3월 장마비가 온 뒤, 한라산 중턱 여기저기에 고사리가 한창인데, 고사리는 제사용으로 쓰여 집집마다 제사 때 쓸 고사리를 캐러 산으로 간다. 고사리는 처음 3월 초에 캐기 시작하여 막물까지 캐려면, 거의 20여 일은 된다. 보름 가까이까지 나다가 3월 25일 되어 가면 이른 고사리든 늦은 고사리든 잘 나기 때문에 거의 한 달 동안 꺾을 수 있다고 한다. (문무병, 「세시풍속」, 『제주의 전통문화』, 제주도교육청, 1996, 443쪽)

41) 진성기, 『제주도민속-세시풍속』, 제주민속연구소, 1997, 134쪽.

<예시>

- 오뉴월에 혼스흔민 나쁘다  
(오뉴월에 혼사하면 나쁘다)
- 쇠날에는 관을 쓰지 아니한다  
(소날에는 관을 쓰지 않는다)
- 잔칫날 브름 불민 살림에 풍파가 생긴다  
(잔칫날 바람 불면 살림에 좋지 않다)
- 새각시나 새시방이 체암 나갈 때 느단 발을 먼저 내여 놓아사 그 살림이 길이 간다  
(신부나 신랑이 처음 나갈 때 오른발을 먼저 내딛어야 그 살림이 길이 간다)
- 새각시가 씨집강 상받기 전이 옷트레 눈트민 늦다  
(신부가 시집가서 상받기 전에 위로 눈 뜨면 나쁘다)
- 새각씨 들어올 때 씨어멍 봐불민 그 씨어멍광 새각시 새에 순 벗어진다  
(신부가 들어올 때 시어머니가 보면 그 시어머니와 신부 사이에 정 떨어진다)
- 잔칫날 새시방이 새각시칩 올래에 오랑 느리 건 질카르지 말라  
(결혼하는 날 신랑이 신부집 올래에 와서 내릴 때 앞을 가로질러 지나다니지 말라)
- 잔치홀 때 새각시나 새시방 옷에 흘웃광 소개 옷은 입지곡 즈웃은 안 입진다  
(결혼할 때 신부나 신랑옷에 흘웃과 솜웃은 입히고 겹웃은 아니 입힌다)

## (2) 의식주(衣食住)

전체 금기어 중 인간생활과 관련된 금기어로 통과의례 다음으로 의식주에 대한 금기어가 많았다. 그 중에서도 식생활에 관한 것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주생활, 의생활 순이었다. 인간의 기본적인 삶과 생존에 있어 가장 절박하고 중요한 것이 바로 먹고 사는 문제일 것이다. 그러한 현실적인 문제들을 조금 더 현명하게 대처해나가고 안전하게 지속해가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금기어가 많이 형성되고 전승된 것으로 보인다.

### ① 식생활

식생활 관련 금기어는 인간의 생활에서 생명을 유지하고 신체 활동에 필요한 영양분을 섭취하기 위해 먹는 일에서부터 음식과 관련한 다양한 생활상이 담겨 있다. 식생활과 관련된 금기어를 몇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식재료에 관한 것, 도구에 관한 것, 식사 예절에 관한 것 등이 있다.

<예시>

- 외밭디서 송까락질호민 외가 다 떨어진다  
(오이 밭에서 오이를 가리키며 손가락질하면 오이가 다 떨어진다)
- 놈의 호박을 술찌기 타당 먹으면 죽을 땀 배가 부성 죽는다  
(남의 호박을 몰래 따다가 먹으면 죽을 때 배가 부어 죽는다)
- 누렁이를 질레레 브리민 죄 짓나  
(누렁지를 길에 버리면 죄를 받는다)
- 강이 등창에 생청 피왕 먹으면 죽나  
(계 등덜미에 꿀을 넣어 끓여 먹으면 죽는다)
- 꿀 굴아난 ㄱ래에 콩 굴민 둠비 못훈다  
(엿기름 갈았던 멧돌에 콩을 갈면 두부를 못 만든다)
- 술 걸 땀 날 보왕 솥을 걸어서 훈다  
(술을 걸 때는 좋은 날짜를 보아서 걸어야 가환이 없게 된다)
- ㄱ래 우티 앓지 안훈다  
(멧돌 위에 앓지 않는다)
- 되광 말광 푸는첸 옹으지 아니훈다  
(되와 말과 키는 옹어 놓지 않는다)
- 밥사발을 독ㄱ립에 받투왕 먹으면 빈복훈다  
(밥사발을 무릎 위에 받쳐 놓고 밥을 먹으면 복 달아난다)
- 밥 먹당 쳇 숙가락에 밥방울이 떨어지민 머정었다  
(밥 먹다가 쳇 손가락에서 밥알이 떨어지면 재수없다)

음식을 준비할 때 무엇보다 귀하고 중요한 것이 식재료다. 힘들게 노동을 하여 일구어 낸 결실이 얼마나 소중한지 금기어에도 나타나있다. 함부로 열매에 손가락질을 하는 것을 금했을 뿐 아니라 누렁지라 하더라도 버리면 죄를 받는다고 생각했다. 남의 재산이자 귀한 식량인 호박도 몰래 따다 먹으면 죽을 때 배가 부어서 죽는다고 여겼다. 음식의 궁합도 조심해야 하는 일이었다. 계와 꿀 또는 감을 함께 먹지 말아야 하고, 엿기름을 갈았던 멧돌에 콩을 갈면 엿기름의 소화 효소가 음식을 분해하는 작용을 하여 두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기도 했다.

조리 도구 사용에 대한 금기어도 있는데, 술을 걸 때는 좋은 날짜를 봐야 한다는 것이 있다. 택일을 하지 않고 무턱대고 아무 때나 술을 엷혀 놓으면 가환(家患)이 생긴다고 여겼다. 이는 집안 살림에 있어 중심이 되는 부엌 가운데서도 부뚜막을 살피는 것으로 가장 신성한 일이었고, 부엌을 관장하는 조왕신을 두려워

하는 마음을 담고 있다. 멧돌 위에 앉지 말라는 것 또한 신성한 곡식이나 음식에 대한 모독이며 위생적으로도 좋지 않기에 금했으며, 되와 말, 키와 같은 집안의 작은 기물도 소중히 다루어야 함을 전하고 있다. 이 외에도 밥을 먹을 때의 예절에 관한 금기어도 있다. 밥사발은 상 위에 두고 먹어야 하는데 이를 무릎 위에 두고 먹다가 쏟아지기 쉬움을 경계했고, 식사 할 때 다른 행동을 삼가며 식사에 집중해야 한다는 식사 예절에 대한 내용이 있다.

## ② 주생활

주생활은 사람들이 일상을 보내며 쉬고 잠을 자는 등 주거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생활을 말한다. 주거생활과 관련한 금기어는 주로 집안의 가신(家神) 및 신구간과 관련하여 집을 수리하거나 새로 짓는 일, 이사 등에 대한 것과 생활도구에 대한 것, 집안 생활에 대한 것을 볼 수 있다.

<예시>

- 칠석날에 통시 손보민 늦다  
(칠석날에 변소 손 보면 나쁘다)
- 올래를 아무딜로나 내민 늦다  
(집의 입구를 아무데로 내면 나쁘다)
- 아무날이나 정을 손보민 동티난다  
(아무 때나 정을 고치면 동티난다)
- 이스끝 상스곳이 몹지 안흐민 해롭다  
(이사 끝 상사 끝이 맑지 않으면 해롭다)
- 막은 방으로 이스 안한다  
(막은 방위로 이사 안한다)
- 돛통담으로 집을 짓이민 사름이 죽은다  
(왜지우리 돌담으로 집을 지으면 사람이 죽는다)
- 집 짓엉 곧 초상집에 가지 안 한다  
(집 짓고 곧 초상난 집에 가지 않는다)
- 방 빗츄록은 안 세운다  
(방을 쓰는 빗자루는 세우지 않는다)
- 방 안에서 우산을 패우지 아니한다  
(방 안에서는 우산을 펴지 않는다)

주거 공간은 외부 환경으로부터 가족을 보호하는 일이 우선이다. 집을 새로 짓거나 수리하거나 이사 하는 등 주거 공간을 안전하게 정비하고 유지하는 일이 중요한 만큼 신앙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집안 곳곳에 가신이 있기에 공간마다 신성함을 지켜야했고, 집을 함부로 수리하는 일도 꺼리게 되었다. 이는 문전본풀이<sup>42)</sup>와 관련하여 집안 곳곳에 좌정되어 있는 신의 영역이 다르므로, 변소나 대문 등 집수리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되며 택일을 해서 손보고 그 방위까지도 잘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제주에서는 신구간(新舊間)<sup>43)</sup>에 집을 수리하거나 이사하는 독특한 풍습이 있는데, 다른 날에 그러한 일들을 하면 동티가 나서 집에 큰 가환이 닥치고 액운을 면치 못하게 된다고 믿었다. 이 외에 빗자루나 우산 등 살림 도구를 그에 알맞은 용도로 잘 써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 ③ 의생활

의생활은 옷과 옷에 관한 생활을 말한다. 옷을 입거나 마련하는 것과 관련된 금기어들을 볼 수 있는데, 주로 바느질이나 다리미질, 빨래 등 옷을 만들거나 다루는 과정에서 조심히 하거나 꺼리는 행동들을 담고 있다.

<예시>

- 이불 거죽으로 옷흐영 입으면 머정었나  
(이불을 만들었던 천으로 옷을 만들어 입으면 재수 없다)
- 소개옷을 맨들 때 옷소꿉에 머리털이나 티가 들어가면 근심이 생긴다  
(솜옷을 만들 때 옷 속에 머리털이나 티끝이 들어가면 근심이 생긴다)
- 입은 옷에 바농질흐민 잇음 잘흐나  
(옷을 입은 채로 어느 곳을 바늘로 꿰매던가 기우면 그 옷을 입은 이는 잇기를 자주 한다)

42) 문전본풀이는 남선비와 여산부인 사이에 일곱 아들이 있었는데, 남선비와 여산부인이 첩인 노일저대귀일의 딸에 의해 위기에 처하자 막내 녹디생이에 의해 위기를 극복하는 이야기다. 가족을 구한 녹디생이는 집안의 가장 중심인 ‘상방’(마루방)의 신인 문전신이 되고, 어머니는 부엌의 신(조왕신), 아버지는 대문과 올레를 관장하는 신(정당신, 올레신), 노일저대귀일의 딸은 화장실의 신(축간신)이 된다. (허남춘, 「<문전본풀이>에서 집과 인간과 자연의 관계」, 『한국무속학』 제42집, 한국무속학회, 2021.)

43) 신구간은 대한(大寒) 후 5일에서 입춘(立春) 전 3일간으로 잡고 보통 일주일이 된다. 옥황상제의 명을 받아 지상의 일을 관장하던 신들이 하늘로 올라가고 새로 임명받은 신들이 내려오므로, 이른바 지상의 모든 신격(神格)이 천상에 올라가 새로운 임무를 부여받아 내려오기까지의 공백 기간이다. 이 기간에는 이사를 비롯하여 부엌·문·변소, 외양간 고치기, 집 중창·울타리 안에서의 흙파는 일, 울타리 돌담고침, 나무베기, 묘소 수축 등 평소 꺼려했던 일들을 손보아도 아무런 탈이 없어 무난하다고 한다. (윤용택, 「제주도 ‘신구간’ 풍속에 대한 기후 환경적 이해」, 『탐라문화』 제29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5.)



- 바늘 빌레 온 사람한테 바늘에 실 꿰어주곡, 그 실에 막작지 와주민 그 막작 풀어지도록 씌나  
(바늘 빌리러 온 사람한테 실을 꿰어주고, 매듭지어주면 그 매듭 풀어질 때까지 싸운다)
- 다루에질을 곱게 아니하민 높이 노다시린다  
(다리미질을 곱게 하지 않으면 남의 입에 오르내리게 된다)
- 옷을 다릴 때 골롬부떠 다리민 가난하다  
(옷을 다리미질 할 때 옷고름부터 다리미질 하면 가난하다)
- 해진 후제 스담 막개질하민 동네 청년이 해롭다  
(해진 후에 빨래 방망이질 하면 동네 청년이 해롭다)
- 밤이 스담 널민 그 사람이 죽영 내생에서 환싱하영 낭민 도둑질하게 된다  
(밤에 빨래를 널면 그 사람이 죽었다가 내생에서 다시 환생하면 도둑질을 하게 된다)

옷은 외부 환경의 오염 물질로부터 사람의 몸을 보호하고 추위와 더위를 막아 체온을 유지해 주는 것이 첫 번째 역할이다. 그래서 계절이나 상황에 맞는 옷을 입고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했다. 옷을 만들 때는 아무 천으로나 만들어 입지 말아야 했다. 이불을 만들었던 천으로 옷을 만들면 재수가 없다는 말이 있는데, 이는 사람의 발길이 닿았던 천으로 옷을 만드는 것이 비위생적인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또 옷을 관리하고 다루는데 있어서도 유의할 점이 있다. 옷을 입은 채로 바느질<sup>44)</sup>을 하지 말라는 말은 혹여나 바늘에 찔릴 위험을 경계하고 기워야할 곳을 미리 챙겨야 함을 알려준다.

옷은 몸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멋을 내고 표현하는 수단임에 따라 그 사람의 인품이나 성격, 습관을 드러내며 어떠한 인상을 결정하기도 한다. 다리미질을 할 때 옷고름부터 순서대로 하여 곱게 잘 마무리하는 것은 단정한 복장을 위해 마지막 옷 손질까지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 남에 대한 배려가 담긴 금기어도 있다. 해가 지고 나서 방망이질이나 빨래를 널지 말라는 금기어가 있다. 이는 빨래한 옷이 이슬을 맞으면 위생적으로도 좋지 못하는 일이며 밤에 시끄러운 방망이 소리를 내는 것 또한 이웃을 배려하지 못한 일이라 여겼다.

44) 바느질할 때는 매듭을 맺거나, 상침질, 뒷바느질은 절대로 삼갔다. 옷에 매듭을 맺는 일은 “세상에서 품은 환을 안고 가는 것과 같은 이치이므로 이 세상에서 영킨일은 풀고 가야 한다”고 믿었으며, 뒷바느질을 하면 “망인이 저승에 가서도 이승을 돌아보느라고 저승에 안착을 못한다”고 생각했다. (고부자, 『의생활편』, 『제주의 민속』 IV, 제주도, 1996, 49쪽)

### (3) 세시

세시(歲時) 관련 금기어는 한 해의 절기나 달, 계절에 따른 일 또는 명절이나 그밖에 다른 연중행사에 있어서 조심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 년 중 정월(正月)에 대한 금기어가 많은데, 음력으로 한 해의 첫째 달로 근신하고 조심하는 달이기 때문이다. 정월은 ‘시작’, ‘출발’의 중요한 시기인 만큼 모든 일에 있어 꺼리거나 삼가는 것이 많았다. 정월 초하룻날부터 어떠한 일을 하게 되면 그 해 내내 그 일만 하게 된다는 속신에 따라, 정초에는 농사일뿐만 아니라 남과 다투거나 빨래를 하는 등 사소한 집안일까지 조심성 있는 행동과 태도를 강조했다.

<예시>

- 정월달에 불난 집은 그 해에 시번 불이 난다  
(정월에 화재가 난 집은 그 해에 세 번 화재가 발생한다)
- 정월 초하룻날부터 보름날까진 그래 방애 아니혼다  
(정월 초하룻날부터 보름날까지는 멧돌 방아질 하지 않는다)
- 정월 초하룻날 물허벅 지면 등 오그라진다  
(정월 초하룻날 물허벅을 지면 등이 구부러진다)
- 정월 대보름날 방쉬하여 분거 체암 본 사름은 액 맡는다  
(정월 보름날 방쉬하여 버린 것을 처음 본 사람은 그 액운을 받는다)
- 영등에 곡숙밭디 김질 매면 굶뎡이 꾀다  
(영등에 곡식밭에 김을 매면 굶뎡이가 꾀다)
- 영등에 스답혀영 널지 아니혼다  
(영등에 빨래해서 널지 않는다)
- 새 철 드는 날은 독독 소리 안 내운다  
(입춘 드는 날은 툫툫 소리 안 낸다)
- 셋철 드는 날 돈을 놔 꾸워주면 그 해 내냥 머정엇나  
(입춘 드는 날 돈을 남에게 꾸워주면 그 해 내내 재수가 없다)

정월은 새해 첫 달인 만큼 일 년 중 나쁜 기운을 막기 위한 노력도 중요했다. 정초에 부정한 일이 없어야 그 해를 무사히 잘 넘길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새해에 신수가 나쁘다고 하면 정월 대보름날 새벽에 방쉬를 했다. 방쉬란 방사(放邪)로, 액이나 부정을 막는 것을 뜻한다.<sup>45)</sup> 따라서 정월 대보름날 방쉬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해 아침 일찍 나서지 말라는 금기가 있다.

45) 현용준·문무병, 「세시풍속편」, 『제주의 민속』 I, 제주도, 1993, 86쪽.

영등신이 오는 영등달에도 밭일을 하거나 집안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믿었다. 영등달에는 영등신을 맞이하기 위한 제를 준비하며 함께 놀고 한 해의 풍년과 풍어를 기원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했는데, 이 과정을 잘하면 신이 인간에게 풍요를 준다고 믿었다. 따라서 음력 2월인 영등달은 겨울에서 봄으로 가는 시기인 만큼 금채기로 정하여 모든 일을 쉬도록 했다. 이는 자연과 인간 모두 쉬를 통해 자연의 순환과 회복의 정신을 되새기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 (4) 생업

생업(生業)은 생계를 영위해 나가기 위해 하는 일을 말한다. 생업 금기어는 주로 농업과 관련된 금기어가 많으며 어업, 상업에 관한 것도 더러 있다. 농업의 경우, 풍요로운 결실을 위해 밭에서 일할 때 조심해야 할 행동과 귀한 식량인 곡식을 소중히 여겨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예시>

- 새해 낱 췌 씨 뽕 땀 막은 방데렌 빼여가지 아니한다  
(새해 들어서 처음 씨를 뿌릴 때는 막은 방위로는 뿌려가지 아니한다)
- 새해 낱 췌 씨 빼는 고숙밭디 ㄱ로질렁 넘어가민 그 용시에 ㄱ로 지미진다  
(새해 들어서 첫 씨를 뿌리는 곡식밭에 가로 질러 지나가면 그 농사에 말라 죽는병 걸린다)
- 감씨씨 물을 땀 영장밭디 강 온 사름이나 비린 예즈가 그 췌 물으민 췌는다  
(고구마 씨를 물을 때는 장지에 갔다 온 사람이나 몸이 꺼린 여자가 그 씨를 물으면 씨가 췌는다)
- 곡숙밭디 종즈를 스꼬와불민 황천의 죄를 받는다  
(곡식밭에 종자를 슈아버리면 황천의 죄를 받는다)
- 산뒤왓뒤 똥 아니 췌다  
(벼밭에 똥 아니 췌다)
- 콩밭디 똥을 싸민 배락 마진다  
(콩밭에서 똥을 싸면 벼락 맞는다)
- 놈의 밭디 용시를 임제보단 먼저 햅여당 먹으민 죄가 크다  
(남의 밭의 농산물을 그 임자보다 먼저 맛보는 것은 죄가 크다)
- 성제광 예비아들은 한 배에 타지 말라  
(형제와 아비, 아들은 한 배에 타지 말라)
- 바당에 구물 놓왕 그 구물에 거북이 올라오민 삼년 머정엇나  
(바다에 그물을 놓아 그물에 거북이 올라오면 삼년 재수없다)
- 장시햅는 사름 솟 불르민 머정엇나  
(장사하는 사람 솟 밟으면 재수 없다)

농사를 짓기 위한 첫 시작으로 농작물의 씨를 뿌리거나 종자를 심는 일에서부터 주의를 기울였다. 막힌 방위로 씨를 뿌리거나 사람이 맘대로 그 밭을 가로 지나가는 것은 부정을 타는 일로 농작물이 말라죽거나 썩는다고 믿었다. 반면 농작물의 종자가 너무 많다고 해서 숨어버리는 일도 경계했는데, 이는 생명을 빼앗아 버리는 일과 같아 저승에 가면 벌을 받는다고 여겼다. 이렇듯 어렵게 수확한 농작물은 매우 귀하기에 조상신을 위한 쌀이나 1년 반찬이 될 수 있는 콩밭에 똥을 싸는 일 또한 그 죄가 매우 깊었으며, 남의 밭의 농산물을 고생한 주인보다 먼저 먹는 것도 예의가 아니라며 금했다.

어업 관련 금기어는 주로 출어 시 안전에 관한 것이다. 바다일이 워낙 예측하기 힘들고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해상 사고를 당하게 됐을 때 그 집안의 대가 끊길 우려가 있어 형제나 부자간에는 한 배를 타는 일은 피하도록 했다. 거북이에 관한 금기는 바다거북에 대한 제주인들의 인식을 살펴 볼 수 있다. 제주에서는 바다거북을 ‘요왕사자’ 또는 ‘요왕할망 말갯팔애기’로 여기는데, 제주 해녀와 뱃사람들은 살아 있는 거북을 보면 술을 뿌리거나 간단한 비념을 행하고 죽은 거북이 해변에 밀려오면 간단한 제를 지내서 다시 바다로 띄워 보낸다.<sup>46)</sup> 바다거북은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영물(靈物)로, 주로 먼 바다에 살아 육지에 올라오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어업 중 그물에 걸려 올라오는 것을 매우 불길한 일로 생각했다. 이 외에 상업 관련 금기어로는 장사하는 사람이 솥을 뵈으면 재수가 없다는 말이 있는데, 이는 장사를 시작하기 전에 불길하다 여겨지는 일을 피해야 한다는 것과 깨끗한 인상으로 손님을 맞이해야 함을 전하고 있다.

## (5) 기타

### ① 신체부위

신체 관련 금기어는 부모로부터 받은 머리카락에서부터 발끝까지 소중히 다루고 지켜야 한다는 도덕적·윤리적인 관념에서 온 말이다. 자기 신체를 보존하는 것은 부모에 대한 효도이자 의무라고 생각했다. 내 몸을 잘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남의 신체도 함부로 다루거나 훼손해서는 안 되며, 남과 다투어 신체를 상하

46) 강대훈, 「"곱게 갇서, 다시 오지 맙서" : 제주 성산읍 해녀들의 바다거북 인식과 무속적 조상 신앙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2017.

게 하는 일도 조심해야 했다. 신체를 보호하지 못할 경우에는 가난하거나 병에 걸리는 등 죽는 것으로 생각했으며, 가장 기본적인 생활 규범이자 지침으로써 자신의 몸을 정결하고 소중히 돌봐야한다고 전한다.

<예시>

- 누영 자는 양지에 먹칠흔민 맹쯔른다  
(자는 사람 얼굴에 먹칠을 하면 명이 짧다)
- 놈의 머리털에 이녀 머리털을 섞으면 썩나  
(남의 머리털에 제 머리털을 섞어 놓으면 싸움을 하게 된다)
- 밤이 발톱 송톱은 안ㄴ신다  
(밤에 발톱 손톱은 건들지 않는다)
- 송톱 발톱을 ㄴ상 아무디나 땃겨부렁 옷밤이나 생이가 그걸 주워먹으면 그 사람 눈이 어둡나  
(손톱 발톱을 꺾어서 아무데나 던져 버려서 올빼미나 새가 주워 먹으면 그 사람 눈이 어둡다)

손톱이나 발톱 금기의 경우, 신체 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의미와 함께 오랫동안 민간에서 내려오는 속신에 따른 신앙적인 의미를 살펴 볼 수 있다. 과거에는 가위와 낫, 장도칼로 손톱을 깎았는데, 이 도구들이 무디고 손에 쓰기에 큰 기구라 실제로 상처 내는 일이 흔했다. 따라서 이러한 일을 방지하기 위해 특히 밤에 손톱이나 발톱을 깎지 말라는 말을 많이 하게 된 것이다. 반면 무심코 버린 손톱을 먹은 늙은 쥐가 가짜주인이 되어서 진짜주인을 추방한 내용의 쥐 둔갑 설화의 영향으로 손톱 깎기나 버리기를 더욱 조심하게 됐다. 이러한 경험과 인식에 의해서 신체의 피해를 항상 조심하고 작은 일에서부터 늘 근신하며 안전하게 건강을 도모하라<sup>47)</sup>는 내용을 담고 있다.

## ② 성별(남녀)

성별에 대한 금기어는 남녀유별을 유난히 강조했던 유교풍습에 따라 남성우위의 시각에서 여성의 행동을 제약하고 비하시키는 내용<sup>48)</sup>들이 있다.

47) 최래옥, 「한국 민간 속신어의 연구」, 『비교민속학』 2, 비교민속학회, 1985, 121~124쪽.

48) 여성 관련 금기는 제주의 신앙, 세시풍속, 생업 부분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제주도 본풀이 <할망본> 도입부에는 서신국 마누라님이 맹진국 할마님을 보고 “어떤 사름이, 예즌 꿈에 시꾸와도 새물 인디 앞이 얼르느냐? 몰알로 점제호라”며 여성인 맹진국 할마님을 부정하게 보고 행동을 제약하는 내용(진성기, 『제주도 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2016, 131쪽)이 있으며, 제주 민속에서 입춘날에는 여자가 남의 집을 방문하지 않아야 한다는 속신이 있다. 생업 관련 금기어에도 ‘용시호는 밭디서 남즈가 씨 빼는 디 예펜이 굴룬 소리 아니호다’, ‘밭 갈레 갈 때 빈 허벅 진 예펜이 질 갈르민 그 날 뱃보섬이 부러진다’, ‘장시호는 배에 예즈가 오르민 머정 벗어진다’ 등이 있다.

<예시>

- 식전 아침부터 예편이 큰 소리로 집안을 들벌르민 그날 머정었다  
(식전 아침부터 여편네가 큰 소리로 집안을 울리면 재수없다)
- 므실카는디 예편을 만나민 머정었다  
(마을가는데 여자를 만나면 재수가 없다)
- 예즈의 옷으로 남즈옷을 멩글민 머정벗어진다  
(여자의 옷으로 남자옷을 만들면 재수 없다)
- 예즈가 췌뜨름 불민 팔즈가 씨다  
(여자가 휘파람을 불면 팔자가 세다)

여성을 월경 등과 관련하여 부정한 것으로 인식하고, 주로 재수 없는 일이나 재앙을 몰고 오는 원인으로 여겼다. 그에 따라 여성이 해서는 안 되는 행위들을 규정하고 위반할 경우 여성 본인에게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되거나, 여자로 인해서 남자나 그 집안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sup>49)</sup> 모든 일에 있어서 거의 남녀 구별 없이 많은 일을 해왔던 활동적인 제주 여성들에게도 여성을 부정하게 보고 비하하며 통제하는 금기는 유효했다.

### ③ 사물

사람이 만들어 쓰는 물건에도 금기어가 있는데, 물건을 주고받을 때 그 물건의 쓰임이나 속성에 따라 경계하고 조심해야하는 내용이 있다.

<예시>

- ㄹ샬 값 아니 주영 맡아오민 나쁘다  
(가위 값을 제 값 치르지 않고 받아오면 좋지 않다)
- 노론 불습지 아니한다  
(노끈으로는 불을 때지 아니한다)
- 돈은 손에 놓왕 놀리지 말라  
(돈은 손에 놓고서 놀리지 말라)

가위는 무언가를 자르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받을 때 제 값을 치르지 않으면 좋지 않고, 일상에서 유용하게 쓰이는 노끈에 불을 때는 것 역시 묵은 빛이 생길만

49) 최상진 외, 「여성관련 금기어의 타당성 및 수용성 지각 :성차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vol.7, 한국심리학회, 2002. 49쪽.

큼 안 좋은 일이 벌어진다고 믿었다. 이는 집에 뿔감 나무가 없을 정도로 일을 하지 않거나 게으름을 경계하는 말로, 없던 빚도 생길만큼 집안의 경제 상황이 나쁘게 된다는 것을 말한다. 또 돈이란 것은 손에 쥐고 다니다보면 생각 없이 쓰거나 갑자기 쓸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속신에서 잘 관리하고 챙겨야 함을 전한다. 돈을 지나치게 중히 여기거나, 남에게 보이며 자랑하게 되는 일을 경계하는 말이기도 하다.

#### ④ 인간관계

금기어는 인간의 심리와 행동을 규제하며 개인과 사회가 유기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사회 규범과 같다. 일생 생활의 인간관계에 있어 타인에게 지켜야 할 예의나 태도 등을 제시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는 남에게 했던 나쁜 행동이 똑같이 자신에게 되 돌아온다는 인과응보적인 관념을 볼 수 있다.

<예시>

- 놈신디 공흔 말흐민 이녁 앞데레 그 곳인 말이 돌아온다  
(남한테 악담을 많이 하면 자기 앞에 그 나쁜 말이 돌아온다)
- 놈신디 춤 밖으민 이녁 세에 버짐난다  
(남한테 침 뱉으면 제 혀에 버짐이 난다)
- 놈의 독지를 짚으민 머정 벗어진다  
(남의 어갯죽지를 짚으면 재수 없다)
- 놈을 나무래민 죽영가민 찌우는 지름통에 들어간다  
(남을 무시하면 죽어서 끓는 기름통에 들어간다)
- 놈의 즈식 송보민 이녁 즈식도 경흔 즈식을 난다  
(남의 자식의 허물을 보고 흥보면 자신도 그렇게 모자란 자식을 두게 된다)

## 2) 자연

### (1) 동물

자연과 관련된 금기어는 일상생활 금기어 다음으로 많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동물 관련 금기어가 식물, 산·하천(물) 금기어보다 훨씬 많았다. 동물은 원시 시대 때부터 인간에게 여러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존재로, 숭배와 두려움의 대상이자 신성함과 불길함을 상징한다.

<예시>

- 배염이 집가지에 자주 나뎡기민 집안에 액운이 쏠나  
(뱀이 집 처마에 자주 나다니면 집안에 액운이 생긴다)
- 배염 딱령 죽이민 생살죄에 걸령 그 사름은 죽은다  
(뱀 때려 죽이면 생살죄에 걸려서 그 사람은 죽는다)
- 배염을 송끄락으로 ㄹ리치민 송끄락이 썩나  
(뱀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 손가락이 썩는다)
- 가마귀 굿이 올민 그 집은 손해본다  
(까마귀가 사납게 울면 그 집에 손해 볼 일이 생긴다)
- 개 올민 영장난다  
(개가 울면 사람 죽는 일이 생긴다)
- 밤이 여히가 올민 ㄴ다  
(밤에 여우가 울면 나쁘다)
- 초저녁이 독이 올민 구설이 생긴다  
(초저녁에 닭이 울면 구설이 생긴다)
- 노리가 동니에 오랑 올민 그 동니에 액장이 난다  
(노루가 동네에 와서 울면 그 동네에 액장이 난다)
- 강이가 중이고망(쥐궁기)에 들민(기여들민) 집안 망한다  
(개가 쥐구멍에 들어가면 집안 망한다)

특히 뱀과 관련한 금기어가 많은데, 제주에서는 칠성본풀이와 토산당 등 뱀신에 대해 신성시하는 관념이 있어 손가락으로 뱀을 가리키는 등 함부로 건드리거나 사람의 눈에 띄는 일은 좋지 않다고 여겼다. 신앙적인 측면에서 뱀은 풍요와 다산, 길흉을 상징해 잘 모시면 모신 값을 하고 못 모시면 재앙을 준다고 믿었다. 까마귀의 경우에도 인간의 수명을 적은 적패지(赤牌旨)를 인간 세계에 전하며 등장하는 제주 신화와 연결해 볼 수 있다. 차사본풀이에서 저승차사로 들어선 강림이 염라대왕의 명을 받아 적패지를 가지고 이승에 가던 중 까마귀에서 말렸는데, 까마귀가 실수로 이것을 잃어버려 인간이 남녀노소 구분 없이 죽게 되었다<sup>50)</sup>는 내용이 있다. 이때부터 까마귀의 울음소리를 불길한 징조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이렇듯 동물 금기어는 주로 ‘동물의 울음 등 어떠한 행동이 불길하다’는 식의 심리적 기회(忌諱)를 드러내는 말이 많은데, 까마귀에서부터 개, 여우, 닭, 노루 등 동물이 우는 일이 생기면 더욱 조심하고 경계했다. 개는 인간과 가장 밀접한

50) 장희철, 「<차사본풀이> 연구」, 제주대 석사논문, 2004, 26쪽.



관계를 맺으며 천성이 충직하고 집을 지키는 등 주인을 잘 따른다. 후각과 청각이 예민한 동물이기 때문에 개가 우는 것은 어떠한 불길한 일을 미리 예고한다고 믿었다. 노루의 경우 영물로서 신성하게 보았는데, 이러한 노루가 마을 안에 들어와서 울음소리를 내는 것은 동네에 영장이 나는 등 불길한 일이라 피했다. 또 닭이 초저녁에 우는 것과 바다의 게가 물의 동물인 쥐의 보금자리를 침범하는 일은 자연의 질서를 파괴하는 등의 정상에서 벗어난 일로 이 또한 좋지 않은 일이라 하여 꺼리고 조심했다.

## (2) 식물

나무 등의 식물은 대체로 자연물에 대한 경외심을 느끼게 하고 생명력을 품고 있는 것으로 상징된다. 식물과 관련된 금기어는 특정 나무에 함부로 불을 때지 말라는 말과 버드나무와 관련된 금기가 있는데, 금기의 대상이 되는 나무<sup>51)</sup>는 보통 나무의 성질이나 유해성 여부, 나무로 하여금 어떠한 피해를 입을 수 있음을 경계하기 위해 생겨난 말이다.

<예시>

- 과실낭근 불 아니 짓나  
(과일나무로 불을 때지 않는다)
- 유지낭근 불 아니 짓나  
(유자나무는 불 아니 땀다)
- 본지낭근 불 아니 땀다  
(노박덩굴은 불 때지 않는다)
- 배경목낭근 집이 안싱근다  
(버드나무 집에 심지 않는다)
- 버드낭을 불 지드민 그 집 아이 몸에 부시럼 난다  
(버드나무로 불 때면 그 집 아이 몸에 부스럼 난다)
- 버드낭광 쉽사리론 불숨으민 므쉬에 손해본다

51) 진성기는 제주도민의 생활에서 일반적으로 일상 가정에는 심지 않는 속신이 있는 나무들의 종류로 녹나무, 자구나무, 등나무, 포도나무, 동백나무, 백일홍, 백양목, 버드나무 따위를 들 수 있다고 했다. 녹나무는 귀신을 내쫓는 나무로 관념되어 기일제사 때 조상신마저 내쫓게 되어 제를 받지 못한다 했으며 자구나무는 그늘에 누었다가 말라리아에 걸린다고 했다. 등나무와 포도나무는 영긴다는 데서 보통 갈등을 의미하는 나무라 안 심는다고 했으며, 동백나무는 집안에 도적이 잘 든다는 믿음이 있다고 했다. 백일홍은 묘소에 심는 나무이며 백양목과 버드나무는 바람이 잘 탄다는데서 부부 살림에 바람을 피우게 되는 것으로 상징된다 설명한 내용도 있었다. (진성기, 앞의 책, 1997, 148~151쪽)

(버드나무와 대싸리로 불 때면 말이나 소에 손해를 본다)

○ 버드나무로 막대기 만들면 해롭다

(버드나무로 막대기를 만들면 해롭다)

불을 때지 말아야 하는 나무는 대체로 과일나무로 함부로 불을 때면 텃밭에 과일이 잘 열리지 않는다고 믿었다. 곡식의 낱알이라도 소중한데 여기고 불에 태워지는 것을 경계했기에, 열매 맺은 과일나무를 함부로 대하는 것 역시 그에 대한 화(禍)가 생길 것이라 염려했다. 과거 제주에는 과일나무가 있는 집에 관청에서 장부를 만들어 굴세(橋稅)<sup>52)</sup>를 부과했다. 열매가 맺힐 때, 관원이 다시 찾아와 그 숫자를 헤아려 적고 수확 철에 그만큼 세를 요구했다고 한다. 이를 괴롭게 여긴 사람들이 굴세를 피하기 위해 꺾이나 유자 등 과일나무를 불태웠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험과 우려에 의해서 과일나무로 불을 때면 관청에 걸리는 일이 생겨 좋지 않다는 말이 전해졌다.

과일나무는 보통 감귤나무를 말하는데, 유자나무나 과일나무에 불을 때지 말라는 금기어는 육지부와 달리 제주라는 환경 속에서 만들어지고 이어진 금기어로 볼 수 있다. 육지부의 경우 과일나무에 대한 금기어로 ‘과일나무에 달린 과일을 썬하거나 손가락질을 못하게 한다’ 외에는 볼 수 없으며, 대체로 복숭아나무나 대나무와 관련한 금기어<sup>53)</sup>가 많았다. 복숭아와 관련한 금기는 복숭아나무에 귀신이 쉽게 붙는다는 민간 신앙에서 비롯됐다. 굿을 할 때 복숭아나무를 꺾어 두드리며 귀신을 쫓기도 하며 아직도 신내림을 받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복숭아나무로 몽둥이를 삼아 귀신을 쫓고 일반인들도 제상에 복숭아를 올리지 않는다.<sup>54)</sup>

버드나무와 관련된 금기어가 많은 이유는 삼두구미 본풀이와 제주의 이장(移葬)

52) 한국전통지식포탈, <https://doi.org/10.20929/KTKP.KFO.0000228799>, (2022.11.01.)

橋柚, 지봉유설(芝峰類說) 1614년

述異記云越多橋柚園。歲多橋稅。吳關尙曰請除臣橋籍是也。我國濟州及南邊海邑產橋柚處。

稅有徵歛。人以爲苦。多斫去之。卽橋稅也。

술이기(述異記)에 말하기를, “월(越)나라에는 꺾과 유자 과원(果園)이 많으니 일년(一年)에 꺾에서 받는 세금이 많다.”라고 했다. 오감상(吳關尙)이, “청컨대 신(臣)의 꺾적(橋籍)을 면제해 주십시오.”라고 말한 것이 이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제주(濟州)와 남쪽 바닷가의 고을에 꺾과 유자가 많이 나는 곳에서는 세금을 받았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괴롭게 여겨 모두 베어버렸다. 이것이 곧 꺾 세금이다.

53) ‘복숭아나무는 울 안에 심으면 조상에게 좋지 않다’, ‘복숭아나무로 때리면 미친다’, ‘대나무로 지팡이질 하면 부모가 죽는다’, ‘대나무를 때면 속없는 아이를 낳는다’, ‘대나무에 꽃이 피면 집안 망한다’ 등 (최래옥, 앞의 책, 95쪽, 161쪽)

54) 허재영, 앞의 책, 2000, 131쪽.

풍습으로 설명할 수 있다.<sup>55)</sup> 이장을 하기 전에 시신을 먹는 괴물인 삼두구미에게 옥황에 올라가라는 축을 고하고, 삼두구미가 옥황에 올라간 사이에 이묘를 하게 된다. 이후 파헤쳐진 묘 자리에 날달걀 세 개와 무쇠 조각 세 개를 묻고, 그 위에 버드나무<sup>56)</sup> 한 가지를 꺾어 심는데, 그러면 그 묘자리에 삼두구미가 돌아와 동티를 내는 화를 방지할 수 있다고 믿었다. 버드나무는 귀신을 물리칠 만큼 영험이 있는 나무라는 관념에서 함부로 불을 때거나 막대기로 만들어 쓰지 말아야 했으며 집안에도 심지 않았다.

### (3) 산·하천(물) 등

산과 하천 등 자연에 대한 금기어는 자연물 그 자체에 대한 신성함과 경외심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인간이 함부로 자연을 이용하고 더럽히는 행동을 경계하며 모든 자연물을 존중하는 태도라 할 수 있다.

<예시>

- 내창에 돌대끼면 저싱가민 머리격으로 그 돌을 다 건져내랭 한다  
(하천에 돌 던지면 저승가민 머리털로 그 돌을 다 건져내라고 한다)
- 물레레 오줌싸면 저싱가민 그 물엿 오줌을 먼 골려내랭 한다  
(우물에 오줌 싸면 저승 가서 그 물에 오줌을 모두 가려내라고 한다)
- 냇물 내려올 때 질카르지 말라  
(냇물 내려올 때 길을 가로질러 건너가지 말라)
- 산잇낭기 풍설에 먼 실어지민 전장이 일어난다  
(산의 나무가 풍설에 모두 쓰러지면 전쟁이 일어난다)
- 산잇 돌이 먼 물아지꼭 낭기 먼 썰어지민 시상이 개판된다  
(산의 돌이 모두 허물어지고 나무가 모두 쓰러지면 세상이 개판된다)

하천에 작은 돌 하나라도 함부로 던지거나 오줌을 누는 행동은 저승에 가서도

55) <삼두구미본>은 제주도의 이장 풍습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제주도에서는 이장하는 것을 '철리한다'라고 한다. 묘를 옮길 때에는 새로 판 묘 구덩이에 반드시 달걀, 버드나무, 무쇠를 넣어 야 하는데, 묘를 지키는(시신을 먹는 괴물) 삼두구미 신을 속이기 위한 방법이다. 토신제(土神祭) 때 삼두구미신께 옥황으로 올라가라는 축을 고하고, 시신을 100보 밖으로 옮긴 후 성복제(成服祭)를 지낸다. 이후 삼두구미신이 내려와 시신을 찾아 버드나무에게 물으면 버드나무는 뻗뻗하게 모른다하고 무쇠는 멍멍하게 모른다하며 달걀은 눈·코·입·귀가 없어서 모른다고 한다. 시신을 찾지 못한 삼두구미신은 어쩔 수 없이 누구에게도 해를 끼칠 수 없게 되며, 후손들은 동티[動土]를 면할 수 있게 된다. (강권용, 「제주도 특수본풀이 연구」, 경기대 석사논문, 2002. 18쪽.)

56) 버드나무는 <삼두구미본풀이>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괴물을 죽일 수 있는 도구이다. 버드나무로 괴물을 처치하고 그동안 죽어있던 사람들을 모두 구한다. (강권용, 위의 논문, 19쪽.)

용서받지 못할 큰 죄였다. 모든 자연물에 정령이 있다고 믿는 애니미즘 신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이는 물을 지키는 신에 대한 예의도 아닐뿐더러 하천에 사는 생물들을 위협하는 행동으로 보았던 것이다. 본래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훼손해서는 안 되며, 작은 돌 하나로 인해 급류가 생기거나 물길이 막히는 큰 일이 생길 수 있음을 우려했다. 큰 비가 쏟아지면 여기저기서 모여진 물이 하천을 메워 넘쳐흐를 때가 있는데, 이러한 현상을 ‘산 내 터졌다’고 한다.<sup>57)</sup> 그때 산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줄기가 워낙 빨라 귀신의 조화로 물에 휩쓸려 죽게 되거나 냇을 잃는 등 귀신에 걸린다고 믿었다. 냇물이 내려올 때 가로질러 건너가지 말라는 것 또한 비올 때 갑자기 물이 불어 위험하므로 하천을 무사히 건너는 일에 대해 당부하는 것과 동시에 자연의 물길을 함부로 거스르거나 막지 말아야 한다는 관념이 녹아 있다.

### 3) 신앙

금기는 신성한 것과 속된 것, 깨끗한 것과 부정함의 한계를 엄격히 구분하여 그것에 대한 접촉을 금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금기어는 이러한 신앙적 속신과 결속하여 민간에서 오랫동안 전해 내려오며 생활 깊숙이 자리 잡게 되었다. 전체 금기어 중 신앙과 관련된 금기어는 일상생활이나 자연 관련 금기어보다 적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가장 강력한 구속력과 통제력을 가지고 사람들의 행동을 제약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신앙 금기어의 특징은 섬이라는 지형적 특성에 따라 무속신앙의 영향과 의례를 바탕으로 화합하는 제주 신앙민들의 오랜 경험과 관습이 녹아 있다는 것이다. 옛 제주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강조하고자 했던 것으로 그 내용을 본향당, 본풀이, 굿(의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대체로 신과 같은 숭배의 대상을 두려워하여 그 신을 잘 모시고 뜻을 거스르지 말아야 하는 것들이 금기로 반영되었다.

57) 진성기, 앞의 책, 1997, 243~245쪽.

### (1) 본향당

제주는 각 마을마다 마을의 수호신인 본향당신이 있다. 본향당신은 그 마을 단골 신앙민들의 출생에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평생 관장함에 따라 신앙민들은 이를 신성하게 여기며 몸가짐이나 여러 행동을 조심했다. 본향당과 관련한 금기어들을 살펴보면, 본향당에 당신(堂神)을 위해 정성 드리러 가는 길에 혹여라도 그 정성에 부정이 탈까 아는 사람을 만날지라도 인사하지 말고 앞만 보고 가야했다. 당신(堂神)에는 그들의 식성과 성향에 따라 음식을 준비해야하고 신앙민으로서 당신의 식성을 거스르는 음식을 먹고 가면 정성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금했다. 본향당은 신앙민에게 있어 위험요소가 많은 생업을 통해 생계를 이어가며 안전을 빌 때,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 풍요를 기원할 때, 의료혜택이 미미한 시절 아픈 몸을 낫게 해 달라는 건강을 빌 때 마음을 털어놓고 도와주는 위안이었던 것이다.

#### <예시>

- 본향에 갈 때 인스혹민 늦다  
(본향당 당신에게 갈 때 누구를 만나 인사하면 나쁘다)
- 본향에 갈 때 비린 걸 먹영 가민 부정탄다  
(본향당신을 위해 갈 때에는 꺼린 음식을 먹고 가면 부정탄다)
- 본향에 갈 쫄을 고평개 백이민 늦다  
(본향당신을 위해 간직해 둔 쌀을 쥐가 먹게 되면 기운이 불길하다)
- 본향에 땡기단 사름이 안땡기민 그 집 아으딜 몸에 부시럼지 난다  
(본향당신을 위하던 사람이 본향당을 위해 다니지 않을 경우, 그 집 아이들 몸에 부스럼이 난다)
- 본향이 낭근 거실지 아니혼다  
(본향당의 신목은 건드리지 않는다)
- 사름이 증벵든 켜 그 사름 옷을 할망당에 강 슬곡 빌민 그 아픈 액이 막아진다  
(사람이 중한 병에 걸려 앓았을 때는 그 사람의 옷을 신당에 가 불사르고 당신에 빌면 그 아픈 액운을 면할 수 있다)

육지부의 경우에도 서낭곳을 앞두고 금줄을 치거나 제의의 주재자인 당주(堂主) 혹은 제주(祭主)의 몸가짐을 조심히 하는 등의 금기가 있으나, 말로 전해지는 금기어는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 ‘성황나무를 건드리면 천벌을 받는다’ 외에 금기어를 찾아 볼 수 없었으며 ‘서낭당에 지낸 고사떡 먹으면 좋다’, ‘서낭제 지낼 때 산주(山主)를 만나면 재수가 좋다’와 같은 권장어·길조어가 있을 뿐이다.

(2) 본풀이<sup>58)</sup>

본풀이 관련 금기어는 무당이 구송하는 본풀이 속 내용이 그대로 금기어가 되는 경우다. ‘천지왕본풀이’에는 ‘천지왕이 군사를 거느리고 쉬맹이집 솔아궁이에 가서 장삼개여미를 일루라’는 대목<sup>59)</sup>이 나온다. 본풀이 속 내용처럼 금기어 역시 개미는 집의 불길한 일을 예언해 준다는 관념에서, 부엌 솔 아궁이에 장삼개미가 나타나면 그 집은 조왕신의 조화로 손해 보는 일이 생긴다고 믿었다. 박줄은 하늘 옥황의 ‘노각성 즈부드리’라 하여, 천지왕의 아들이 이 박줄을 타고 옥황을 왕래함에 따라 신성하게 생각했다. 따라서 이러한 박의 씨를 불태운다는 것은 옥황의 죄를 짓게 된다고 믿었다.<sup>60)</sup> 삼공본풀이의 내용도 그대로 금기어가 된 경우다. 감은장애기가 배꼽 밑의 선(줄)의 덕으로 전상신이 되는 이야기<sup>61)</sup>인데, 이와 같이 배꼽 밑의 선금웃(줄)이 비뚤어진 사람은 마음도 뻘뻘어진다는 말이 있다. 사람의 배꼽 밑의 줄의 모습이 그 사람의 생활에 있어서 행과 불행의 척도가 되는 것으로, 배꼽 아래 줄이 바르고 비뚤어진 상태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보를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예시>

- 솔강알에 장삼개여미 일민 그 집은 손해 본다  
(부엌 솔아궁이에 장삼개미가 나타나면 그 집은 손해본다)
- 쿨락씨 솔강알에 들민 아이들 머리에 부시럼지난다

58) <본풀이>는 ‘본을 푸는 것’으로 신의 내력담 즉, 신의 출생으로부터 신으로 좌정하기까지의 생애 이야기로서 신화이며, 굿의 원리를 차례차례로 풀어 나가는 ‘굿의 대본[巫堂書]’이다. 제주도 무속신화인 <본풀이> 속에는 제주인의 상상력과 문화, 제주 사회의 내재적인 규율과 법칙, 가치체계를 내포하고 있다. (문무병, 「민간신앙편-무속」, 『제주의 민속』 V, 1998, 21쪽)

59) 천지왕은 그만 화를 내고 군스를 거느리고 쉬맹일 심으레 인간이 느려완 보난, 아닐카, 개영, 쇠영, 물이영 딱 직혀 사부난 들어갈 수가 엇었수다. 쉬맹이네 집에 들어갈 수가 엇이난, 올래 몽쿠실낭 상가지에 올라 앓안 일만군스7라 말을 흐되, “열두 승험을 들이라. 그놈의 집 솔앞이 강 장삼개여미를 일루라.” (진성기, 『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2016, 230쪽)

60) 제주에서는 봄(3월 3일)이 되면 여러 가지 씨앗을 파종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꼭씨 싱금’이라 하여 박씨 심기는 명심해야 하는 일이었다. ‘2월에 수동파고 3월 삼짚날에 싱근 쿨락은 옥황에 줄 번어간다’는 말이 있다. 이는 2월에 흙을 파 밭거름을 해두고, 3월 삼짚날에 심은 박은 잘 되어서 그 박줄이 하늘 높이 치솟을 만큼 뻗어가게 되며, 박줄에서 꽃이 피고 박이 열려서 그 박이 6월 20일에 까마귀 머리만한 크기가 되면 그 박은 탄탄히 잘 여문다는 뜻이다. 잘 성장한 박은 두 쪽을 내어 ‘쿨락박새기’라 하는 식기로 사용하고 씨만을 고스란히 빼어 ‘태왁박새기’라 하는 잠수들의 뒤웅박으로 사용했던 것이다. (진성기, 앞의 책, 1997, 139~140쪽; 현용준·문무병, 앞의 책, 1993, 56쪽.)

61) “감은장애기 들어오라 물어보져, 는 누게 덕에 사느냐?”  
“하늘님의 덕이우다. 지애님의 덕이우다. 어멍광 아방 덕택인들 웃소리까마는, 흙데 나는 뱃똥 아래 선그똥이 덕이우다.” (진성기, 앞의 책, 2016, 98쪽.)

- (박씨 아궁이에 들면 아이들 머리에 부스럼 난다)
- 뱃동 아래 선금웃이 트라진 사람은 머심도 트라진다.
- (배꼽 밑의 선금웃이 비뿔어진 사람은 마음도 비뿔어진다)

### (3) 굿(무속의례)

제주도 무속사회에서는 대개 어느 집안에 환자·사망자·액(厄) 따위가 있게 되면 굿을 치르게 되는데, ‘굿’이란 결국 그 집안에 어떠한 불상사나 환자, 그 밖의 가환 따위가 생기거나 예언되었을 때 집안 식구들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 기원 드리는 제의(祭儀)<sup>62)</sup>이다. 제주는 신(神)의 노여움을 피하고 달래는 등의 굿 관련 금기어가 많은 편이다. 육지부의 경우, ‘아픈 사람에게 굿거리 하면 낫는다’, ‘사람이 아플 때 그 환자의 옷을 찢어서 성황당에 걸고 빌면 병이 낫는다’, ‘사람이 아플 때 허수아비를 만들어 장사 지내면 병이 낫는다’ 등 몸이 아팠을 경우에 해당하는 속신어가 있다. 그러나 제주는 육지부와는 달리 굿과 관련한 금기어가 구체적이고 다양하다. 집안에 불이 나거나 사람이 아프거나 죽었을 때 등 특정한 상황마다 행해야하는 굿과 관련한 금기가 담겨 있다.

#### <예시>

- 불난 집의 사람은 불찍아심 짓기 전인 죄인 몸이 되영 동넛침이 못 간다  
(불난 집의 사람은 불씨 걸음의 제의가 베풀어지기 전에는 죄인의 몸으로 이웃집에 출입할 수 없다)
- 사람 죽어난 집이 귀양풀이 안흐민 그 집이 살앙 이가 었다  
(사람이 죽었던 집에서 귀양풀이를 안했다면 누구든지 그 집에 살아서는 이로울 것이 없다)
- 시왕 청할 때 질칼르민 체시질에 걸린다  
(시왕 청할 때 길 가로 넘으면 차사길에 걸린다)
- 액막이 할 때 질카르민 그 액 맡은다  
(환자의 액을 막는 과정에서 그 앞을 가로질러 지나가면 그 환자의 액을 떠 맡게 된다)
- 푸다시 혼 뒤에 아픈사람신디 속절흐민 뱅이 도진다  
(푸닥거리 한 뒤에 환자한테 군소리하면 그 환자의 병이 도진다)
- 성주 거서리지 아니흔 집이선 식개 멩질을 못한다  
(성주 내리우지 아니한 집에서는 제사 멩질을 못한다)

화재가 난 집의 주인은 ‘불찍앗임(불씨가심=불씨의 신을 달래어 내보내는 굿)’이 있기 전에는 죄인의 신분이므로 남의 집에 드나들 수 없다는 말이 있다. 화재가

62) 진성기, 앞의 책, 1997, 400~401쪽.



난 것은 그 집에 사는 사람이 옥황의 화신 ‘화덕진군’의 비위를 거스른 죄를 지었다 하여, 화덕진군의 노여움을 푸는 의식(굿)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망인의 명복을 기원하는 귀양풀이를 하지 않으면 그 집에 좋지 않다고 믿었다. 사람이 죽어 장사 지낸 날 밤 심방을 청해 고인의 영혼을 저승으로 잘 인도해주라고 비는 제의를 하지 않거나 시왕을 청할 때 그 앞길을 가로 넘어 가는 것, 액막이 할 때 길을 가로질러 가는 것, 푸닥거리 한 집에 금줄을 매지 않는 등 신을 달래고 보내는 일을 잘못하여 큰 화를 당하는 것을 조심히 해야 했다.

### 3. 주절(主節)부 특징

금기어는 대부분 “~하지마라” 형식의 단문형과 “~하면 ~나쁘다”, “~하면 안 된다” 등의 형식인 복문형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형식을 가진 금기어에는 금기의 대상이나 방법이 제시되고 말이나 행동, 심리적 기회에 따른 표현이 담겨있다. 대체로 금기어 후반 주절에는 금기를 지키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좋지 못한 일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금기를 깨고 어겼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공포의 결과와 위험을 제시함으로써 금기의 의미를 더욱 중요하게 만든다. 금기어에는 어떤 대상이나 행위를 조심함으로써 나쁜 결과를 피하고자 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중한 것을 지키고 삶을 더욱 안전하고 운택하게 유지하고 영위해 나가고자 하는 삶의 의지를 찾을 수 있다. 금기 사항을 통해 이상적인 삶이나 꿈을 이루고 인생의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다.

제주 금기어의 주절 내용은 기존 연구 방법과 마찬가지로 크게 일반적인 결과와 구체적인 결과로 나누었다. 일반적인 결과는 구체적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나쁘다”, “좋지 않다”, “해롭다”, “부정 탄다”, “재수 없다”, “불길하다” 등 안 좋은 결과를 말한다. 금기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나쁘다”, “불길하다” 등의 막연한 두려움과 공포 의식을 갖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구체적인 결과는 “죽는다”, “동티난다”, “병든다”, “집안 망한다”, “싸움한다”, “살림이 잘 안 된다”, “손해본다” 등으로, 대체로 금기된 행동을 했을 경우 그 행동에 대한 죄와 벌로 몸이 아



프거나 목숨을 잃고 가정까지 파괴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이는 인간이 무엇을 두려워했으며 어떻게 살기를 바랐는지 드러나는 것으로, 금하여 피하고자 하는 것은 곧 그것을 이루고 얻고자 하는 소망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금기어 주절 부분에서는 조건절의 금기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가 제시된 것 중 가장 많은 빈도수를 차지하거나 특징적인 것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한다.

### 1) 죽는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는 말이 있듯이 죽음은 인간이 가장 피하고 싶은 공포다. 죽음은 피할 수 없지만 최대한 외면하고 싶은 일이기에,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금기의 선을 넘는 어리석은 행동은 되도록 삼갔다. 무엇보다 제명대로 살다 편안하게 죽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원했던 삶으로, “죽는다”는 금기 앞에서는 타당성의 여부를 따지기보다 우선 조심하고 경계하는 마음이 컸던 것이다. 이렇듯 금기의 행동을 했을 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경고는 가장 강력한 금기어에 해당한다. 그만큼 조건절의 금기 내용에 강한 규범을 담아 실천하려 했고, 그것은 일상에서 남의 재산을 함부로 사유화하지 말라는 당부로 시작한다. 죽음에 대한 경고는 하늘이나 동물의 불길한 울음에서 비롯된다고 믿었다. 까마귀의 경우, 차사본풀이에서 강림차사의 심부름꾼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곧 죽음을 앞둔 이에게 저승사자가 찾아오는 일로 보았다. 죽음은 신앙적 관념에서 신의 노여움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특히 신성시 여기는 뱀을 죽였을 때 칠성동티, 본향동티, 신당동티 등 동티로 인해 죽음을 피할 수 없는 무서운 금기 행위라 생각했다.

#### <예시>

- 놈의 호박을 술찌기 타당 먹으면 죽을 땀 배가 부성 죽는다  
(남의 호박을 몰래 따다가 먹으면 죽을 때 배가 부어 죽는다)
- 해낮이 벨을 본 사람은 그 해에 죽는다  
(대낮에 별을 본 사람은 그 해에 죽는다)
- 중병 든 사람네 지붕 우티서 까마귀가 울면 그 사람은 죽는다  
(중병 든 사람네 지붕 위에서 까마귀가 울면 그 사람은 죽는다)
- 개 울민 영장난다  
(개가 울면 사람이 죽는다)
- 노리가 동니에 오랑 울민 그 동니에 액장이 난다

- (노루가 동네 와서 울면 그 동네에 액장이 난다)
- 배염 뜨령 죽이민 생활죄에 걸령 그 사람은 죽는다  
(뱀 때려 죽이민 생활죄에 걸려서 그 사람은 죽는다)
- 돛통담으로 집을 짓이민 사람이 죽는다
- 상머리가 소릴 내민 대주가 죽는다  
(용마루가 소리를 내면 대주가 죽는다)

## 2) 병든다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도록 사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언제나 인간의 첫 번째 염원이자 소망이다. “병든다”는 것은 죽음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에게 아주 큰 공포와 두려움을 주는 결과다. 대체로 식량 등 귀한 것을 소중히 다루지 않거나 신앙과 관련된 사물을 함부로 다루었을 때, 신체 기능에 문제가 생기거나 인간의 정신과 마음에 병이 생긴다고 생각했다. 병과 관련된 주절부 내용을 살펴보면, 부스럼(종기)이나 버짐, 비리(옴) 같은 피부병과 이질, 말라리아, 마마·홍역 같은 전염병 등 병의 종류가 자세히 제시되어 있다. 특히 옛날에는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병의 원인을 찾고, 치유하는 일을 신앙적인 힘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이 가운데 가장 무서운 것이 전염병의 유행으로 많은 인명 피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매우 중대한 문제였다.

### <예시>

- 콩깍지 불습으면 돌림병으로 아픈다  
(콩꼬투리 불 때면 전염병으로 아픈다)
- 밀낭그로 불습으면 목은 비리가 도진다  
(밀짚으로 불을 때면 목은 옴이 도진다)
- 쿨락씨 솔강알에 들민 아이들 머리에 부시럼지 난다  
(박씨 아궁이에 들면 아이들 머리에 부스럼 난다)
- 버드낭을 불 지드민 그 집 아이 몸에 부시럼 난다  
(버드나무로 불 때면 그 집 아이 몸에 부스럼지 난다)
- 자귀낭 아래 줌을 자민 초학병에 걸린다  
(자귀나무 아래 잠을 자면 말라리아에 걸린다)
- 으름에 너미 줌을 장 줌병에 걸리민 그 사람 살기 어렵다  
(여름에 너무 잠을 자고 잠병에 걸리면 그 사람은 살기 어렵다)
- 돌림병 흐는 집에서 지름을 씨민 그 동네 전체가 그 병에 거린다  
(전염병이 있는 집에서 기름을 쓰면 그 동네 전체가 그 병에 걸린다)

- 안반을 깔아 아지민 이질 걸린다  
(다듬잇돌을 깔고 앉으면 이질 걸린다)
- 높은 집이 강 배개 우티 올라 아지민 비리 오른다  
(남의 집에 가서 배개 위에 올라 앉으면 옴이 옮는다)

### 3) 동티난다

동티는 예부터 금기시되어온 행위로 인해 귀신을 노하게 했을 때 받는 재앙을 말한다. 신체(神體)를 상징하는 물체나 귀신이 거주하는 곳, 신이 관장하는 자연물과 인공물을 함부로 훼손 또는 침범하거나 어떠한 절차와 금기가 정해져 있는데도 지키지 않을 경우 동티가 난다고 믿었다. 예를 들어, 신당의 나무를 건드리거나 신들이 좌정해 있는 부엌, 변소를 함부로 고치거나 액(厄)을 막는 과정 등에서 동티가 생길 수 있었다. 이 경우, 건드려서는 안 될 것을 공언히 건드려 신벌을 받거나 사악한 잡귀가 침범한다는 것이다. 동티에 걸렸을 때 대개 그 징후는 질병으로 나타나고 심하면 죽는다고 생각했으며, 이러한 동티를 잡아 쫓아내기 위해서는 무당을 불러 푸닥거리를 하거나 귀신을 쫓는 행위를 해야 했다.

<예시>

- 당쪽낭글 거실민 천벌을 받는다  
(신당의 팽나무를 건드리면 천벌을 받는다)
- 술 길 땀 날 보왕 솥을 걸어서 훑다  
(부엌의 솥을 걸 때에는 좋은 날짜를 보아서 솥을 걸어야 동티가 없다)
- 똥통을 매우면 동티난다  
(돼지우리를 매우면 동티난다)
- 아무날이나 정을 손보면 동티난다  
(아무 때나 정을 고치면 동티난다)
- 정월 대보름날 방쉬하여 분거 체얌 본 사람은 액 맞는다  
(정월 보름날 방쉬하여 버린 것을 처음 본 사람은 그 액운을 받는다)
- 액막이 할 때 질카르민 그 액 맞는다  
(환자의 액을 막는 과정에서 그 앞을 가로질러 지나가면 환자의 액운을 떠맡게 된다)

### 4) 집안 망한다

가정은 혈연, 결혼 등으로 맺어져 인간의 삶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집단이자 공동체다. 전통사회에서 가문과 집안의 존재는 개인의 행동에 있어 도덕·윤리적 기준이 되기도 했다. 집안에는 조상에서부터 후손에 이르기까지 대대로 이어져오

는 가풍과 가법 등을 통해 구성원들의 행동을 규제하는 나름의 규범과 예법을 가지고 있다. 특히 집안의 흥망성쇠는 조상을 정성스럽게 잘 모시는 일에 있다고 믿었으며, 이를 잘 행하지 못했을 경우 자손이 끊기는 등 집안에 우환이 생긴다고 여겼다. 따라서 집안의 살림을 상징하는 장을 담그고 관리하는 일에서부터 조상신을 모시는 일까지 평안하게 집안을 잘 돌보고 지키는 일이 중요했다.

<예시>

- 거스로 장개가면 집안 망한다  
(거꾸로 장가가면 집안 망한다)
- 예즈가 한칸에서 불림질하면 그 집은 망한다  
(여자가 마루에서 불림질하면 그 집은 망한다)
- 메주를 짝글르게 죄여지면 그 집안이 낮다  
(메주를 짝이 틀리게 만들면 그 집안에 나쁘다)
- 장황에 돛줄래 빠지면 그 집이 망한다  
(장독에 뱀이 빠지면 그 집이 망한다)
- 삼일장 세 번만 하면 집안 망한다  
(삼일장 세 번만 하면 집안 망한다)
- 식계를 합제하면 집안 망한다  
(제사를 합제하면 집안 망한다)
- 영장 매영 갈 때 선묘 앞에서 해매하지 아니하면 즈손 안 된다  
(상여를 매고 갈 때 선묘 앞에서 하마하지 않으면 자손이 안 된다)
- 호상옷에 뒷바농질하면 즈손이 뒷걸음질한다  
(호상옷에 뒷바느질하면 자손이 뒷걸음질한다)
- 동관호영 나갈 때 관이 문지방에 다대기면 즈손이 안 된다  
(동관을 하고 나갈 때 관이 문지방에 다치면 자손이 안 된다)
- 산을 잘 못 써면 즈손 망한다  
(무덤을 잘 못 쓰면 자손 망한다)

## 5) 기타

금기어 주절부 결과에서 주목되는 것 중 하나는 관계의 중요성에 관한 내용이다. 조건절의 금기 내용을 위반할 경우, 싸움을 하거나 누명을 쓰는 등 남의 입에 오르내리거나 손가락질을 당할 수 있다고 전한다. 위험한 도구를 주고받는 행위를 조심하지 않거나 남에게 홍보될 수 있는 사소한 행동들로 인해 사회생활에서 문제를 겪을 수 있음을 경계하고 있다. 이는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거나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며 관계에 있어서도 타인을 배려하고 무례한 간섭을 피해야함을 말해주고 있다. 이렇듯 금기어에는 인간의 삶을 보다 안전하고 평안하게 지속하기 위한 현실적인 욕구와 염원이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시>

- 다루에를 주꼭 말으꼭 흐민 그 사름찌리 싸움난다  
(다리미를 주고 받고 하면 그 사람들 간에 싸움이 난다)
- 시숫물을 놈광 곶이 씨민 싸움혼다  
(세숫물을 남과 같이 쓰면 싸움한다)
- 솟 불르민 소도릿귀에 난다  
(솟을 밟으면 고자질로 인한 싸움이 벌어진다)
- 사두서 머리 빗이민 입넉개혼다  
(서서 머리 빗으면 누명쓰는 일 생긴다)
- 숙그락 봉그민 입넉개혼다  
(숙가락 주으면 남의 입에 오르내린다)
- 마른 태 밀민 군주망을 입은다  
(마른 태를 벗기면 누명을 입는다)
- 젓인 옷 입으민 군망입나  
(젓은 옷을 입으면 누명 쓴다)

#### IV. 제주 금기어 주제와 의미

금기는 인간의 종교성에서 발생하여 신앙생활은 물론 개인·가정·사회생활에 폭넓게 수용되어 있다. 금기의 영향력은 인간의 도덕성·인격·사회화 등에 파급효과가 있으며 이러한 관념은 지속성을 가지고 윗세대에서 다음세대로 전해진다.<sup>63)</sup> 4장에서는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들어지고 전해진 금기어가 강한 생명력을 지닌 채 인간과 사회를 구속하고 제약하며 교육해 온 효과에 주목하고자 한다. 현대의 관점에서 보면 금기의 내용은 우리 일상생활과 맞닿아 합리적으로 설명되고 과학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훨씬 더 많다. 이러한 금기어가 오랫동안 언중들 사이에서 구속력과 전승력을 이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통합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금기어는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전승되며 개인 및 공동체가 함께 만들고 지켜온 과거의 수많은 경험이 녹아 있으며, 인간이라면 마땅히 따르고 지켜야 할 가치 판단의 기준인 생활 규범과 사회 안에서 자연적으로 습득하며 수용해야 하는 최소한의 도덕이 담겨 있다.

4장에서는 3장의 유형 및 내용 분석을 바탕으로 그 주제를 크게 생활관, 자연관, 신앙관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금기어가 비록 미신적인 습속이 강하더라도 그것이 발생한 근거와 전승 이유를 깊이 들여다보면 인간의 삶 속에서 마땅히 경계하고 삼가야 할 어떤 이유가 있다. 금기가 인간 생활에 가장 기본인 의식주에서부터 살면서 겪는 크고 작은 의식에까지 적용됨에 따라 금기어의 합리성과 실용성, 교육적인 측면에서 그 의미를 해석해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선인들의 경험 및 생활 모습을 조금 더 폭넓게 담고 있는 속담<sup>64)</sup>과 창천리 금기담을 함께 비교하며 금기어의 주제와 의미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63) 민속학회, 앞의 책, 1996. 221쪽.

64) '제주속담사전'(고재환, 민속원, 2002)과 '제주도속담전집'(진성기, 디딤돌, 2010)에서 금기어와 관련된 속담 자료를 추출하여 고찰하였다.

## 1. 생활관

금기는 인간을 둘러싼 공포와 재난으로부터 질서와 안녕을 유지하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요소로, 인간의 심리와 행동을 규제하며 개인과 사회가 유기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금기는 한 사회 집단의 공통적인 생활이나 사고 또는 행동양식의 한 영역과 유사<sup>65)</sup>하며 오랜 생활 경험에서 얻어진 지혜로서 거동과 처세의 교훈<sup>66)</sup>이 된다. 일상 생활면에서는 도구의 사용에서 유의해야하는 것부터 인간관계에 있어서 지켜야 할 예의, 가정과 재산의 안전 및 보호 등 인생의 기준점을 제시해 주고 있다.

### 1) 보호·안전

#### (1) 식량

인간의 삶에서 무엇보다 가장 소중히 여기고 지켜야 하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인 생계고 곧 식량이다. 척박한 섬 제주는 특히나 식량을 마련하는 일부터 쉽지 않았다. 농사짓기에 어려운 토양과 삼재(三災)가 많은 환경적 조건에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했다. 농지는 제주 전체 넓이의 27%로, 그 중에서도 논이 드물고 밭농사가 주를 이루었다. 농사는 봄·가을 2모작으로 겨울농사는 보리·밀이 주이며, 가을농사는 조·‘산뒤’(밭벼)·콩·팥·메밀·‘감저’(고구마)·녹두·깨 등 잡곡류가 있다.<sup>67)</sup> 일 년 내 내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김을 매고 곡식을 수확하기까지 많은 인내와 고통이 뒤따르기 때문에 고생 끝에 얻게 된 소중한 식량을 잘 관리하고 보호하는 일이 중요했던 것이다.

<금기어 예시>

- 콩각지 불습으면 돌림병으로 아프다  
(콩각지에 불 때면 전염병으로 아프다)
- 감제씨 물을 댄 영장밭디 강 온 사름이나 비린 예즈가 그 썰 묻으면 썩는다  
(고구마 씨를 물을 때는 장지에 갔다온 사람이나 몸이 꺼린 여자는 그 씨를 묻으면 씨가 썩는다)

65) 최창모, 앞의 책, 2003. 48쪽.

66) 진성기, 앞의 책, 2002. 49쪽.

67) 고부자, 앞의 책, 1996. 95쪽.

- 곡식밭디 종즈를 스꼬와불민 황천의 죄를 받는다  
(곡식밭에 종자를 숨어버리면 황천의 죄를 받는다)
- 놈의 밭디 용시를 임제보단 몬저 흥여당 먹으면 죄가 크다  
(남의 밭의 농산물을 그 입자보다 먼저 맛보는 것은 죄가 크다)

<창천리 금기담 예시>

- 늪뻘 찌꺼기 불에 질지 말라  
(무 찌꺼기를 불에 지피지 마라)
- 곡식깨가 불에 들어가지 말게 흐라  
(곡식깨가 불에 들어가게 하지 마라)

고구마는 곡식이 모자랄 때 식량 대용으로 식생활에 큰 보탬이 되었다. 빈궁기 때도 저장했다가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구황식품<sup>68)</sup>으로 긴요한 농산물이기 때문에 그 씨부터 잘 관리해야했고 썩히거나 불태우는 것은 신성한 곡식을 부정하게 하는 일과 같았다. 창천리 금기담에도 ‘늪뻘(무우)’에 불을 때우면 얼굴에 피부병이 생긴다는 말이 있는데, 제주 방언으로 ‘늪뻘’은 무를 말하며 무의 껍데기 등 찌꺼기라도 함부로 버려서는 안되는 일이었다.

곡식에 대한 소중함은 속담에서도 전하고 있다. ‘곡식꺾 버리면 죄 바든다(곡식을 버리면 죄 받는다)’, ‘굴명 주거도 곡식 썬 먹지 안 혼다(굶어서 죽어도 곡식 씨는 먹지 않는다)’라는 말에서 볼 수 있듯이 생명이자 복을 상징하는 곡식을 버리는 일은 죄를 짓는 일이며 당장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곡식의 씨를 먹지 말아야 했다. ‘제주 사람은 굶어 죽으면서도 씨앗주머니만은 차고 죽는다’는 말처럼 오늘 당장 굶어도 아끼고 아껴 내일 먹을 식량을 비축하여 둘 줄 아는 근냥 정신을 그대로 보여준다.<sup>69)</sup> 또한 곡식은 귀중한 재산이자 복을 상징하기도 했다. 남의 밭의 농산물을 그 주인보다 먼저 가져다 먹는 것은 그 집의 재산을 빼앗는 일처럼 죄를 짓는 일이라 여겼다. 아무리 자기 집안의 사정이 어렵다 할지라도 곡식을 주인보다 먼저 먹는 것은 남의 복을 훔치는 것이고, 힘들여 고생한 노력 없이 쉽게 재물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심을 경계했던 것이다.

68) 오영주, 앞의 책, 2017, 41~42쪽.

69) 김봉오, 「식생활」, 『제주생활문화 100년』, 제주문화원, 2014, 244쪽.



<금기어 예시>

- 살림집이 물황급이 몰르민 그 살림이 노고록을 안흔다  
(살림하는 집에 물독에 물이 마르면 그 살림이 편안하지 않다)
- 먹는 물에 오줌 싸민 황천가민 머리격으로 그 오줌을 죽양 물광 오줌을 먼 꺾갈라 내영 농랭흔다  
(먹는 물에 오줌 싸면 저승 가서 머리털로 그 오줌을 적셔서 물과 오줌의 한계를 모두 갈라내어 놓으라고 한다)
- 시숫물을 하영 농왕 시수흐민 저싱가민 그 물을 먼 먹으랭 흔다  
(세숫물을 많이 놓아서 세수하면 저승가면 그 물을 모두 먹으라고 한다)
- 물질레 강 허벅 벌렁 온 아이 따리멍 욱흐민 다시도 물질레 가민 허벅 바른다  
(물 길러 갔다가 물동이를 깨뜨리고 온 아이를 때리며 욱을 하면 다시 또 물동이를 쟈다)

곡식만큼 중요한 식량이자 그 집안의 살림살이 사정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물이다. ‘ㄹ몐엔 뉘 오줌싼 물도 먹나(가몐에는 말 오줌싼 물도 먹는다)’, ‘지싯물도 받아 두민 도제에 쏜다(낙수물도 받아 두면 도제에 쏜다)’는 속담에서 볼 수 있듯이 가몐이라도 들면 큰 곤혹을 치러야할 만큼 제주는 물이 식량만큼 귀했다. 해안지역에서는 지역에 따라 썰물 때 는 바닷속에 있는 용천수를 이용하고, 일반 농가에서는 냇물이나 마을 어귀에 웅덩이를 판 ‘구렁물’을 이용했다. 중산간 부락에서 물이 귀한 곳은 가몐 대비로 ‘죽낭’(때죽나무)에 흘러내리는 ‘춤물’을 받아서 사용하기도 했다.<sup>70)</sup> 제주에선 물 씹씹이를 절약하는 것이 필수였으며, 먹는 물은 물론이고 허드렛일을 하는 물조차도 알뜰하게 썼다. 물이 귀한 만큼 살림하는 집에 물이 마르면 그 살림은 여유가 없다고 생각했으며, 마실 물도 귀한 상황인데 얼굴 씻는 물을 조금이라도 낭비했다가는 죽어 저승에서까지 벌 받을 일이었다.

물 관련 금기어에는 한 방울의 물이라도 아끼고 비축하려는 태도와 생활상이 담겨 있다. 과거 제주 사람들은 물허벅을 이용해 물을 길어 사용하거나 우물을 파서 식수를 해결해야 했는데, 그 중 물허벅 지기는 주로 여성들이 담당했다. 그 나이는 빠르면 초등학교 시기부터 도맡아 했다. 때문에 어린 시절 물허벅에 물을 담아 운반하면서 물을 흘리거나 넘어져 깨뜨리는 일이 종종 있었는데, 이때 물을 길어온 아이를 너무 나무라지 말아야 했다. 물도 물론 귀하고 물항아리도 귀하지 만 아침 일찍 물을 길러 나가 고생한 아이가 놀라거나 다치지는 않았는지 먼저 살피고 다독이는 것이 우선이며, 물보다 사람이 더 귀하다는 것을 전하고 있다.

70) 고부자, 앞의 책, 1996, 96쪽.

## (2) 생명

사악한 기운이나 위험으로부터 약한 대상이나 중요한 인물 등을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하는 것은 터부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다. 즉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일이 가장 중요함을 말하는 것이다. 주로 그 대상은 나이가 많은 노인이나 어린 아이, 임산부로, 대부분 신체적·정서적으로 미숙하거나 안전을 요하며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이다. 특히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중요한 고비인 임신 및 출산에서 금기가 많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임신한 것이 확인되면 뱃속의 태아를 하나의 사람으로 생각하여 잘 보호하고 교육시키는 것이 태교의 시초이며 생명존중의 사상<sup>71)</sup>이라 할 수 있다.

<금기어 예시>

- 눕으우 된 때 텃개고기 먹으면 얼챙이 난다  
(임신했을 때 토끼고기를 먹으면 언청이를 낳는다)
- 아이 뱀 예칭 몰줄 냉기지 아니혼다  
(임신한 여자는 말줄을 타 넘지 않는다)
- 예즈가 애기 뱀 때 화릴 가달 냉기민 애기몸에 허멀 난다  
(여자가 임신 했을 때 화로 위를 타 넘으면 아기 몸에 허물난다)
- 눕으우 된 땀 물 넘어 가민 해롭다  
(임신했을 때 물을 건너가면 해롭다)
- 눕으우 된 땀 밤질 걷지 아니혼다  
(임신했을 때 밤길을 걷지 않는다)
- 눕으우 된 예즈가 병신을 보양 웃지 말라  
(임신한 여자가 병신을 보고 웃지 말라)
- 물애기 낭 사흘 전이 윈 사람이 들어오민 애기에게 해롭다  
(해산 후 사흘 안에 외부 사람이 들어오면 아기에게 해롭다)

3장의 임신·출산 관련 금기에서도 밝혔듯이 인간의 살면서 겪는 일 중 가장 성스럽고 위험하며 조심스러운 일이 바로 새 생명이 탄생하는 일이다. 출산 전후의 고비는 일상과는 다른 신성한 기간이므로 금기를 통해 악귀의 범접도 철저히 막아야 하며, 산모와 갓 태어난 아기를 보호해야 되고, 임신부 자신은 물론 가족들도 정성껏 지켜야 된다.<sup>72)</sup> 그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잘못하여 부정한 일이 생겨서

71) 김순이, 「금기어에 나타난 제주여속-산속을 중심으로」,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조사연구 보고서』 제7집, 1992, 181쪽.

72) 김영돈, 「통과의례」, 『제주의 전통문화』, 제주도교육청, 1996, 363쪽.

는 안 되기에 임신 중 먹는 음식에서부터 태아에게 영향이 가는 모든 행동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가족뿐만 아니라 이웃이나 마을에서도 임신부에 대한 배려가 각별했는데, 여럿이 모여 일을 할 때도 할머니들이 따듯한 아랫목을 양보해주고 식사나 간식도 먼저 하게 해주는 보살핌을 받았다. 이러한 배려는 새 생명에 대한 경외심이고 새 생명이 튼튼한 몸과 건전한 정신을 가지고 태어나기를 바라는 마음<sup>73)</sup>이었다.

<창천리 금기담 예시>

- 아기 뺨 여즈 냉수로 목욕하지 말라  
(임신한 여자는 냉수로 목욕하지 말라)
- 아기 난 여즈 아흐레 꿩기 전엔 맨경 보지 말라  
(출산 한 여자는 아홉날 되기 전에 거울 보지 말라)
- 아기 뺨 여즈 놉 송보지 말라  
(임신한 여자는 남 흥보지 말라)
- 아기 뺨 여즈 철리흐는디 다리보지 말라  
(임신한 여자는 이장하는거 쳐다보지 말라)
- 아기 난지 일퀘 안에 내 넘어 온 사름, 부정흔 사름 들여놓지 말라  
(출산한 지 7일 안에 물을 넘어 온 사람이나 부정한 사람 들여놓지 말라)

‘임신 중 토끼고기를 먹으면 언청이를 낳는다’ 등의 음식 금기는 과학적인 근거가 없지만 잘못된 음식 섭취로 인해 임부의 건강에 위협이 생길 경우, 그것이 곧 태아에게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음을 말한다. 또 산달이 다가올수록 점점 몸이 무겁고 이동하는 것이 불편해짐에 따라 외출 금기, 행동 금기를 통해 태아와 임신부의 보호와 안전을 강조하고 있다. 창천리 금기담에도 임신 중 차가운 물로 목욕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한다. 냉수로 인해 체온이 낮아져 몸이 냉해지는 것은 혈액순환에 좋지 않고 그것은 곧 태아에게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따듯한 쭉물로 목욕을 하는 것이 여성의 몸에도 더 좋고 안전하다고 알려준다. 출산 후에는 산고의 고통으로 인해 산모의 몸이 정상으로 회복할 시간이 필요하기에 일정 기간 후에 거울을 보라는 말이 있고 다른 사람이 집안에 들어오는 것을 금지하여 신생아와 산모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해주고자 했다.

73) 김순이, 앞의 논문, 1992, 182쪽.

<금기어 예시>

- 애기 머리뺨 따리지 말라  
(아기 머리를 때리지 말라)
- 애기 아까왕 너미 입을 맞추민 애기에 뇨다  
(아기가 아깝다고 너무 입맞춤을 하면 애기에 해롭다)
- 애기가 자당 밤중에 즈지 울민 그 애기가 해롭다  
(아기가 자다가 밤중에 자주 울면 그 아이가 해롭다)
- 애기웃이나 지성권 밤이 밖이 널영 이실 마치민 그 애기에 즈뵤이 한다  
(아기웃이나 기저귀를 밤에 밖에 널어서 이슬을 맞으면 그 아기에게 잔병이 많아진다)
- 물애기 불싼데레 앞ㅎ영 맞지지 말라  
(갓난애기를 불 켜 데로 향해서 앉히지 말라)

갓 태어난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은 아이를 건강히 키우고 돌보는 양육 과정으로 이어진다. 어린 아이는 젖먹이 때부터 청년이 되기 전까지로, 언행이 미숙하여 보호해야할 대상으로 생각했다. 신생아의 경우, 흔히 머리로 숨을 쉰다는 말처럼 머리뺨가 아직 완전히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충격을 받거나 강하게 누르는 일이 위험하며 입을 맞추는 것 또한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삼가야했다. 신생아는 몸의 움직임을 잘 조절하지 못해 많이 놀라고 밤에 자주 울고 깰 수 있기에 이런 점에 유의하라는 말을 전하기도 하며, 아기 웃이나 기저귀를 밤에 널면 이슬을 맞아 축축해지고 위생적으로 좋지 않기에 아기의 건강을 위해 경계해야할 행동을 알려주고 있다.<sup>74)</sup>

<창천리 금기담 예시>

- 아기 화룻불 넘지 못ㅎ게 하라  
(아기 화룻불 넘지 못하게 하라)
- 어린아이 담배 피우게 말라
- 벤소에 아이 빠지우지 말라  
(변소에 아기 빠지지 못하게 하라)
- 어린아기 맨경 뵤우지 말라  
(어린아기 거울 보여주지 말라)

74) 고재환은 '물애기 지성권 밤이 뵤겼디 널지 말라', '밤이 애기웃을 널민 곳인 새가 붙는다', '물애기 불싼데레 앞ㅎ영 맞지지 말라' 등의 금기어를 예시로 제시하고, 이를 속신적 육아금지라 했다. 속신에 의한 행위라 하더라도 현대적 관점에서 충분히 과학적 설득력을 지닌 육아지침이며 합리적인 생활훈으로서 당위성을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고재환, 「제주 속담에 나타난 전통 육아관 분석」, 『동북아시아문화학회 국제학술대회 발표자료집』,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07, 318-319쪽.)

- 어린아이 뒷머리 큼게 말라
- 어린아이 배 입대영 불지 말라  
(어린아이 배에 입을 대고 불지 말라)
- 아기 옷너부터 먼저 나민 멩 썩른다  
(아기 옷너부터 먼저 나민 멩이 썩다)
- 아기안티 좋은 말만 헝지 말라

창천리 금기어에도 어린 아이를 여러 위험과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양육하는 방법이 담겨 있다. 화롯불을 넘거나 담배 피우기, 변소에 빠지는 일 등 아이의 생명에 위험하고 나쁜 행동뿐만 아니라 아이가 놀라거나 불편함을 느끼는 일들을 알려주며, 성장 발달에 대한 정보와 지침도 전해주고 있다.

<금기어 예시>

- 막떡은 늙은이 밖이 안 먹나

반면 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금기어는 어린 아이와 임산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 ‘막떡은 늙은이 밖이 안 먹나(막떡은 늙은이 밖에는 먹지 않는다)’라는 금기어가 있는데, ‘막떡’이란 떡을 만들 때 맨 마지막에 만들어진 떡으로 힘없는 노인의 몫이라는 뜻이다. 막떡은 어린아이나 젊은이가 먹으면 재물도 늘지 않고 공부도 잘되지 않고 앞길도 막힌다<sup>75)</sup>고 하여 흉년 때 늙은이 몫으로 남겨야 한다는 것이다. 속담에서는 부모를 잘 모시고 공경해야한다는 말이 전해진다. ‘부모 박접헛당 지도 즈식안티 천대 받나(부모 박대했다가 자기도 자식한테 천대 받는다)’, ‘어멍 아방안티 눈꿀질헛민 저승 강 대코쟁이로 눈 찢렁 췌다(어머니 아버지한테 눈흘기면 저승가서 대꼬챙이로 눈 찢러서 췌다)’와 같이 어른인 부모를 홀대하면 벌을 받는다는 내용이 있다. 자기를 낳고 길러준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고 무례하고 버릇없는 행동을 하면 저승에 가서 벌을 받을 정도로 죄가 크므로 부모를 천시하거나 경멸해서는 안 된다는 훈계를 담고 있다.

금기어가 발생하여 오랫동안 전승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생존과 직결된 문제란 것이다. 척박한 환경에서 식량을 마련하는 일이 녹록치 않았기 때문에 곡식 등 식량을 잘 관리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했으며, 갓 태어난 아이나 임산부 등

75) 김순이, 「빈궁기식생활(구황음식)」, 『제주도의 식생활』,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1995, 345쪽.

신체적·정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약자를 보살피고 안전하게 지키는 일은 생명 존중 사상과도 연결된다.

## 2) 예의

금기어는 윤리·도덕적인 교육을 위해 생활 속에서 예의에 맞는 행동이나 태도에 관한 규범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원만한 사회생활과 기본적인 교양을 위한 지침이라 할 수 있다. 예의 관련 금기어는 아랫사람의 행동이 점잖지 못함을 고쳐주기 위한 훈계형식이나 일상생활을 공유하는 가족 및 이웃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기본 태도와 방법을 전한다.

### (1) 시간

하루에 정해진 시간 등 특정한 때에 맞는 행동과 지침이 있다. 하루를 시작하는 새벽과 그 뒤에 오는 아침은 그날 운세를 의미하며, 시작과 출발을 뜻한다. 그러므로 새벽이 좋으면 그날 하루 내내 좋고 아침이 언짢으면 하루 종일 안 좋다<sup>76)</sup>고 보는 것이다.

#### <금기어 예시>

- 새벽이 놨은 집이 강 불담아 오민 그 집인 머정웃인 일이 생긴다  
(새벽에 남의 집에 가서 불씨를 담아오면 그 집에는 재수 없는 일이 생긴다)
- 식전에 꿏똥배기 맞이민 그날 머정 벗어진다  
(식전에 뺨을 맞으면 그날 재수없다)
- 식전이 물건을 외상으로 주민 그날 해원 외상 줄 일만 난다  
(식전에 물건을 외상으로 주게 되면 그날은 온종일 상품이 외상으로만 팔리게 된다)

하루의 시작부터 남의 집에 가서 불씨를 빌려온다는 것은 염치없는 행동이며 다른 이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무례한 일이다. 불은 예부터 신성하고 신비스런 것으로, 집 안에서는 불씨를 잘 보존하여 방을 따뜻하게 하고 식사를 준비하는 중요한 도구이자 집안의 뿌리를 상징<sup>77)</sup>하기도 한다. 집안에 불씨가 꺼지면 밤새 평안치 못했거나 문제가 있을 수 있기에 옛날에는 아궁이 속에 불씨를 잘 간직

76) 최래옥, 「하루중 음식 습속과 예절에 관한 민간속신어 연구」, 『先淸語文』 Vol.28,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2000. 56쪽

77) 허재영, 앞의 책, 2000, 198~202쪽.

하고 보존하는 일이 중요했다. 따라서 불씨를 담아간다는 것은 그 집의 중요한 물건이자 복을 가져오는 일과 같아 하루를 시작하는 새벽에 특히나 주의해야 할 행동이었다. 새벽 댓바람부터 뺨을 맞거나 때리는 일도 매우 불길하게 보았다. 아침부터 누군가에게 뺨을 맞는 일이 생긴다는 것은 그만큼 잘못된 행동을 저질렀다는 것을 말한다. 그것은 좋지 못한 일에 휘말리는 등 어떠한 문제가 시작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날 하루의 운세는 불 보듯 뻔했다. 그러니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아침에 뺨을 때리는 일도 맞는 일도 없도록 했다. 특히 장사를 하는 사람에게 아침의 운수가 무척 중요하기 때문에 아침 일찍부터 물건을 외상으로 사가는 것 또한 조심해야 할 행동이었다. 이렇듯 새벽이나 아침부터 타인의 집을 방문하여 불씨를 빌리는 등 피해를 주거나 예의에 어긋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했으며, 누군가와 싸우거나 큰 소리를 내지 않는 것이 기본 예의임을 전하고 있다.

<금기어 예시>

- 식전 아침부터 예편이 큰 소리로 집안을 들벌르민 그날 머정었다  
(식전 아침부터 여편네가 큰 소리로 집안을 울리면 재수없다)
- 식전이 예즈광 말드툼을 흐나 욱지거릴 흐민 그날 머정 벗어진다  
(식전에 여자와 말다툼을 하던지 욱을 하면 그날 재수 없다)

반면 인간의 기본 예의를 떠나 합리적인 근거 없이 지켜야 하는 경우도 있다. 식전이나 아침부터 여자들의 행동을 제약하고 비하하는 내용이다. 이는 전통적인 유교 사회에서 여성의 존재가치를 무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자는 주로 재수 없는 일이나 재앙을 몰고 오는 원인으로 간주되어<sup>78)</sup>, 아침부터 집안에서 큰 소리를 내서는 안 되며 남성에게 순종적인 태도를 취하도록 행동을 통제하고 있다. 여성 관련 금기어는 당시 사회적 질서라 할 수 있는 유교사회의 남존여비 사상과 남성중심적인 가부장제에 따라 여성을 남성과 동등한 시각에서 바라보지 않고 남성에게 종속된 존재로 인식한 결과<sup>79)</sup>다. 타당한 근거 없이 관습적으로 전해오며 여성을 차별하고 통제하는 금기어는 사라져야 할 문화적 산물이다.

78) 최상진 외, 앞의 논문, 2002, 49쪽.

79) 김기설, 『영동지방의 금기어연구』, 『關東語文學』 Vol.1, 관동대학교, 1978, 113~114쪽.

<금기어 예시>

- 해진 후제 되약새기 빌려주지 아니한다  
(해진 후에 되는 빌려주지 않는다)
- 해진 후젠 다르외를 빌리지 아니한다  
(해진 후에 다리미는 빌리지 않는다)
- 해진 후제 스담 막개질흔민 동네 청년이 해롭다  
(해진 후에 빨래 방망이질 하면 동네 청년이 해롭다)

<창천리 금기담 예시>

- 밤의 다리웨 놈 빌려주지 말라  
(밤에 다리미 놈 빌려주지 말라)
- 밤의 스담 방망이질흔지 말라  
(밤에 빨래 방망이질 하지 말라)
- 밤의 머리 감지 말라  
(밤에 머리 감지 말라)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녁과 밤은 폐쇄와 휴식을 뜻하며 여러 가지 활동에 있어 더 많은 제약이 필요한 때이다. 밤에는 주로 집안의 살림 도구를 빌리고 빌려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행동으로 보았다. 해가 지면 사람들은 모든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 가족들과 함께 휴식을 취하거나 잠자리를 돌본다. 집안의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부터 집안의 공간과 살림 도구 또한 그 쓰임을 다하여 쉬어가는 시간으로 알맞게 정리되고 제자리에 놓아야 한다. 그러한 상황에서 빨래를 하기 위해 방망이질을 하는 등 부산스럽게 집안일을 하는 것은 가족과 이웃의 휴식을 방해하는 행동이자 자신의 일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이며 밤이 될 때까지 집안일을 하지 못한 게으름을 책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금기어는 밤에는 되도록 정숙하고 고요한 분위기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예의임을 가르치고, 언제나 휘황하고 늘 바쁘며 밤늦게까지 분주한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게 한다.

(2) 식사

밥을 먹는 행위는 그 사람의 먹을 복과 관련지어 보는 경향이 있다. 대체로 귀한 음식 앞에서 어떠한 행동을 하는 것은 복이 나가는 행동이라 보고, 먹는 방법이나 식사 태도에 대해 경계했다. 식사와 관련한 금기어는 한 집에서 함께 살면



서 끼니를 같이하는 사람, 즉 식구들 사이에 지켜야하는 식사 예절을 교육하는 역할을 한다. 식사예절을 지키지 않을 경우, 그 결과는 가난하거나 복이 없거나 재수 없는 일이라 하여 소중한 음식 앞에서 그에 맞는 예의나 절차를 지키도록 전하고 있다.

<금기어 예시>

- 국 먹당 장칼 냉기민 빈복혼다  
(된장국을 먹다가 장찌꺼기를 남기면 복이 없다)
- 누냉이를 질레레 브리민 죄 짓나  
(누룽지를 길에 버리면 죄를 받는다)
- 사름이 상 가달을 냉기지 말라  
(상 위로 가랑이를 넘기지 말라)
- 밥 먹당 찻 속가락에 밥방울이 떨어지민 머정엇다  
(밥 먹다가 찻 숟가락에 밥알이 떨어지면 재수없다)
- 밥 먹을 때 속가락 부러지민 그날 머정 벗어진다  
(밥 먹을 때 숟가락 부러지면 그날 재수 없다)
- 지방우티 걸터아장 밥먹으민 벌어먹은다  
(문지방 위에 걸터 앉아서 밥을 먹으면 가난하다)
- 국사발을 왼쪽에 놓왕 밥 먹지 아니혼다  
(국사발을 왼쪽에 놓지 않는다)
- 밥사발을 독모릅에 받투왕 먹으민 빈복혼다  
(밥사발을 무릎 위에 받쳐 놓고 먹으면 복이 없다)
- 돔배에 밥 놓왕 먹으민 그 사름이 드라나게 된다  
(도마에 밥을 놓고 먹으면 그 사람이 도망가게 된다)
- 타진 그릇에 음식을 담앙 먹으민 빈복혼다  
(이빠진 그릇에 음식을 담아서 먹으면 복이 없다)

식사 금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음식을 남기거나 버리지 않는 것이다. 속담에도 ‘깃 박접흐민 췌짓나(음식 박대하면 죄짓는다)’는 말이 있는데, 밥알 하나에도 농부의 피땀이 담겨 있기에 음식에 대한 고마움을 모르고 함부로 버리거나 소홀히 취급하는 것은 큰 죄를 짓는 행위로 보았다. 신성하고 깨끗한 음식을 차려 놓은 상 위로 지나다니는 것은 위생상으로 좋지 못한 일이었고, 찻 숟가락부터 밥을 흘리거나 숟가락이 부러지는 등의 일은 밥을 먹는 자세나 태도에 대한 문제로 보았다. 수저나 그릇 등 식기는 그 사람이 먹고 살게 하는 중요한

도구다. 그러한 수저가 떨어지거나 그릇이 깨짐은 건강과 재물, 생명이라는 복이 떨어지는 것이고 깨지는 것<sup>80)</sup>이라 할 수 있다. 음식 문화의 절도도 금기어를 만들어 냈다. ‘국은 오른쪽, 밥은 왼쪽’은 하나의 관습으로 이를 어기는 것조차 어른들은 마땅히 생각하지 않았다.<sup>81)</sup> 밥과 국은 그것을 놓는 그릇이나 위치가 정해져 있기에 식사 예절로써 오른손잡이 기준에 맞춰 밥을 먹을 때 옆 사람과 팔이 부딪치지 않고, 국물을 흘리지 않도록 했다.

<창천리 금기담 예시>

- 밥 먹당 자리 바꾸지 말라  
(밥 먹다가 자리 바꾸지 말라)
- 밥 먹을 때 비질하지 말라  
(밥 먹을 때 빗질 하지 말라)
- 밥 먹으며 멍경 보지 말라  
(밥 먹으면서 거울 보지 말라)
- 밥상 앞의서 울지 말라  
(밥상 앞에서 울지 말라)
- 밥 먹었 곧 눕지 말라  
(밥 먹고 바로 눕지 말라)
- 어른한테 물 가져 갈 때 먼저 안 마신다  
(어른한테 물 가져 갈 때 먼저 안 마신다)
- 밥 먹을 때 입안 음식 보이지 말게 하라  
(밥 먹을 때 입안에 음식이 보이지 않게 하라)
- 밥사발엿 밥은 앞으로 차근차근 먹어야 한다  
(밥사발에 밥은 앞으로 차근차근 먹어야 한다)

식사 관련 금기어들을 살펴보면 대체로 지금의 식사 예절과 많은 부분이 비슷하다. 창천리 금기담에서도 볼 수 있듯이, 식사 시 입안의 음식을 보이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나 밥 먹고 바로 눕는 행동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점 등은 지금도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식사 예절이다. 밥을 먹을 때는 먹는 것에 집중을 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먹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중간에 자리를 이동하거나 거울을 보며 머리를 빗는 행위는 청결해야 할 음식 앞에서 위생적이지 못한 행동일 뿐만 아니라 같이 식사를 하는 다른 사람에게도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행동이다.

80) 최래옥, 앞의 논문, 2000. 58쪽.

81) 허재영, 앞의 책, 2000, 85쪽.

### (3) 말

사회생활이나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말’이다.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거나 화를 내거나 큰일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평소 말을 조심하는 것에 대한 경계와 주의는 ‘못할 말하면 벼 낱에 벼락 맞나(못할 말하면 별 낱에 벼락 맞는다)’, ‘못할 말하면 지 즈손에 양얼 간다(못할 말하면 제 자손에 재앙이 간다)’, ‘빈말은 식은 밥병덩이만도 못하다(빈말은 식은 밥덩어리만도 못하다)’, ‘빈말은 식은 죽만도 못하다(빈말은 식은 죽만도 못하다)’ 등 속담에도 많이 전해진다. ‘못할 말’이란 것은 남을 모함하거나 누명을 씌워 궁지에 몰아넣는 악의에 찬 조작된 험담을 말한다.<sup>82)</sup> 그럴 경우 대낮에 날벼락을 맞거나 그 죄가 자손대에까지 미칠 만큼 아주 위험하고 잘못된 행동임을 말하며 실속 없는 빈말, 공허한 말에 대해서도 경계하여 꼬집고 있다.

<금기어 예시>

- 놈신도 공흔 말하면 이녁 앞데레 그 곳인 말이 돌아온다  
(남에게 악담을 하면 자기 앞에 그 곳은 말이 돌아온다)
- 놈의 즈식 송보민 이녁 즈식도 경흔 즈식을 난다  
(남의 자식 홍보면 자신도 것처럼 모자란 자식을 두게 된다)
- 놈을 나무래민 죽어가민 피우는 지름통에 들어간다  
(남을 무시하면 죽어서 끓는 기름통에 들어간다)

금기어에도 남에게 했던 악담이 그대로 자신에게 돌아온다고 경고한다. 악담을 많이 하면 자기 앞길이 맑지 못하고 죄의 대가를 치른다고 믿었다. 그것은 죽어서도 끓는 기름통에 들어가는 엄청난 대가가 기다리고 있는 일인 만큼 남에게 말을 하는데 있어서 예의를 갖추고 조심할 것을 강조한다. 반면 창천리 금기담에는 ‘좋은 말만 하지 말라(말 좋은 집의 장 고린다)’라는 금기어가 있다. 이는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경계해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말이란 속성이 누군가를 칭찬하는 것 또한 너무 과하면 썩은 내가 나는 것처럼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븐 이브로 ㄱ랑 너븐 치맷까그로 못 막나(좁은 입으로 말해서 넓은 치맛자락으로 못 막는다)’, ‘공흔 말은 입으로 내청 코로 들어싸사 혼다(공연한 말은 입

82) 고재환, 『제주속담사전』, 민속원, 2002, 175쪽.

으로 내쳐서 코로 들이켜야 한다)’는 속담에서도 볼 수 있듯이, 말은 신중함과 책임감이 뒤따른다. 쓸데없는 공연한 말을 해서 물의를 일으켜 화근을 만드는 경우가 있기에, 입으로 뱉은 그 말을 다시 자신의 콧속으로 넣어야 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한다. 이렇듯 인간생활에서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다시금 강조하고 있다.

금기어는 생활 속에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윤리적, 도덕적 교육을 위해 상황이나 때에 맞는 예의를 가르치는 역할을 한다. 아침이나 저녁 등 하루에 정해진 시간에 맞는 행동과 지침을 전하며 타인과 함께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 도리를 알려주고, 인간의 삶에서 중요한 일과 중 하나인 식사 시에 주의해야 할 예절이나 태도 등을 전하기도 한다. 또한 원만한 인간관계에 있어 항상 조심하고 주의해야 하는 ‘말’에 대한 경고와 당부를 통해 상대에 대한 배려와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준다.

### 3) 보건·위생

인류는 질병으로부터 끊임없는 위협을 받고 있다. 질병은 늘 인류에게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사회적으로도 아주 심각한 문제임에 따라 그것을 먼저 예방하고 피하는 일이 중요했다. 보건·위생과 관련한 금기어를 살펴보면 비위생적인 환경이나 습관, 행동 등 건강에 유의하며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정보와 지혜를 담고 있다.

#### (1) 건강 및 위생

금기어에는 건강을 지키기 위해 미리 음식물을 조심하거나 비위생적인 환경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한다. 이는 죽음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랜 경험과 희생을 통해 축적된 중요한 정보였다. 건강을 지키는 것은 음식을 먹는 것뿐만 아니라 먹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위험까지도 경계해야 했다.

<금기어 예시>

○유월 탈 탕 먹지 말라

(유월 딸기 따먹지 말라)

○개염이탈 탕 먹을 땐 “아여 머리여, 아여 대강이여”호영 먹어서 혼다

- (개미딸기 따서 먹을 때는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대강이야”하면서 먹어야 한다)
- 깡이 등창에 생청 피왕 먹으면 죽나  
(게 등덜미에 꿀을 끓여 먹으면 죽는다)
- 음식을 싱겁게 먹는 사람은 몸에 털이 돋는다  
(음식을 싱겁게 먹는 사람은 몸에 털이 돋는다)
- 낮이 한 음식 밤이 먹음은 좋곡, 밤이 한 음식 낮이 먹음은 나쁘다  
(낮에 한 음식을 밤에 먹는 것은 괜찮으나, 밤에 만든 음식을 낮에 먹는 것은 좋지 않다)
- 땅에 떨어진 거 봉강 먹으면 땅할으방 된다  
(땅바닥에 떨어질 것을 주워 먹으면 땅할아비가 된다)

<창천리 금기담 예시>

- 깡이 떡곡 사탕 먹으면 죽나  
(게 먹고 사탕 먹으면 죽는다)
- 깡이호곡 청 ㄴ찌 먹으면 죽나  
(게하고 청 같이 먹으면 죽는다)
- 가지 놀채 먹지 말라  
(가지 생채로 먹으면 이가 삭는다)
- 늬 빼영 술 먹지 말라  
(이 빼고 술 먹지 말라)

‘탈’은 제주어로 (들)딸기를 말하는데, 고지한탈(산딸기), 개미여탈(뱀딸기), 밀탈, 보리탈, 콩탈, 한탈, 함박탈 등 종류가 많다. 6월경 밭 사이에 쌓은 돌담에 검붉게 익어서 맛이 매우 좋음<sup>83)</sup>에도 딸기를 따먹지 말라는 금기어가 전해지는 이유는 그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안전 문제에 대한 경고로 보인다. 잡초나 풀이 많은 곳에 뱀이 많은데, 지금도 여름철 제주에서는 뱀 물림 사고가 제법 발생한다.<sup>84)</sup> 이에 혹여 맛이 좋은 딸기를 따먹다가 뱀에 물리는 사고를 당할 수 있음을 경계하는 금기어로 보인다.

음식의 궁합 또한 중요했다. 상극의 음식을 같이 먹었을 때 오히려 독이 되는 작용을 하는데, 특히 게와 꿀, 사탕 등을 같이 먹지 말라는 금기어가 있다. 이는 게와 감의 궁합이 상극이라는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16세기 명나라 이시진이 펴

83) 김봉오, 앞의 책, 2014, 234쪽.

84) 이효형, 뱀 물림 사고 잇따라.. 주의 요구, jibs, 2022.08.22.,  
<http://www.jibs.co.kr/news/replay/viewNewsReplayDetail/2022082221064678773?feed=na>.

낸 약학서 <본초강목本草綱目>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 게와 감 두 가지 모두 기운이 차갑기 때문에 함께 먹으면 복통을 일으키고 설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전해진다.<sup>85)</sup> 요즘처럼 냉장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상하기 쉬운 계장을 먹고 배탈이 나는 경우가 있으며, 감은 탄닌이라는 떫은 성질이 있어 다른 음식과 조화를 이루는데 어렵다.<sup>86)</sup> 또한 게와 감은 같은 제철음식으로 동시에 먹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상한 게를 먹고 난 이후 우연찮게 곧바로 감을 먹었던 사람들을 실제 관찰한 결과를 전한 것으로 보인다. 가지를 생으로 먹지 말라는 금기어는 가지에 솔라닌이라는 독성이 함유되어 있어 날것으로 먹으면 좋지 않고 맛도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금기어 예시>

- 젖은 옷 입으면 균팡입나  
(젖은 옷 입으면 누명 쓴다)
- 애기옷이나 지성궤 밤이 밖이 널어 이실 마치민 그 애기에 존쟁이 한다  
(아기옷이나 지저귀를 밤에 밖에 널어서 이슬을 맞으면 그 아기가 잔병이 많다)
- 손엿 물은 개우티도 안뿌린다  
(손에 물은 개한테도 안 뿌린다)
- 시숫물을 놈광 곶이 씨민 싸옴한다  
(세숫물을 남과 같이 쓰면 싸옴한다)

‘오뉴월엔 아진 방식도 못 고쳐 안나(오뉴월에는 앉은 자리도 못 옮겨 앉는다)’는 말처럼 계절적으로 더위가 심하고 습한 시기에 각별히 위생에 신경써야했다. 이때 물건을 옮기며 이사하는 것은 여러 가지 감염을 비롯하여 위생적으로 좋지 않았다. 따뜻하고 습한 환경에서 세균 등 미생물들의 번식이 쉬워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었다. 이때 마르지 않고 축축이 젖은 옷을 입는 것은 건강이나 위생적으로도 좋지 않으며 밤에 빨래를 너는 것 또한 해서는 안 될 행동이었다. 낮 동안 햇볕에 바짝 말라야 하는 빨래를 해가 지고 난 밤에 널면 이슬로 인해 다시 습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물에 젖은 손을 터는 행동은 개한테도 하지 말아야 할 정도로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일이었으며, 세숫물 또한 가족끼리라도 같이 쓰지 않도록 했다.

85) 한동하, [한동하의 식의보감] 계장과 감은 상극? 경중은 과연 ‘계장과 감’ 때문에 죽었을까, 헬스경향, 2021.12.06, <http://www.k-health.com/news/articleView.html?idxno=56871>.

86) 최래옥·최운식, 「민간속신어에 보이는 한국인의 자연관」, 『비교민속학』 21, 비교민속학회, 2001, 70쪽.

<금기어 예시>

- 떡 치당 통시에 강 오민 부정탄다  
(떡 찌다가 변소에 갔다 오면 부정탄다)
- 칫간에 가 온 낭 못짓나  
(변소에 갔다 온 나무는 못댄다)
- 칫간 튼은 돌은 한간 냉기지 말라  
(변소 튼은 돌을 상방을 넘기지 말라)
- 동관호영 나갈 때 관이 조왕을 비추민 늦다  
(동관하고 나갈 때 관이 조왕을 비추면 나쁘다)
- 장발디 밥호레 간 솟이 영장 비추민 벌러진다  
(장사지내는 밭에 밥하러 가져간 솟이 시신을 비추면 깨진다)

특정 장소나 상황에 따른 위생도 중요했다. 부엌과 화장실 두 공간의 거리를 강조하는 금기는 음식을 만드는 곳과 변을 보는 곳은 마땅히 구분 지어야 함을 말해준다. 무속 신앙에서도 공간마다 신의 좌정하는 영역의 구분이 중요한데, 특히 부엌의 조왕신과 변소의 측간신의 사이가 좋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믿었다.<sup>87)</sup> 위생적인 측면에서도 두 공간은 마주보거나 가까이 있으면 좋지 않고 그곳에서 사용하는 물건 또한 함부로 섞이지 않도록 주의를 주었다.

## (2) 병

금기어에는 어떠한 질환이나 감염병 등 병과 관련하여 생활 속에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을 피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금기어 예시>

- 자귀낭 아래 즘을 자민 초학뺑에 걸린다  
(자귀나무 아래 잠을 자면 말라리아에 걸린다)
- 으름에 너미 즘을 장 즘뺑에 걸리민 그 사름 살기 어렵다  
(여름에 낮잠을 많이 자면 병에 걸린다)
- 본지낭근 불 아니 뎨다  
(노박덩굴로 불 때면 피부병 번진다)
- 약을 두 사름이 혼디 사당 먹지 아니혼다  
(약을 두 사람이 같이 먹지 않는다)

87) 조왕신 여산부인과 측간신 노일체대귀일의 딸은 처첩관계로, 부엌과 변소는 마주보면 좋지 않고 멀어야 좋다고 한다. 변소의 것은 돌 하나, 나무 하나라도 부엌으로 가져오면 좋지 않다고 여겼는데, 이는 부엌과 변소를 가급적 멀리 두려는 옛 사람들의 상식과 믿음이라 할 수 있다. (허남춘, 앞의 논문, 2021, 13쪽.)

자귀나무는 자귀낭(잡귀낭)이라 하여 집안에 심지 않는 금기목(禁忌木)중 하나였다. 자귀낭(잡귀낭)은 귀신이 깃든 나무라 하여 사람들이 꺼려서 멀리하기도 했는데, ‘자귀낭(잡귀낭)’이란 어원은 잡귀라는 말에서 왔다고 한다. 잡귀는 대개 나쁜 해를 끼친다는 점에서 사귀(邪鬼)로도 불리고 여러 신들 중에서 악신(惡神)에 속한다. 옛사람들은 아이들이 자귀나무(잡귀낭) 그늘에 누웠다가 학질에 걸린다고 생각했다<sup>88)</sup>. 학질을 ‘터는빙(떠는빙)’, ‘날걸리’, ‘학질’, ‘물 먹는 뺑’이라고 했는데, 이는 자귀나무 그늘이 짙어 그 그늘에서 잠들면 모기가 물어도 모를 만큼 시원하기 때문에 모기에 물리는 것을 막기 위해 자귀낭 그늘에서 낮잠을 자지 말라는 이야기를 전한다. 낮잠은 나태함을 상징하는 것으로, 여름에 덥다고 일을 쉬어 느긋이 잠을 자는 것을 경계하는 말이다. 활발히 신체 활동을 해야 하는 낮 시간에 그렇지 않고 잠을 많이 자는 것은 건강에 이상이 있을 수 있음을 경고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노박덩굴로 불을 때게 되면 불 났을 때 사람의 몸에 움같은 피부병이 번지게 된다는 말이 있다. 제주어로 노박덩굴을 ‘본지방’이라고 하는데, ‘본치’는 상처 또는 부스럼 따위가 아문 뒤의 그 흔적을 뜻한다. 본지방으로 불을 때지 말라는 금기는 노박덩굴을 태운 연기를 쬐면 본치가 올랐던 경험을 담아 주의를 주려는 의도로 보인다. 또 약을 같이 먹지 말라는 금기어는 아픈 사람을 위해 꼭 필요한 약을 탐내지 못하도록 하는 경계의 말이다.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적정량의 약이 필요한데 나누어 먹음으로써 약효가 부족하게 되어 치료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보건·위생적인 측면에서 금기어를 정리하면 대체로 미신적인 습속이나 민간요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과학적인 합리성과 오랜 경험을 통해 축적된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다. 특정한 음식이나 상황에 대해 조심할 것을 알려주고 비위생적인 환경 및 습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및 질병에 대해 전하며 인간의 삶에서 최소한의 안전선의 역할을 하고 있다.

88) 김평일, [제주의 들꽃] 집안에 심지 않는 금기목(禁忌木)..자귀나무, 제주환경일보, 2022.02.07, <http://www.newsje.com/news/articleView.html?idxno=250977>.



#### 4) 살림

##### (1) 도구 사용

금기어의 종류를 살펴보면 일상생활과 관련한 금기어가 가장 많은데, 이는 기본 생활을 살아감에 있어 하루하루 모든 행동과 태도에 조심하는 마음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사람이 매일 사용하는 여러 가지 필수품 등 생활 도구를 사용하는데 있어 유의할 점을 알려주는 금기어들이 많다. 물건은 제각각 쓰임이 있음에 따라 그 물건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혹여 물건의 제 구실을 할 수 없는 경우를 경계하고 도구 사용에 있어 위험한 부분을 알려준다.

###### <금기어 예시>

- ㄴ래 우티 앓지 안흔다  
(맷돌 위에 앓지 않는다)
- 안반을 깔앙 아지민 이질 걸린다  
(다듬잇돌을 깔고 앓으면 이질 걸린다)
- 솔덕 우티 앓지 아니흔다  
(솔을 엮어 놓은 돌 위에 앓지 않는다)

곡식을 가는데 쓰는 기구인 맷돌이나 깨끗이 세탁한 옷을 다듬이질을 할 때 쓰는 다듬잇돌, 음식을 만드는 솔을 엮어 놓는 돌 위에 불결한 엉덩이를 깔고 앓는 행위는 병에 걸리거나 신이 노여워할 행동으로 보았다. 이는 모두 정결함이 중요한 도구임에 따라 그것을 사용하지 않을 때에도 청결함과 위생에 신경을 써서 관리해야 했다.

###### <금기어 예시>

- 밤이 베개를 세우민 도둑이 든다  
(밤에 베개를 세우면 도둑이 든다)
- 방 빗츄록은 안 세운다  
(방을 쓰는 빗자루는 세우지 않는다)
- 빗차락(또는 빗처록)으로 사람 따리민 북 털어진다  
(빗자루로 사람을 때리면 북 털어난다)
- 방 안에서 우산을 패우지 아니흔다  
(방 안에서는 우산을 펴지 않는다)
- 체나 푸는체는 머리우티 안 썬다  
(체나 키는 머리 위에 안 쓴다)

베개의 경우 높은 자리에 가지런히 놓고 써야하지만 이것을 깔고 앉거나 세워 두면 안 되는 행동이었다. 밤에 휴식을 취하도록 뉘어두는 물건인데 정반대로 세워두었으니 베개의 구실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우리 몸 중에서 가장 신성하고 중요한 머리가 닿는 곳인 베개를 깔고 앉거나 세우는 것은 상식의 이탈, 가치의 전도, 휴식 못함, 질서 파괴를 뜻한다<sup>89)</sup>고 보았다. 빗자루도 비슷한 의도에서 세워두는 것을 금했다. 빗자루는 먼지나 쓰레기를 쓸어내는 기구인데, 그것을 세워두면 꼬트머리가 구부러지기 때문에 먼지를 잘 쓸어내지 못하는 것을 경계했다. 우산 역시 햇볕이나 빗물을 가리는 도구인데, 외부 환경에 따라 바깥에서 사용해야할 우산을 방 안에서 펴는 행위에 대해 주의를 준다. 체와 키 역시 가루를 곱게 치거나 곡식의 티끌을 골라내는 도구로, 머리 위에 쓴다는 것은 불결한 행동이자 혹여 도구를 망가트릴 수 있어 함부로 다루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금기어 예시>

- 빈 막개질흐민 집안이 불편하다  
(빈 방망이질을 하면 집안이 불편하다)
- 빈 방앤 짓치 아니한다  
(빈 방아는 찢지 않는다)
- 빈 ㄱ래질흐민 죽굴뎃 할망 귀 막나  
(빈 맷돌질을 하면 곁에 앉아 있던 할머니가 귀를 막는다)
- 밥겨릴 때 우금으로 솔천을 털지 아니한다  
(밥 떠낼 때 주걱으로 솔 언저리를 툭툭 치지 아니한다)
- 밥 거려놓왕 우금 재게 굶으민 큰 딸 안 된다  
(밥을 뜰 때 밥주걱을 빨리 굶지 말라)

집안에서 도구를 사용할 때 그 소음에 대해서도 주의를 주고 있다. 빨래할 때 옷감 없이 방망이질을 하거나 곡식 없이 방아를 찢거나 맷돌을 돌릴 때, 그 소음은 귀가 어두운 할머니도 귀를 막을 정도로 역겹고 크다. 빈 방망이질이나 빈 방아질 모두 아무것도 없이 부딪치는 소리가 요란스러워 듣기에도 거북하고 도구를 망가뜨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집안 살림의 중요한 도구를 무지하게 잘못 사용함을 훈계한다. 밥을 뜰 때 주걱 사용도 조심해야 했는데, 성급히 굶거나 솔 언

89) 최래옥, 앞의 논문, 1985, 130~131쪽.

저리를 툭툭 치는 행위 또한 그 소리가 요란스럽고 도구를 상하게 하는 행동으로 조심하도록 했다.

<금기어 예시>

- 다루에를 주곡 말으곡 흐민 그 사름찌리 싸웁난다  
(다리미를 주고 받고 하면 그 사람들 간에 싸움이 난다)
- 다루엿불에 담배 붙이지 말라  
(다리미 불에 담뱃불을 붙이지 말라)
- 소두경광 시린 주곡 말으곡 흐민 소도리난다  
(술뚜경과 시루는 주고 받고 하면 싸웁난다)
- 소두경 우티 우금 올려 놓민 손해 본다  
(술뚜경 위에 밥주걱을 올려 놓으면 손해를 보게 된다)

도구를 사용함에 있어 위험한 일을 알려주는 역할도 하고 있다. 집집마다 바느질에 사용되는 가위·자·인두·인두판·다리미 등은 갖추지 못해서 필요할 때 빌려다가 사용했다. 옷을 다리는 다리미는 둥글고 넓적한 모양이며 솥을 담아 쪄기 때문에<sup>90)</sup> 그것을 사용하거나 주고받는 과정에서 손을 델 수 있는 위험이 있었다. 특히 다른 이에게 전달할 때는 바닥에 놓고 열을 식힌 후에 전달해야지 직접 손에서 손으로 주고받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이었다. 술뚜경과 시루 또한 사용 시 뜨거운 물건이자 주고받는 과정에서 깨트릴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다. 뜨거워졌을 때 솥을 열거나 시루를 옮겨 놓는 일이 생기는데, 이럴 경우 뜨거운 것을 모르던 다른 사람이 덩석 잡았다가 잘못하여 떨어뜨리거나 화상을 입을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금기어는 세세한 살림 도구의 사용 등 생활필수품을 다루는데 있어서도 주의해야 할 내용을 담고 있다. 작은 생활 도구 하나라도 잘못 사용할 경우에는 화를 입을 수 있음을 경계하고, 그 용도에 맞게 제대로 쓰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함을 전한다. 또한 집안 생활 및 살림에 있어서 항상 청결하고 소중하게 물건을 다루도록 하는 기본적인 생활 지침과 태도를 교육하는 역할을 한다.

---

90) 고부자, 앞의 책, 1996, 82쪽.

## (2) 생활 태도

금기어에는 생계나 살림을 꾸려 나감에 있어 성실하고 알뜰한 살림 태도를 강조한다. 척박하고 열악한 물리적 조건<sup>91)</sup>에서도 노력하고 땀을 흘린 만큼 결실이 따라온다고 믿으며 밭일과 바다일 모두 온힘을 다하고자 했다.

<금기어 예시>

- 검질 매여냥 굴갱이 씻이민 검질 짓나  
(김맨 후 호미 씻으면 밭에 김이 무성한다)
- 밭디선 니 아니 잡나  
(밭에서는 이를 잡지 않는다)
- 되광 말광 푸는첸 옹으지 아니훈다  
(되와 말과 키는 옹어 놓지 않는다)

‘굴갱잇즈룩 심을 중 알아사 살림이 노고록훈다(호미자루 잡을 줄 알아야 살림이 넉넉하다)’란 속담은 호미를 자유자재로 다루면서 김을 맬 줄 알아야 살림이 좋다는 말이다. 제주의 기후는 여름에 강수량이 많고 여름 내내 무덥다. 이러한 기후 조건 때문에 전작 풍토의 제주도 농경은 잡초와의 싸움이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sup>92)</sup> 즉 호미를 수저처럼 가까이 두고 밭일을 할 줄 알아야 생계가 해결이 된다는 것이다. 호미를 씻는 행위도 조심해야 했다. 농기구를 씻는 것은 일을 끝낸다는 의미로, 이제 더 이상 할 일이 없다<sup>93)</sup>고 여겨 바빠 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매우 언짢은 일로 보았다. 밭에서 이를 잡는 한가한 행동을 하거나 곡물을 마련하는 기물을 옹어 놓게 되는 상황도 게으름을 경계하는 말이라 할 수 있다. 제주의 농촌 생활에서 밭일은 쉬지 않고 돌아간다. 계절적으로 온난하여 작물 하나가 끝나면 또 다른 작물을 재배할 수 있기에 ‘정월 초하를 날도 오즘허벅 정 밭드레 간다(정월 초하룻날도 오즘허벅 지고 밭에 간다)’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겨울에도 제대로 쉴 수 없었다. 명절인 설날에는 아무리 할 일이 많고 바빠도 일손을 놓고 쉬는 것이 상례이지만 거름을 줄 오즘허벅<sup>94)</sup>을 지고 나설

91) 제주도는 돌섬이기 때문에 기름진 농토가 없어서 주로 밭농사를 해야 했으며, 육지와와의 교통이 불편하여 섬 안에서 생산되는 식생활 재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풍랑 때문에 뱃길이 오랫동안 끊기거나 흉년이 들거나 하면 식량 사정은 매우 악화되어 고구마 줄기, 너패, 무릇 같은 것으로 목숨을 이어갔다. (김봉오, 앞의 책, 2014, 222쪽)

92) 고팡민, 『제주도의 생산기술과 민속』, 대원사, 2004, 54~55쪽.

93) 허재영, 앞의 책, 2000, 141쪽.

만큼 수확이 줄어들 것을 걱정하기도 했다. 바다일의 경우에도 이와 마찬가지로였다. ‘잠녀 애기 낳 사을이민 물에 든다(잠녀는 아기 낳고 사흘이면 물에 든다)’, ‘잠녀 애긴 사을이민 골체에 녹져 똥 물질한다(잠녀 아기는 사흘이면 삼태기에 눕혀 두고 물질한다)’는 속담에서 볼 수 있듯이, 출산 후에 몸조리를 할 여유도 없을 만큼 생계 해결이 어려웠기에 해녀들은 몸 회복이 되기도 전에 물질을 나갔다.

<금기어 예시>

- 정월 초하를날부터 보름날까진 그래 방애 아니한다  
(정월 초하루날부터 보름까지 멧돌, 방아질 안한다)
- 정월 초하를날 물허벅 지민 등 오그라진다  
(정월 초하루날 물허벅을 지면 등이 구부러진다)
- 멧질날에 일하민 죽을 때 헛손 맨다  
(멧질날에 일하민 죽을 때 헛손질을 한다)
- 영등에 곡숙밭디 검질 매민 굽뎡이 꺾다  
(영등달에 곡식밭에 김을 매면 굽뎡이가 생긴다)
- 영등에 스답하영 널지 아니한다  
(영등에 빨래해서 널지 않는다)

<창천리 금기담 예시>

- 정월 멧질날 물지지 말라  
(정월 멧질날 물허벅 지지 말라)
- 멧질날 바느질 말라  
(멧질날 바느질 하지 말라)
- 정월 보름날 그래뎡이도 하지 말곡 풀칠도 하지 말라  
(정월 보름날 멧돌질도 하지 말고 풀칠도 하지 말라)

반면 금기어에는 생계를 잇기 위해 부지런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 년 내내 쉬지 않고 일만 하는 삶 또한 경계해야 할 태도라 말한다. 금기어 가운데 휴식을 권하는 것이 있는데, 이러한 말들은 ‘놀 때 놀고, 일할 때 일해라’는 식의

---

94) 오즘은 모든 작물, 특히 고구마 모종이나 보리밭의 웃거름으로 많이 쓰였다. 오즘을 참기름만 큼이나 소중히 여겼다는 행원 마을 강씨(여·1926년생)의 경험담에 의하면, 음력 정월이 되면 보리싹이 나서 푸릇푸릇해지는데 그때 오즘을 쳐다가 오즘거름을 주었다고 한다. 오즘거름을 먹은 보릿대는 검푸른 빛을 내고 일취월장 격이라 했다. 오즘이 그렇게 많이 만들어지는게 아니라서 어디 놀러 갔다가도 집에 와서야 오즘을 누었다고 할 정도로 소중히 했다. (고광민, 앞의 책, 2004, 53~54쪽.)

표현으로 대부분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 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전한다. 곧 쉬면서 노는 것도 일을 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뜻이다.<sup>95)</sup> 농·어촌에서 가장 한가한 때가 바로 정월 초승의 시기이다. 정초의 노는 시간으로 보통 보름까지로 잡을 수 있는데<sup>96)</sup>, 이 동안에 일이나 바느질, 빨래를 하지 말라는 금기가 있다. 계절에 따라 바쁘게 일을 해야 할 때가 있는가 하면 자연의 흐름에 따라 사람의 몸과 마음도 쉬어가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한 해의 시작을 앞두고 정월이나 영등달에 휴식을 강조하는데, 명절이나 영등굿을 정성껏 준비하며 신을 맞이하고 함께 어울려 즐겁게 놀기<sup>97)</sup>를 권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일과 휴식의 리듬을 맞추는 것이 삶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을 전한다.

금기어는 생활 태도에 관한 인생 지침을 담고 있다. 부지런히 일함과 동시에 제대로 잘 쉬는 것을 강조하는데, 아무리 먹고 살기 힘든 상황에 놓였다 할지라도 인간은 결국 자연의 순리에 따라야 한다는 이치를 가르친다. 일 년 영농 주기에 따라 부지런히 바쁘게 일하는 농번기가 있고 잠시 일손을 놓고 쉬어가는 농한기가 있듯이, 겨울이나 이른 봄에는 수확한 결실에 대한 감사함을 되새기며 놀이를 통해 노동의 고됨을 잊고 쉬를 통해 새로운 봄을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삶의 균형에 대해 이야기한다.

95) 허재영, 앞의 책, 2000, 155쪽.

96) 진성기, 앞의 책, 1997, 85쪽.

97) 영등굿은 음력 2월 1일에 입도하여 15일에 나가는 영등신을 위한 당굿으로, 영등신은 이 기간 동안 주변 바다의 소라·전복·미역 등 해녀 채취물을 증식시켜 주며 또 어로 일반까지 보호하여 준다고 믿었다. (현용준, 「민간신앙편-마을신앙」, 『제주의 민속』 V, 1998, 72쪽) <영등굿놀이>는 《동국여지승람》이나 《동국세시기》 등에는 ‘영등굿’ 또는 ‘약마희(躍馬戲)’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제주도 2월달 풍속으로 유명하게 취급되어 온 행사이다. 그 기록에 의하면 2월 초하루에 귀덕·김녕 등지에서는 나뭇대 열 둘을 세우고 신을 맞이하여 제사를 지냈다. 애월에 사는 사람들은 때 모양을 말머리와 같이 하여 비단으로 꾸미고 때물이놀이를 하여 신을 즐겁게 했다. 보름에 이르러 이를 끝맺는데 이를 ‘영등’이라 했다. (이기형·현춘식, 「전승연회편」, 『제주의 민속』 I, 제주도, 1993, 451쪽.) 이 놀이가 신을 즐겁게 하면, 신이 인간에게 풍요를 준다고 믿었는데, 함께 영등굿을 치루면서 한 해의 풍년과 풍어를 기원하는 동시에 마을 주민의 유대를 강화하고 공동체의식을 공고히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허남춘, 「제주도 약마희 신고찰」, 『구비문학연구』 제54집, 한국구비문학학회, 2019.)

## 2. 자연관

인간 문화 발달의 초기에는 자연 현상이나, 천재지변의 징후가 과학적으로 해명될 수 없었다. 과학적이고 논리적 근거가 아직 통용되고 정착되지 못한 상태에서 인간의 인식이 자연현상에 대해 적절한 해답을 내릴 수 없을 때 의존하는 것은 경험의 축적에 의한 심리·문화적 해석이었다.<sup>98)</sup> 이런 단계에서 자연에 대한 인간 해석의 하나가 바로 속신일 수 있다. 속신은 자연현상, 자연 사물 또는 인간 및 사회의 어떤 징표를 기호로 삼아 그것을 의미화하는 작용에서 비롯된다.

### 1) 모든 자연물을 존중하는 생태학적 윤리관

자연은 무생물이든 생물이든 간에 사람과 같은 희로애락이라는 감정이 있고 선악이라는 윤리관도 있다. 예를 들면 산은 그저 해발 얼마인 흙과 바위와 나무와 물이 엉켜진 무생물이라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기뻐하고 화내고 칭찬받고 벌을 주는 등 인격 같은 것이 있다는 말이다.<sup>99)</sup> 금기어에는 자연물의 생명성과 존립권을 인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동식물은 물론 무생물까지 그 고유성을 인정하고 본디 그 자리에서 자신의 생존권을 누릴 수 있는 것<sup>100)</sup>으로 보았다. 때문에 자연물을 함부로 다루거나 해코지하면 벌을 받게 된다고 여겼다.

<금기어 예시>

- 외밭디서 송까락질흐민 외가 다 떨어진다  
(오이 밭에서 오이를 가리키며 손가락질하면 오이가 다 떨어진다)
- ㄹ 동맨 호박에 송끄락질 흐민 떨어진다  
(열매를 갖 뺏은 호박에 손가락질을 하면 하면 떨어진다)
- 배염을 송끄락으로 ㄱ리치민 송끄락이 썩나  
(뱀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 손가락이 썩는다)
- 배염 따령 죽이민 생살죄에 걸령 그 사람은 죽는다  
(뱀 때려 죽이면 생살죄에 걸려서 그 사람은 죽는다)

98) 김경섭·김은주, 「한국 속신의 형성과정에 대한 기호학적 고찰」,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 Vol.4 No.3, 국제문화기술진흥원, 2018. 172쪽.

99) 최래욱·최운식, 「민간속신어에 보이는 한국인의 자연관」, 『비교민속학』 21, 비교민속학회, 2001, 42쪽.

100) 임재해·황루시, 「민속문화의 자연친화적 성격과 속신의 생태학적 교육 기능」, 『비교민속학』 21, 비교민속학회, 2001, 109쪽.

- 고냉이를 박대하면 그 고냉이가 배염 곶은 걸 물엉들엉 심술을 피운다  
(고양이를 박대하면 그 고양이가 뺨 같은 것을 물어와 심술을 피운다)
- 배경목낭그론 쇠 따리지 말라  
(버드나무로 소를 때리지 말라)
- 고냉이 죽이민 액운이 들어온다  
(고양이 죽으면 액운이 들어온다)
- 고냉이 죽은거 하늘 배우민 집안이 망한다  
(고양이 죽은거 하늘 보이면 집안이 망한다)

식물이든 동물이든 자연물을 대상으로 함부로 손가락질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손가락질은 상대를 알아보는 행위로, 비난하거나 무시할 때 사용한다. 손가락이 뽕죽하기 때문에 송곳이나 칼, 낫이나 창과 같아서 상대를 병들게 하고 죽이는 것<sup>101)</sup>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고 본 것이다. 자연에게 손가락질을 한다는 것은 그것의 존속을 부인하고 무시하는 행동이며 특히 신성한 의미의 열매나 신앙적인 의미를 지닌 뺨을 상대로 할 때는 더더욱 피해야 했다. 이는 자연을 확대하고 살생하는 일을 함부로 못하게 하려는 공동체의 가르침이었다. 아무런 이유 없이 동물을 함부로 죽이면 인과응보에 따라 자신도 죽거나 집안이 망하는 등 재앙이 뒤따른다고 생각했다.

<금기어 예시>

- 당쪽낭글 거실민 천벌을 받는다  
(신당의 나무를 건드리면 천벌을 받는다)
- 큰 낭 그칠 뎨 택일호영 그치지 아니호민 동티난다  
(큰 나무를 자를 때는 택일해서 자르지 않으면 동티난다)
- 과실낭근 불 아니 짓나  
(과일나무 불 때지 않는다)
- 유지낭근 불 아니 짓나  
(유자나무 불 때지 않는다)
- 버드낭을 불 지드민 그 집 아이 몸에 부시럼 난다  
(버드나무로 불 때면 그 집 아이 몸에 부스럼 난다)
- 호박줄로 불습으민 아으덜 머리에 부스럼지 난다  
(호박줄로 불 때면 아이들 머리에 부스럼 난다)
- 마농불훤 솔강앙에 지드민 허멸난다

101) 최래욱·최운식, 앞의 논문, 2001, 45쪽



- (마늘뿌리를 아궁이에 때면 부스럼 난다)
- 밀낭그로 불습으면 묵은 비리가 도진다
- (밀짚으로 불을 때면 묵은 움이 도진다)

큰 나무 역시 마찬가지였다. 함부로 나무를 베는 사람은 죽음을 면치 못했다. 고목은 사람보다 오래 살아서 연조로 보면 형제(父兄)이자 조상(祖上)이다. 그 동네를 지킴으로 보면 수호자이므로 자연히 수호신 성격을 띤다. 고목에는 木神이 살기도 하고 고목은 당산 제사를 바치는 신격이기도 하다.<sup>102)</sup> 신성하고 소중한 고목을 베는 사람은 천벌을 받거나 빨리 죽는다는 믿음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고목과 신목<sup>103)</sup>을 베지 못하게 했고,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당 나무를 지키고 상호 감시하는 체제를 형성하도록 만들었다.<sup>104)</sup> 나무에 불을 때면 안 된다는 것 또한 나무의 생명력을 빼앗는 일로 경계해야 하는 일이었다. 나무는 인간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자연물로, 연료 등 여러 목적으로 사용되어 오지만 단순한 생명이 아니라 자라나는 생명으로 인식해 함부로 꺾는다거나 베거나 불을 때는 것을 금기<sup>105)</sup>했다.

<금기어 예시>

- 중상이 새끼난 때 상제가 출입하면 부정탄다  
(가축이 새끼를 낳았을 때 상주가 출입하면 부정탄다)
- 도새기 새끼 나기 사흘 전이 짓주면 새끼 낭 돈딱 죽여분다  
(돼지 새끼 낳기 사흘 전에 보릿짚 따위를 집속에 넣어주면 새끼 낳아 모두 죽여 버린다)
- 텃개 새끼 낳 때 사람이 보면 송보양 에미가 새끼 잡아먹는다  
(토끼 새끼 낳을 때 사람이 보면 흥보아서 어미가 새끼를 잡아먹는다)

<창천리>

- 도새기 새끼 난 때 상제 출입하지 말라  
(돼지 새끼 낳 때 상주 출입하지 말라)
- 도새기 새끼 난디 입싱거운 소리 하지 말라  
(돼지 새끼 낳 때 싱거운 말 하지 말라)

102) 최래욱·최운식, 앞의 논문, 2001, 44쪽.

103) 당에는 ‘폭낭’ 또는 ‘검폭낭’이라는 오래된 고목이 있는데, 이 신당의 나무는 당나무 또는 신목이며, 신의 내리는 길, 신이 머무는 곳, 또는 신 자체로 생각했다. (문무병, 앞의 책, 1998, 31쪽)

104) 임재해·황루시, 「민속문화의 자연친화적 성격과 속신의 생태학적 교육 기능」, 『비교민속학』 21, 비교민속학회, 2001, 110쪽.

105) 허재영, 앞의 책, 2000, 135쪽.

- 집의 빙애기 깨울 때 풀비지 말라  
(집에 병아리 알을 부화할 때 풀베지 말라)

생명을 해치는 일을 금하는 동시에 보호하도록 했다. 동물이 새끼를 낳는 일 또한 사람이 출산 하는 일처럼 중시했다. 사람과 마찬가지로 짐승도 새끼를 낳 때 가장 연약할 때라 병에 걸리거나 공격을 받기 쉽기 때문에 남의 도움이 절실하다<sup>106</sup>). 가축에게도 어미와 여러 마리 새끼 등 목숨 여럿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 일에 부정이 들지 않도록 금기가 존재했던 것이다. ‘도새기 새끼 난 때(또는 사흘 전이) 짓주민 송흠든다’는 말도 있는데, 이는 돼지새끼를 낳아 사흘 안에 보릿짚을 넣어 주면 좋지 않다는 뜻이다. 대개 돼지가 새끼를 낳게 되면 ‘도새기 새끼 낳 때 고짖소리 흐여불민 도새기 할망이 송보는 때문에 솓매여사 혼다’고 말하는데, 이는 새 생명의 탄생에 있어 어떠한 부정도 들지 않도록 금줄을 매야 한다는 말이다. 동물이 새로운 생명을 낳는 과정에서 어미와 새끼의 생명성과 존립권을 인정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금기어 예시>

- 중이궁기에 오줌 싸민 조쟁이가 붓나  
(취구멍에 소변을 보면 성기가 붓는다)
- 강이가 중이고망에 들민 집안 망혼다  
(개가 취구멍에 들어가면 집안 망혼다)
- 내창에 돌대끼민 저싱가민 머리격으로 그 돌을 다 건져내랭 혼다  
(하천에 돌 던지면 저승가면 머리털로 그 돌을 다 건져내라고 한다)
- 물레레 오줌싸민 저싱가민 그 물엿 오줌을 먼 길러내랭 혼다  
(우물에 오줌싸면 저승가서 그 물에 오줌을 모두 가려내라고 한다)
- 물통을 먼 매우민 모르기가 된다  
(우물을 다 매우면 병어리가 된다)
- 새 목간통을 맹글양 채얌이 몸굼은 사름은 맹이 째다  
(새 목욕탕을 만들어서 처음에 목욕을 한 사람은 명이 째다)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자연물의 영역에 인간이 함부로 침범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물에 돌을 던지고 오줌을 싸는 등 부정한 행동을 했을 경우, 그에 대한 벌을 받는다고 생각했으며 우물도 맘대로 매우지 말아야 했다. 심지어 새 목욕탕을

106) 최래욱·최운식, 앞의 논문, 2001, 48쪽.

만들어서 처음에 목욕을 한 사람은 명이 짧다는 말도 있다. 자연의 흐름대로 두지 않고 그 길을 막거나 새롭게 여는 등 자연의 영역을 맘대로 넘는 행위에 대해 경계하고 두려워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연관과 관련된 금기어는 동식물은 물론 무생물까지 그 고유성을 인정하며 모든 자연물의 생명권을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열매에 손가락질을 하는 행동 하나에서부터 함부로 나무를 베거나 동물을 살생하는 일 등을 금함으로써 자연의 고유성을 인정하고 본디 그 자리에서 자신의 생존권을 누릴 수 있도록 존중하려는 태도로 볼 수 있다. 이는 자연물을 소중히 여기고 신성시한 제주인의 자연관을 보여준다.

## 2) 자연과 인간의 상생적·공생적 세계관

금기어는 자연과 인간이 운명공동체임을 알려준다. 자연물과 사람의 흥망성쇠가 함께 한다는 공생적 세계관에 입각한 속신들이 여기에 속한다. 자연물이 죽거나 자연물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그 사람에게도 좋지 않은 일이 생기고 자연물이 잘 자라거나 좋은 일이 있으면 사람에게도 좋은 일이 생긴다는 믿음이 기초를 이루고 있다. 자연물과 사람의 생태를 유기적으로 일치시킴으로써 인간과 자연이 함께 살아가는 운명공동체임을 인식하도록 한다.<sup>107)</sup>

### <금기어 예시>

- 산잇내기 풍설에 문 실어지민 전장이 일어난다  
(산의 나무가 풍설에 모두 쓰러지면 전쟁이 일어난다)
- 산잇 돌이 문 몰아지꼭 낭기 문 썰어지민 시상이 개판된다  
(산의 돌이 모두 허물어지고 나무가 모두 쓰러지면 세상이 개판된다)
- 솔뽕 하영 죽은 해엔 좋지 못하다  
(솔봉오리가 많이 죽은 해에는 좋지 못하다)
- 해낮이 벨을 본 사람은 그 해에 죽는다<sup>108)</sup>  
(대낮에 별을 본 사람은 그 해에 죽는다)
- 검은 용이 하늘로 올라가민 그 해 사람이 하영 죽나  
(검은 용이 하늘로 올라가면 그 해 사람이 많이 죽는다)

107) 임재해·황루시, 앞의 논문, 2001, 115쪽.

108) <조선왕조실록>에도 대낮에 별을 본 경우를 상서롭지 못한 징조로 기록하고 있다. 조선 초기 130년 낯짓 동안의 여러 가지 재이(災異) 가운데 ‘낮에 보이는 별’이 1281회로 가장 많은 재이

자연과 인간의 삶을 동일시하는 사유를 볼 수 있다. 자연을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과 늘 연결되어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 산에 나무가 쓰러지거나 돌이 허물어지는 등 자연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이는 곧 생태학적으로도 자연의 조건이 악화되고 중요한 이변이 생겼다는 것을 말한다. 이런 상황에서 인간의 삶 또한 안전하게 지속될 수 없다. 따라서 소나무의 상태가 좋지 않은 일도 인간의 삶과 연결된 것으로 보았다. 솔봉오리가 죽는다는 것은 비가 안 와서 가물고 한기를 타서 소나무가 죽게 됨을 뜻한다. 즉 나무와 흙에 물기가 없다는 것은 인간도 그만큼 살기 좋지 않고 곤란을 겪을 수 있음에 따라 소나무와 인간의 생존이 일치된 것으로 생각했다. 자연현상을 그 자체로 보지 않고 다른 자연현상을 이해하거나 인간적인 삶의 미래를 일깨워주는 조짐으로 인식하는 유기적인 자연관과 공생적인 세계관을 포착할 수 있다. 이렇듯 모든 존재는 생명 공동체로서 서로 공생관계에 있다<sup>109)</sup>는 것이다.

<금기어 예시>

- 가마귀 굶이 울민 그 집은 손해본다  
(까마귀가 사납게 울면 그 집에 손해볼 일이 생긴다)
- 개 울민 영장난다  
(개가 울면 사람이 죽는다)
- 밤이 여히가 울민 늦다  
(밤에 여우가 울면 나쁘다)
- 쇠가 주둥이 돌령 우는 발레서 도둑이 든다  
(소가 주둥아리 돌려서 우는 방향에서 도둑이 든다)
- 소르기가 지붕 우티 왕 아지민 승시난다  
(솔개가 지붕 위에 와서 앉으면 흉사가 난다)
- 배염이 집안티 들어오랑 사름 눈에 뻘식흐민 늦다  
(뱀이 집안에 들어와서 사람 눈에 비추면 나쁘나)
- 배염이 집가지에 즈주 나댕기민 집안에 액운이 쏜나  
(뱀이 집 처마에 자주 나다니면 집안에 액운이 생긴다)
- 놈으깃 개가 집안테레 들어왕 죽으민 늦다  
(남의 집 개가 집안으로 돌아와서 죽으면 나쁘다)

---

로 기록되었는데, 조선조의 왕은 천지자연에 변괴가 생기면 이는 인간 사회에 부조화가 생길 조짐이라 여기고 근신하였다고 한다. (허남춘, 『황조가에서 청산별곡 너머』, 보고서, 2010, 345~346쪽.)

109) 임재해·황루시, 앞의 논문, 116쪽.

- 제비새이가 대들포 안에서 집짓엉 살당 죽으나 으흐스민 그 집은 망한다  
(제비가 대들보 안에서 집 지어 살다가 죽으나 새끼가 죽으면 그 집은 망한다)

동물이 울거나 집안에 들어오는 등 특정 행동을 하는 것도 인간의 삶과 무관한 일로 간주하지 않았다. 평소와 다른 동물의 어떠한 행위는 인간의 삶의 불행을 말하거나 벌을 주는 일이라 생각하며 주의 깊게 살폈던 것이다. 특히 귀찮고 징그러운 동물이라 할지라도 귀하게 여기고 받아들여야 했다. 집안에 온 것은 그 자체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더불어 잘 살아야 집안이 번성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반대로 집안에 들어 온 동물이 잘 살지 못하고 죽거나 나가는 것은 재앙으로 여겼다. 따라서 금기어를 통해 그러한 행동을 막고 모든 존재와 서로 돕고 더불어 사는 상생적인 관계에 대해 교육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금기어 예시>

- 가마귀 새끼가 시개민 송년이 든다  
(까마귀 새끼가 셋이면 흥년이 든다)
- 빙애기 앓정 반 이상 안 깨우민 그 집 그 해 용스가 아니 존나  
(병아리 품어서 절반 이상 부화되지 않으면 그 집 그 해 농사가 안 좋다)
- 바당에 구물 농왕 그 구물에 거북이 올라오민 삼년 머정엇나  
(바다에 그물을 놓아 그 그물에 거북이 올라오면 삼년 재수없다)
- 저실에 바당에 땀 하영 들민 사름 하영 죽은다  
(겨울에 바다에 멀치 많이 들면 사람 많이 죽는다)
- 혼 통에서 물꾸럭 시겔 심으민 그 심은 사름은 머정 엇어진다  
(한 웅덩이에서 문어 세 마리 잡으면 그 잡은 사람은 재수가 없다)

공생적 자연관은 자연과 인간이 일정한 인과론 속에서 존재한다는 생각으로 이어진다. 자연물의 성장 상태나 자연현상의 변화에 따라서 농사의 풍년과 흉년이 결정된다<sup>110)</sup>고 생각했다. 자연물과 자연현상의 관찰을 통해 농사를 흥풍을 예측하였고, 그것이 인간의 운명까지도 좌우할 수 있다고 여겼다. 까마귀의 새끼나 병아리가 부화하는 수를 두고서 그 해 농사의 흥·풍년을 점쳤다. 이는 새끼가 알을 까고 부화할 수 있는 날씨 조건에 충족되어야 함에 따라 그 해의 기상 상황을 파악해보는 경우다.<sup>111)</sup> 날씨와 기상 관련 금기어는 자연의 순환구조 중에서

110) 임재해·황루시, 앞의 논문, 2001, 116쪽.

친자연적인 생태환경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문화기호이다. 즉 주어진 자연환경 속에서 날씨와 기상은 현재와 앞으로 다가올 자연환경의 변화과정을 적나라하게 암시해주는 자연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변화에 역행하는 것을 경계하면서 자연의 순리에 맞게 자연환경에 순응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sup>112)</sup>

어촌에서도 바다 사정이 곧 자신들의 운명이라 믿었다. 어부가 바다에서 조업하는 것은 생산에 종사하는 것 같지만 엄밀히 따지면 고기라는 한 생명체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이므로 살생에 종사하는 일이 된다.<sup>113)</sup> 바다에서 많은 고기를 잡는 풍요를 바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물에 신성한 영물인 거북이가 걸리거나 한번에 문어가 세 마리씩 잡히거나 때 아닌 멸치가 갑자기 많이 드는 등 평소와 다른 바다 사정은 늘 경계해야 할 일이었다. 멸치는 가을에 잡히는 것이 정상이나 겨울에 많이 드는 것을 이상 현상으로 지켜보며 생태적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고자 하는 지혜를 엿볼 수 있다.

자연과 인간의 공생적 세계관은 주변의 현상을 잘 살피고 그것이 가져오게 될 결과를 미리 잘 대처하려는 인간의 신중한 태도로 볼 수 있다. 자연의 현상이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것이 있고 반대로 증명할 수 없는 것이 있듯이, 인간은 모든 것을 알지 못하기에 자연의 일부로써 그 변화를 관찰하며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따르며 살아가려는 마음을 알 수 있다.

---

111) 제주 세시풍속 중 까마귀잡과 관련된 금기어다. 까마귀가 알을 낳아 새끼를 치는 상태를 보고 그 해의 기상을 점치는 것이다. 까마귀가 새끼를 한 마리 치면 그 해 가뭄이 오고, 두 마리를 치면 그 해는 물을 저울려서 농사가 괜찮게 되고, 세 마리를 치면 물이 넘쳐 그 해에는 흉년을 면치 못한다고 생각했다. (진성기, 앞의 책, 1997, 131쪽; 현용준·문무병, 앞의 책, 1993, 57쪽.)

112) 박환영, 「금기어 속에 내재된 농촌과 어촌의 생태민속 비교-민속문화의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비교민속학』 67, 비교민속학회, 2018, 28쪽.

113) 김기설, 앞의 논문, 1978, 111쪽.

### 3. 신앙관

금기는 종교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종교는 금기의 힘을 빌려 그 신성성을 보호하고 강화하며, 금기는 종교의 진파력을 빌려 사람들의 물질생활, 정신생활, 사회생활의 영역에 확산되었다. 특히 고대와 중세 사회의 샤머니즘과 토테미즘적 신앙에서는 무당이 본인의 신성성을 강화하기 위해 행위와 공간 등과 관련된 의도적인 금기를 설정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다.<sup>114)</sup> 신앙과 관련된 금기어의 경우 대체로 인과관계와 상관없이 속신적인 요소들이 많다. 종교적·주술적·심리적인 근거로 발생한 금기어는 신앙적 규범으로써 강한 통제력을 갖게 되는데 이는 신성한 존재를 숭배하고 섬김으로써 재앙을 면하고 소망을 달성하려는 노력으로 자연현상을 비롯하여 어떠한 사물의 변화까지 모두 신과 연관성이 있다고 믿었다.

#### 1) 공동체의 가치 및 정체성 보호

금기는 굿과 같은 의례가 무탈하고 안전하게 진행되기 위해 반드시 갖춰져야 할 조건이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풍요와 축복의 바라던 기원을 이뤄내기 위한 장치다.<sup>115)</sup> 금기를 통해 공동체는 자신들이 지키고자 하는 신성한 영역을 보호하고 공동체의 가치와 질서를 유지한다.

<금기어 예시>

- 분향이 낭근 거실지 아니한다  
(분향당의 신목은 건드리지 않는다)
- 귀신을 위찬흐레 갈 땐 앞테레만 고추 브래명 가사 한다  
(귀신을 위하여 대접하러 갈 때는 앞만 곧장 보며서 가야한다)
- 분향에 갈 때 인스흐민 늦다  
(분향당 당신(堂神)에게 갈 때 누구를 만나 인사하면 나쁘다)
- 비린 사람은 당에 못간다  
(부정탄 사람은 신당에 못간다)
- 분향에 갈 때 비린 걸 먹영 가민 부정탄다  
(분향당신을 위해 갈 때에는 비린 음식을 먹고 가면 부정탄다)
- 영장난 디 갔당 온 몸은 분향에 못간다

114) 지중해지역원, 『지중해의 에티켓과 금기』, 이담북스, 2012. 17쪽.

115) 정종진, 「금기 형성의 특성과 위반에 대한 사회적 대응의 의미」, 『인간연구』 23, 가톨릭대

(상가에 갔다 온 몸은 본향당에 못간다)

○본향에 댕기단 사름이 안댕기민 그 집 아으덜 몸에 부시럼지 난다

(본향당신을 위하던 사람이 본향당을 다니지 않을 경우, 그 집 아이들 몸에 부스럼 난다)

○본향제일이 엇인 당은 생기 맞추와사 간다

(본향당의 제일이 없는 당에는 생기를 맞추어 날짜를 잡아서 가야 한다)

제주에는 마을을 지켜주는 본향신과 그 신을 모신 신당인 본향당이 있다. 본향신은 가정과 마을을 지켜주는 것은 물론이고 마을 주민의 생산 활동, 삶과 죽음, 질병과 재난을 관장 수호한다.<sup>116)</sup> 마을 주민들은 해마다 본향신에게 바치는 의례를 준비하면서 한 마음으로 신에게 정성을 기울이고 동티나는 일을 피하며 몸과 마음을 조심히 했다. 특히 비리는 행동을 삼가며 신성한 곳을 지키고자 했다. ‘비리다’라는 것은 부정 타는 것으로, 피를 보았을 때, 개고기나 말고기를 먹었을 때, 시신을 보거나 초상집을 드나들었을 때, 상여를 보았을 때, 짐승 죽을 것을 보았을 때를 말한다. 혹여 부정 탄 몸으로 당에 제를 지내러 간다면 신을 화나게 하는 금기 위반으로 개인뿐만 아니라 마을에 동티가 나고 흉년 등 각종 재앙이 생긴다고 믿었다. 본질적으로 금기는 사회 통합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특히 제의적 기능을 수행할 때 사회적 일체감을 형성<sup>117)</sup>한다. 따라서 제의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은 공동체의 안위와 존속, 질서 유지를 위해 금기를 수용하며 더욱 결속을 강화하게 되는 것이다.

<금기어 예시>

○이월들엔 돌쇠길 먹지 말라

(이월에는 말고기를 먹지 말라)

---

학교 인간학연구소, 2012. 82쪽.

116) 문무병, 앞의 책, 1998, 27쪽. 제주사람들은 자신이 태어난 고향을 ‘본향本郷’이라 한다. 이곳은 어머니의 몸에서 나와 텃줄을 태워 묻은 땅, 뿌리를 내린 땅이란 의미가 있다. 마을에는 집안의 혈연조상과는 다른 텃줄을 묻은 땅을 지켜주는 지연地緣의 조상신으로 ‘본향신本郷神’을 모신 신전 집이 있는데 이곳을 신당神堂 또는 당堂이라 한다. 제주도에는 300여 개의 자연마을이 있고, 마을마다 전통신앙의 성소인 본향당이 있다. 신당에 좌정하고 있는 당신堂神들은 기능과 역할이 분담된다. 이러한 기능이나 역할의 분담은 한 마을의 경제나 생산형태를 반영한다. 따라서 당신앙 형태는 각 당과 당신들의 유기적인 상관성을 지니면서, 마을공동체의 통합구조를 만든다. 당신은 수호 직능에 따라 마을 사람들의 출생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생활을 관리하는 기능을 가진 ‘본향당신’이 있고, 그 밖에 산육신, 치병신, 해신, 농경신, 뱀신 등 갖가지 기능을 가진 신들이 있다. 이 당신들은 또 성격에 따라 조령祖靈, 생업수호신, 산육신, 치병신, 재앙신, 토지신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문무병, 『제주도 본향당 신앙과 본풀이』, 민속원, 2008, 24-26쪽.)

117) 최창모, 앞의 책, 2003. 46쪽.



- 영등에 곡식밭디 검질 매민 굽뽕이 낀다  
(영등에 곡식밭에 김을 매면 굽뽕이 생긴다)
- 영등에 스담호영 널지 아니한다  
(영등에 빨래해서 널지 않는다)

2월 영등달 금기도 공동체의 가치와 정체성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볼 수 있다. 영등신은 음력 2월 초하룻날에 제주로 왔다가 15일에 본국으로 돌아가는데, 이 때 섬을 돌면서 바다에 씨를 뿌리는 풍요를 준다고 믿었다. 따라서 영등신을 잘 맞이하고 보내야 하는 중요한 달인 2월에는 말고기 등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고 빨래나 밭일 등 일손을 놓아야 했다. ‘영등엔 지실 노민 굽버랭이 명나(영등에는 감자 심으면 굽뽕이 먹는다)’, ‘영등에는 풀호민 곡스게 제진다(영등에는 풀하면 곡식에 손해본다)’는 속담에서도 볼 수 있듯이, 영등신을 모시는 기간에는 최대한 일을 삼가고 신을 잘 대접하여 즐겁게 하는 일이 가장 중요했다.

금기는 공동체의 가치와 정체성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자 장치다. 마을은 공동의 목표를 위해 고통과 긴장의 금기를 감내하고 공동체의 통합을 이룰 뿐 아니라 더불어 그 공동체의 가치와 신앙, 정서까지도 보존하고 이를 후세에 전달하고 이어 주는 문화적 기능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다.<sup>118)</sup>

## 2) 종교적 의례와 절차를 가르치는 교술적 기능

금기는 한 사회 집단의 공통적인 생활이나 사고 또는 행동양식의 한 영역과 유사하며 때로는 공적인 법률보다 더 강력하게 사람들의 행동양식을 구체적으로 조정하는 힘<sup>119)</sup>을 지닌다. 금기가 신앙적 규범으로서 기능을 할 때, 그 신앙이 지니고 있는 체계나 속성에 따른 종교적 의례와 절차가 무엇이며,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정보를 전달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한다.

<금기어 예시>

- 불난 집잇 사람은 불찍 아심 잇기 전인 죄인 몸이 되영 동넛침이 못 간다  
(불난 집의 사람은 불씨 견음의 제의가 베풀어지기 전에는 죄인의 몸으로 이웃집에 출입할 수 없다)
- 사람 죽어난 집이 귀양풀이 안호민 그 집이 살양 이가 었다  
(사람이 죽었던 집에서 귀양풀이를 안했다면 누구든지 그 집에 살아서는 이로울 것이 없다)

118) 정종진, 앞의 논문, 2012, 84쪽.

119) 최창모, 앞의 책, 2003, 47쪽.

- 시왕 청할 때 질칼르민 체시질에 걸린다  
(시왕 청할 때 길을 가로 넘으면 차사길에 걸린다)
- 액막이 할 때 질칼르민 그 액 맡은다  
(환자의 액을 막는 과정에서 그 앞을 가로질러 지나가면 그 환자의 액을 떠맡게 된다)
- 푸다시 혼 뒤에 아픈사름신디 속적호민 뱅이 도진다  
(푸닥거리 한 뒤에 환자한테 군소리하면 그 환자의 병이 도진다)
- 코시호영 어가라 방 썰민 복이 나간다  
(안택제를 지낸 후 곧 바로 방을 쓸면 복이 나간다)
- 코시호는 집이 개괴기광 뭉뢰기 먹은 사름이 가민 부정탄다  
(안택제 지내는 집에 개고기나 말고기를 먹은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 부정탄다)

굿(무속의례)의 종류는 그것을 행하는 기회, 규모, 성격에 따라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하여 나눌 수 있다. 금기어와 관련한 굿의 종류를 살펴보면 굿을 하는 기회에 따라 일반굿(家祭)에는 멩감코스, 푸다시, 성주풀이, 불 짝굿, 귀양풀이, 시왕맞이, 액막이 등이 있으며, 당굿(堂祭)으로는 신과세제, 영등제 등이 있다.<sup>120)</sup>

불찍앗음은 불이 난 집에서 불을 낸 원흉을 찾아 쫓아내고 후환을 없애기 위해 하는 굿으로 '불찍굿'이라 부르기도 한다. 집에 화재가 발생하면 이는 화재의 신인 화덕진군의 노여움이라 생각해 그 신을 잘 달래서 내보내는 불찍굿의 필요성을 알려준다. 귀양풀이는 장례를 지낸 날 밤 상가에서 치르는 무속의례로, 죽은 사람의 혼이 저승으로 잘 가야 후손들도 편안하게 된다고 생각했다. 귀양풀이의 경우, 제의의 진행 과정에서 시왕, 차사 등의 신을 청하여 죽은 사람을 저승까지 고이 데려가도록 비는 것이 의례의 중심임에 따라 이때 그 앞길을 가로 넘어 지나가는 일을 조심하라고 전한다.

액막이 역시 환자의 나쁜 액을 막고 버리는 것이 중요한 목적임에 따라 사람들이 굿 구경을 하다가도 신위를 모신 제단 앞이나 심방이 춤을 추고 본풀이하는 앞쪽을 지날 때 몸가짐을 경계하도록 했다. '푸다시(푸닥거리)'는 잡귀를 물리치기 위해 벌이는 무속 의례로 환자의 몸에 잡귀가 침입하여 병이 났다고 보고, 이 잡귀를 쫓아내는 굿이다. 이렇듯 아픈 환자를 두고 어렵게 푸다시를 하였는데 누가 와서 잔소리를 하는 것은 매우 부정 타는 행동으로 보았다. '푸다시 호영 검

120) 일반굿이란 일반 가정에서 생사, 질병, 생업, 계절 등 여러 가지 기회에 이것들을 차지한 신령들을 청해서 축원하는 굿이며, 당굿이란 마을을 차지하여 수호하는 당신에 대해 마을 사람들이 합동으로 당에서 하는 굿이다. (문무병, 앞의 책, 1998, 34~40쪽.)

줄 안때민 더기 엇나(푸닥거리 하여서 금줄 안 때면 덕이 없다)’는 말처럼 푸다 시 후에는 금줄을 매도록 했다.

제주 사람들은 무속 신앙의 영향 속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길흉화복을 비롯하여 생(生)과 사(死), 이승과 저승 등 사후의 내세관은 초인적 신의 섭리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믿고 경외했다. 121) 재앙을 피하고 평안한 삶을 이어가기 위해 신께 기도하듯, 금기는 제주인들의 신앙적 믿음과 규범을 잘 전달하고 이어 주는 역할을 했다.

<금기어 예시>

- 떡시리가 삼밭나게 버리지민 그 집이 가심 벌러질 일 난다.  
(시루떡이 세 쪽으로 쪼개지면 그 집 (대주가 죽든지 하는) 가슴 아픈 일이 생긴다)
- 떡 치당 통시에 강 오민 부정탄다  
(떡을 찌다가 변소에 갔다 오면 부정탄다)
- 시리 앞정 짐오르기 전이 뜯 사람이 들어사민 떡이 선다  
(시루떡 찢 때 수증기가 오르기 전에 뜯 사람이 부엌에 들어가 앉으면 떡이 선다)
- 시리 앞진 때 정짓문으로 들어가민 떡이 선다  
(떡시루를 찢 때 부엌문으로 사람이 드나들면 시루떡이 잘 익지 않는다)
- 삼방낭글 조왕발레 가민 떡이 선다  
(삼방나무를 조왕 맞은 편에 하면 떡을 찢 때 그 떡이 선다)
- 집 짓일 때 지동굽에 낭주죽이 들민 그 집이선 떡이 익지 아니한다  
(집 지을 때 지동굽에 나뭇조각이 들면 그 집에서 떡을 찢 때는 떡이 익지 않는다)
- 집 짓일 때 낭글 거스로 세왕 짓이민 그 집이선 떡이 안 익는다  
(집 지을 때 나무를 거꾸로 세워서 지은 집에서 떡을 하면 떡이 안 익는다)

금기는 종교적 의례와 절차를 따르고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의 마음가짐과 태도 등 정성이 중요함을 알려준다. 제주 사람들은 무속신앙을 통해 생활의 위안과 삶의 방도를 찾았는데, 신에게 기원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정성을 다한 제물이다. 특히 떡을 만드는 과정에서 부정이 들지 않도록 노력했으며 혹여나 떡이 익지 않고 서는 일을 두려워했다.<sup>122)</sup> 떡은 상·장례

121) 고재환, 「속담」, 『제주의 전통문화』, 제주도교육청, 1996, 826-827쪽.

122) 떡이 익지 않고 설익는 일을 두려워한 것은 제주의 세시풍속 중 떡점과 연결하여 살펴볼 수 있다. 제주의 세시풍속 중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 떡을 찌어 그 떡의 뒹뒹이를 보고 그 해의 신수를 알아보는 모듬떡점(떡점)이라는 것이 있다. 이는 액막는 날이라 하여 정월 대보름날에 하게 되는데, 동네의(가족) 여러 사람들이 쌀을 모으고 가루를 빻아 한 집으로 모인다. 하나의 시루에 제각기 자기 몫의 떡가루를 넣고 그 밑에 자기의 이름, 나이를 적은 종이를 간다. 이렇게 해서 시루떡을 찌면 누구 몫의 떡은 설고, 누구 몫의 떡은 익고 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데,

등 큰일을 치를 때 가장 중요한 음식이며 신에게 바치는 제물이기도 하다. 떡이 선다는 것은 신에게 바치는 정성이 부족하여 생기는 부정(淨)이라 생각했다. 떡 하나를 삶는데도 정성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동네마다 시리떡(시루떡)을 전문으로 만드는 시리할망이 있을 정도로 시루떡을 만드는 일은 쉽지 않았다. 시루떡을 찌려면 솥과 시루 사이에 김이 빠져 나가지 못하도록 밀가루로 반죽한 시룻번으로 막는데, 떡이 익기도 전에 시룻번이 갈라지면서 김이 새어나오게 되면 아무리 다시 막고 불을 때어도 떡이 제대로 되지 못했다<sup>123)</sup>. 따라서 떡을 찌는 과정에서 정숙하고 정성을 다하는 마음이 중요한 것인데, 그런 태도 없이 부산스럽게 왔다 갔다 하거나 이사람 저사람이 드나드는 일부터 좋지 않았다. 떡과 관련된 금기는 중요한 일은 정성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간절함에서 시작된 믿음으로 보여진다.

금기의 본질은 겸손하고 신중하며 근신하는 태도와 마음이다. 자신을 낮추고 모든 자연물의 경외심을 가지며 정성을 다하려는 마음은 지금도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근대 문명의 물결 속에서 전통적인 것들은 대체로 사라지고 현대 과학의 논리로만 세상의 모든 일을 믿고 증명하고자 한다. 오랜 관찰과 경험을 통해 만들어지고 이어온 금기어를 주술과 비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불신하며 버려야 하는 미신으로만 바라보는 경향이 짙다. 하지만 우리는 오히려 금기어를 통해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근대를 조명해봐야 한다. 주술과 비과학, 합리성과 과학을 양분하는 것이 아닌 상호 존중·보완의 관계로 본다면 현대의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낼 수 있으며 잃어버린 인간의 존엄을 되찾고 탈근대를 모색할 수 있다. 금기어를 통해 항상 조심스럽게 살며 자연을 배려하고 그 안에 스며드는 삶을 살고자 했던 과거의 소중한 지혜와 가치를 되돌아보고, 현대의 방만한 삶에 우려를 표하는 동시에 우리 시대의 삶이 다시 경건해지기를 바란다.

---

이때 떡이 선 사람은 그 해의 운이 불길하다고 생각했다. 떡이 선 사람은 그 떡을 먹지 않고 백지에 싸서 사람 많이 다니는 세 갈래의 길이나 다섯 갈래의 길로 트인 길바닥 한복판에 가 던져 버린다. 그러면 다소 그 액운이 면해지는 수가 있다고 믿었다. 이러한 떡점은 새로 집을 지어 이사 갔을 때도 그 집의 길흉을 알아보기 위해 시루떡을 찌 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 집의 조왕할머니에게 그 집안의 길흉의 판단을 물어보는 것이라 한다. 이렇듯 떡이 설익는 것은 길흉 판단의 결과로, 금기어에까지 영향을 주어 말로 전해진 것으로 보인다. (진성기, 앞의 책, 1997, 43~44쪽; 현용준·문무병, 앞의 책, 1993, 19쪽, 52쪽, 86쪽.)

123) 『디지털제주문화대전』, <http://jeju.grandculture.net/jeju/toc/GC00701214>, (2022.11.01.).

## VI. 결론

금기는 보편적으로 인간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생각, 즉 어떤 것은 해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사람들의 의식과 행동을 규제하며 전통처럼 강한 생명력과 전승력을 지닌다. 따라서 본고는 금기어 분석을 통해 제주의 생활상과 풍습, 신앙 등에 담긴 금기의 사고를 살펴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제주 금기어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그 내용과 사례를 바탕으로 제주 금기어의 다양한 양상 및 의미에 대해 고찰했다. 본고에서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주요 연구 자료인 『남국의 금기어 연구』(진성기, 1972)에 대해 설명하고, 연구 자료에 대한 논의점과 보완점 등 연구 방법에 대해 기술했다.

제2장에서는 기존 선행 연구 검토를 통해 금기어의 정의와 영역, 발생요인에 대해 정리했다. 금기어는 ‘어떤 대상이나 행동에 대해 금하거나 꺼림을 나타내는 말’로, 단어 형식의 구조로 된 일반 어휘에서부터 행동과 관련된 특정한 언어 표현까지 포함한다. 필자는 선학들이 주장한 ‘금기어(禁忌語)’, ‘금기언(禁忌言)’, ‘금기담(禁忌談)’ 이란 용어 중 ‘금기어’라는 용어를 채택 했으며, 금기어의 판단 기준으로는 금기의 대상이나 행위, 방법이 제시된 것뿐만 아니라 금기적 성격을 띠며 심리적 기휘(忌諱)가 드러나는 말을 모두 포함키로 했다. 금기의 발생 요인으로는 심리적인 요인과 언어 및 사회적인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제주 금기어를 사회문화적인 범주에 따라 선인들의 의식구조나 생활상을 살피기 위해 내용면에서 크게 일상생활, 자연, 신앙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 총 3차례에 걸쳐 분류를 진행한 결과, 의·식·주, 통과례, 세시, 생업, 신앙, 자연, 인간관계, 성별, 사물, 신체 부위 10개의 항목, 총 617개의 금기어로 정리할 수 있었다. 전체 금기어 내용 중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는 금기어는 ‘일상생활’(497개)과 관련된 금기어로, 통과례(172개), 의식주(167개), 세시(42개), 생업(33개), 신체부위(27개), 성별(26개), 사물(21개), 인간관계(9개) 순 이었다. ‘자연’(77개)과 관련된 금기어는 동물(63개), 식물(7개), 산·하천(7개)이며 ‘신앙’과 관련된 금기어는 43개로 나타났다. 금기의 대상은 사람과 사물, 행위, 동물, 신앙

등 인간이 삶에서 부딪치고 대하는 모든 것과 관련되어 있는데, 기본적인 생활을 안전하고 평안하게 유지해나가기 위한 현실적인 욕구 및 문제와 함께 인간의 삶 전반에 걸쳐 넓고 다양하게 형성되었다.

특히 세부 항목별 빈도를 살펴보면, ‘통과의례’(172개) 관련한 금기어가 전체 금기어(617개) 중 약 30%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 가운데 임신 및 출산 금기어(90개)가 14.6%로 가장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신성(神聖)과 부정(不淨)의 복합 관념으로 새 생명의 탄생과 죽음이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금기가 가장 강력하게 작용된 것으로 보인다. 의식주 관련 금기어(167개) 또한 전체 금기어(617개)에서 약 27%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중 식재료 및 식사, 도구 등 식생활 금기어(83개)가 13.5%로 가장 많았다. 인간의 기본적인 삶과 생존에 있어 먹고 사는 것이 가장 절박하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식생활 금기어가 많이 전승된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세시, 생업, 신체부위, 성별, 사물, 인간관계에서 금기 내용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 성별과 관련한 금기어를 제외하고 대체로 일상생활에서의 평안과 풍요, 화목을 바라는 내용이었다.

자연 관련 금기어(77개)는 일상생활 금기어(497개)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수와 내용이 빈약했다. 금기어 유형 분류를 통해 제주의 독특한 자연과 관련된 금기를 찾을 수 있으리라 기대했지만 대부분 전국에서 공통적으로 전승되는 금기어였다. 옛날 사람들은 우주의 변화나 동물의 행동, 나무의 상태 등을 통해 자연을 관찰하고 그 결과를 인간들의 삶과 연관 지어 보는 경향이 있었으나 차츰 사회 구조의 변화로 인해 자연에 대한 관심은 줄고 사회적인 영역에서 통합 및 질서 유지를 위한 금기가 더 필요하고 중요해진 것으로 보인다. 자연과 관련한 금기어 가운데서 특징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육지부에는 볼 수 없는 제주만의 기후적인 조건과 경험이 담긴 금기어가 있다는 점이다. 바로 과일나무에 불을 때지 말라는 금기어다. 과거 제주에는 과일나무가 있는 집에 관청에서 장부를 만들어 굴세를 부과했는데, 이를 괴롭게 여겨 피하기 위해 나무를 베어버렸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제주에서 굴나무나 유자나무에 불을 때지 말라는 금기어가 발생하고 전해진 것으로 보인다.

신앙과 관련한 금기어에서는 육지부와는 다른 제주의 특징적인 금기어들을 다수 발견할 수 있었다. 전체 금기어(617개) 중 신앙 금기어(43개)는 일상생활 금기



어(497개)나 자연 금기어(77개)보다 수는 적지만 내용면에서는 가장 강력한 구속력과 통제력을 가지고 있다. 섬이라는 고립된 지형적 여건과 척박한 풍토, 수탈의 역사, 제주만의 독특한 무속신앙의 영향으로 인해 육지부와는 달리 본향당, 본풀이, 굿(무속의례) 등 금기의 내용이 보다 구체적이며 현재에도 진행되는 무속 의례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금기어의 주절부에서는 안전한 삶을 유지하고 영위해 나가고자 하는 삶의 의지를 찾을 수 있었다. 주절부에는 금기를 깨고 어겼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공포의 결과가 나타나는데, 주로 ‘죽는다’, ‘병든다’, ‘동티난다’, ‘집안 망한다’ 등이 있었다. 이는 인간이 어떻게 살기를 바랐는지 드러나는 것으로, 금하여 피하고자 하는 것이 곧 그것을 이루고 얻고자 하는 소망과 꿈, 가치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제4장에서는 금기의 주제를 크게 생활관, 자연관, 신앙관으로 나누고, 그 안에 담긴 합리성과 실용성, 교육적인 관점에서 의미를 해석해보고자 했다. 먼저 금기를 한 사회 안에서 지켜야 하는 규범으로서 개인과 사회가 유기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조정하고 교육하는 공리적인 측면에서 바라보았다. 무엇보다 생존과 관련하여 식량과 생명을 보호하는 일이 중요했으며, 원만한 사회생활과 기본 예의를 위한 지침과 방법을 전하고 있다. 또 비위생적인 환경이나 습관, 행동 등 건강에 유의하며 질병의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정보뿐만 아니라 일과 휴식의 균형과 물건의 용도에 맞는 쓰임을 알려주는 생활의 지혜를 담고 있다.

금기 속에 담긴 자연관으로는 모든 자연물의 생명권을 존중하는 태도와 자연과 인간의 공생적 세계관을 살펴볼 수 있었다. 모든 자연물의 고유성을 인정하고 본디 그 자리에서 생존권을 누릴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인간이 함부로 자연의 영역을 침범해서는 안 되며 존중해야한다는 관념이다. 또 자연과 인간이 운명공동체로써 공생관계에 있다는 것을 교육하는 역할도 한다.

신앙관의 경우, 금기가 종교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에 따라 금기를 통해 신성한 영역을 보호하고 공동체의 가치와 질서를 유지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다. 금기는 굿과 같은 의례가 무사히 탈 없이 진행되기 위해 반드시 갖춰져야 할 조건으로, 제의를 수행할 때 제의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은 공동체의 안위와 존속, 질서 유지를 위해 금기를 수용하며 더욱 결속을 강화하고 공동체의 가치를 후세에까지 전달하고 있다.

지금까지 제주의 금기어 분석을 통해 금기가 인간의 삶에서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며, 그 역할과 의미가 무엇인지 정리해보았다. 금기는 인간의 오랜 관찰과 경험을 통해 얻게 된 생활 규범이자 철학이지만 과학적인 사고나 합리적인 면에서 문제를 가지고 있다.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금기는 개인의 욕망을 통제하고 억압하며 차별적으로 배제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이분법적 사고를 바탕으로 한 쪽을 유난히 억압하고 차별하게 되는데, 그 대상은 주로 여성이다. 여성 관련 금기어는 비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 없이 관습적으로 이어져오는 사라져야 될 문화적 산물임이 확실하다. 하지만 모든 금기를 단순히 어떠한 과학적인 이치와 타당성의 문제로만 바라보는 것은 옳지 않다. 앞서 살펴보듯, 다양한 원인과 의미에서 생겨나고 전해지는 금기를 아무런 이해 없이 무조건 미신이라고 단정 지어서는 안 된다. 구술 속에 담겨 있는 주술, 비과학 등의 금기어에는 분명 긍정할 만한 것들이 있으며 오랜 전통과도 같은 금기어 속에 담긴 선인들의 사고와 관념을 돌아보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과 상관성을 가지고 유효한 부분이 있다.

금기어는 가장 짧은 교훈적인 이야기이자 세상 모든 이야기의 축소형이다. 상황하게 이야기할 것을 한 문장으로 응축하여, 그 속에 인생을 담고 규계(糾戒)를 준다. 단 한 문장 속에 담긴 메시지는 수많은 이들의 희로애락을 품고 인간의 삶에 가장 강력한 구속력과 영향력을 행사한다. 늘 미래를 위해 조심하고 마음을 정결히 하며 경망스러운 거동과 태도를 경계하는 이야기는 오래전 금기어 속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많은 것을 돌아보게 한다.



## 참 고 문 헌

### 1. 기본자료

- 진성기, 『남국의 금기어 연구』, 제주민속문화연구소, 1972.
- 진성기, 『제주도 금기어 연구사전 : 그 영원한 슬기와 향기의 샘』, 제주민속연구소, 2002.
- 김영돈, 「창천리 학술조사 - 금기담」, 『국문학보』 제4집, 濟州大學 國語國文學會, 1972.
- 고재환, 『제주속담사전』, 민속원, 2002.
- 진성기, 『제주도속담전집』, 도서출판 디딤돌, 2010.
- 김성배, 「한국 금기어고 - 상·하」, 『국어국문학』 25·26, 국어국문학회, 1962·1963.
- 최래욱, 『한국 민간 속신어사전』, 집문당, 1995.

### 2. 단행본

- 고광민, 『제주도의 생산기술과 민속』, 대원사, 2004.
- 김선풍 외, 『우리 민속학의 이해』, 월인, 2002.
- 문무병, 『제주도 본향당 신앙과 본풀이』, 민속원, 2008.
- 민속학회, 『한국민속학의 이해』, 문학아카데미, 1994.
- 오영주, 『제주음식생활문화사』, 제주도·제주한라대학교, 2017.
- 제주도, 『제주의 민속』 I, 1993.
- \_\_\_\_\_, 『제주의 민속』 IV, 1996.
- \_\_\_\_\_, 『제주의 민속』 V, 1998.
- 제주도교육청, 『제주의 전통문화』, 1996.
- 제주문화원, 『제주생활문화 100년』, 2014.
-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도의 식생활』, 1995.
- 진성기, 『제주도민속-세시풍속』, 제주민속연구소, 1997.
- \_\_\_\_\_, 『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2016.
- 지중해지역원, 『지중해의 에티켓과 금기』, 이담북스, 2012.
- 최창모, 『금기의 수수께끼』, 한길사, 2003.
- 최현섭, 『한국 금기언 조사연구 : 경기·인천지역을 중심으로』, 민속원, 2013.
- 허남춘, 『황조가에서 청산별곡 너머』, 보고사, 2010.
- 허재영, 『생활 속의 금기어 이야기』, 역락, 2000.

### 3. 논저

- 강권용, 「제주도 특수본풀이 연구」, 경기대 석사논문, 2002.
- 강대훈, 「"곱게 갑서, 다시 오지 맏서" : 제주 성산읍 해녀들의 바다거북 인식과 무속적 조상신앙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2017.
- 고재환, 「제주도속담연구사」, 『論文集』 제29집, 제주교육대학교, 2000.
- \_\_\_\_\_, 「제주 속담에 나타난 전통 육아관 분석」, 『동북아시아문화학회 국제학술대회 발표 자료집』,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07.
- 김경섭·김은주, 「한국 속신의 형성과정에 대한 기호학적 고찰」,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 Vol.4 No.3, 국제문화기술진흥원, 2018.
- 김기설, 「영동지방의 금기어연구」, 『關東語文學』 Vol.1, 관동대학교, 1978.
- \_\_\_\_\_, 「영동지방의 생업과 관련된 금기어연구」, 『韓國民俗學』 Vol.18, 한국민속학회, 1985.
- 김동환, 「한중 금기어 비교 연구」, 호남대 석사논문, 2015.
- 김미진, 「한국어와 중국어 금기표현 비교연구 -관혼상제를 중심으로-」, 강원대 석사논문, 2017.
- 김선풍, 「한국인의 금기어와 금기담」, 『語文論集』 Vol.23, 중앙어문학회, 1994.
- 김성배, 「한국 금기어고(韓國 禁忌語考)上」, 『국어국문학 25』, 국어국문학회, 1962.
- \_\_\_\_\_, 「한국 금기어고(韓國 禁忌語考)下」, 『국어국문학 26』, 국어국문학회, 1963.
- 김순이, 「금기어에 나타난 제주여속-산속을 중심으로」,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조사연구 보고서』 제7집, 1992.
- 김승찬, 「가덕도의 기층문화 조사(2) -통과의례, 세시풍속, 금기생활-」, 『문창어문논집』 28권, 문창어문학회, 1991.
- \_\_\_\_\_, 「기장지방의 금기 속신」, 『한국민족문화』 Vol.8,釜山大學校 韓國民族文化研究所, 1996.
- 김영돈, 「창천리 학술조사 - 금기담」, 『국문학보』 제4집, 濟州大學 國語國文學會, 1972.
- 김일환, 「속담과 금기어를 통해서 본 한국인의 보건위생관」, 『論文集』 Vol.20, 대구교육대학교, 1984.
- 김종수, 「금기와 사전에 나타난 금기어」, 『독어교육』 20, 한국독어독문학교육학회, 2000.
- 문호근, 「한국의 금기어」, 『人文科學』 Vol.8, 연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1962.
- 맹경연, 「중·일 금기문화의 비교연구」, 계명대 석사논문, 2013.
- 박영준, 「한국어 금기어 연구-유형과 실현 양상을 중심으로-」, 『우리말연구』 Vol.15, 우리말학회, 2004.
- 박정열·최상진, 「금기어 분석을 통한 한국인의 심층심리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Vol.22, 한국심리학회, 2003.

- 박환영, 「금기어 속에 내재된 농촌과 어촌의 생태민속 비교-민속문화의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비교민속학』 67, 비교민속학회, 2018.
- 심재기, 「금기 및 금기담의 의미론적 고찰」, 『論文集』 Vol.2, 서울대학교 교양과정부, 1970.
- 오 나, 「한·중 상례문화와 죽음에 관련된 금기어 비교 연구」, 동국대 석사논문, 2014.
- 왕 퇴, 「한국어와 중국어의 금기어 비교 연구 - 죽음에 관한 금기어를 중심으로-」, 조선대 석사논문, 2014.
- 우 상, 「한중 동식물 관련 금기어 비교 연구」, 대구대 석사논문, 2015.
- 윤용택, 「제주도 '신구간' 풍속에 대한 기후 환경적 이해」, 『탐라문화』 제29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5.
- 이안나, 「금기를 통해 본 몽골의 민속-생활 예법과 의례를 중심으로-」, 『중앙민속학』 Vol.1, 중앙대학교 한국문화유산연구소, 2007.
- 임재해·황루시, 「민속문화의 자연친화적 성격과 속신의 생태학적 교육 기능」, 『비교민속학』 21, 비교민속학회, 2001,
- 장장식, 「몽골 금기어의 원리와 몇 가지 특징」, 『몽골학』 제9권, 한국몽골학회, 2000.
- \_\_\_\_\_, 「생태적 관점에 본 몽골 유목민의 금기와 의미」, 『비교민속학』 41, 비교민속학회, 2010.
- 장희철, 「<차사본풀이> 연구」, 제주대 석사논문, 2004.
- 정종진, 「금기 형성의 특성과 위반에 대한 사회적 대응의 의미」, 『인간연구』 23, 가톨릭대학교 인간학연구소, 2012.
- 진성기, 「제주도의 금기어연구」, 『韓國民俗學』 Vol.6 No.1, 한국민속학회, 1973.
- 최래옥, 「민간 속신어의 해석방법」, 『한국민속학』 17, 한국민속학회, 1984.
- \_\_\_\_\_, 「한국 민간 속신어의 연구」, 『비교민속학』 2, 비교민속학회, 1985,
- \_\_\_\_\_, 「하루중 음식 습속과 예절에 관한 민간속신어 연구」, 『先淸語文』 Vol.28,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2000.
- 최래옥·최운식, 「민간속신어에 보이는 한국인의 자연관」, 『비교민속학』 21, 비교민속학회, 2001.
- 최상진·양병창·박정열·김효창, 「여성관련 금기어의 타당성 및 수용성 지각 :성차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한국심리학회, 2002.
- 최현섭, 「경기도 팔탄면의 금기언」, 『기전문화연구』 Vol.11, 仁川教育大學, 1983.
- 홍기표, 「여말선초 제주 입도조 연구」, 『제주도연구』 제49권, 제주학회, 2018.
- 허남춘, 「제주도 약마희 신고찰」, 『구비문학연구』 제54집, 한국구비문학회, 2019.
- \_\_\_\_\_, 「<문전본풀이>에서 집과 인간과 자연의 관계」, 『한국무속학』 제42집, 한국무속학회, 2021.

허재영, 「금기어의 구조 및 발생 요인」, 『사회언어학』 Vol.9, 한국사회언어학회 2001.

#### 4. 신문(방송) 및 전자 자료

디지털제주문화대전, <http://jeju.grandculture.net/jeju>

제주환경일보, <http://www.newsje.com>

한국민속대백과사전, <https://folkency.nfm.go.kr/kr/main>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한국전통지식포탈, <https://www.koreantk.com/ktkp2014>

헬스경향, <http://www.k-health.com>

JIBS뉴스, <http://www.jibs.co.kr>

부록 : 제주 금기어 유형 분류

1. 의식주(衣食住)

1) 의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녕 매는디 가달 냉기지 아니한다</li> <li>○소개옷을 맨들 때 옷쓰곶에 머리턱이나 티가 들어가민 근심이 생긴다</li> <li>○천화일에 옷 몰르민 옷이 불에 탄다</li> <li>○상제가 새각시나 새시방 옷을 맹글민 늦다</li> <li>○홀어머이 새각시 췌옷을 몰르민 늦다</li> <li>○이불 거죽으로 옷호영 입으민 머정엇나</li> <li>○소나이가 외방 나갈 때 바농질호영 입영 가민 머정엇다</li> <li>○입은 옷에 바농질호민 잇음 잘한다(군말 듣는다, 머정엇나, 액망을 입은다, 군망입나, 죽어갈 때 말모른다)</li> <li>○썰곳을 그실황 바농뀌 꿰민 저싱 강은 눈썹 그실린다</li> <li>○호상옷에 뒷바농질호민 즈손이 뒷걸음질한다</li> <li>○불카단 썰로 씨지 말라</li> <li>○바농 빌레 온 사름안티 바농에 썰 꿰어주곡, 그 썰에 막작지 와주민 그 막작 풀어지도록 찻나</li> <li>○바농을 축보름에 질르민 가난한다(남편이 몰른다. 손해본다, 축보름에 질르민 그 집이 비채 꿍질 못한다)</li> <li>○다루엣불에 담배 붙이지 말라 (다루엣 불에 손 초지 말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루에질을 곱게 아니하민 놈이 노다시린다 (다루엣불은 입으로 불지 아니한다)</li> <li>○다루에를 주곡 말으곡 호민 그 사름끼리 싸움 난다</li> <li>○옷을 다릴 때 골롬부며 다리민 가난한다</li> <li>○해진 후젠 다르외를 빌리지 아니한다</li> <li>○해진 후제 스담 막개질호민 동니 청년이 해롭다</li> <li>○더운 풀을 스담에 맥이민 급훈 일 난다 (풀 아니 산다)</li> <li>○밤이 스담 널민 그 사름이 죽영 내생에서 환싱호영 낳민 도둑질호게 된다</li> <li>○빈 막개질호민 집안이 불펜한다</li> <li>○젓인 옷 입으민 군망입나</li> <li>○안반을 깔앙 아지민 이질 걸린다</li> <li>○안반을 배영 누민 대가리가 트라진다</li> <li>○노름호는 사름 신을 얹어불민 그 사름은 노름에서 돈을 일른다</li> <li>○머리말디 신발을 놓왕 자민 꿈사리가 어지럽다</li> <li>○질컬음 건당 신착 얹어진 걸 보면 츠레로 가리쳐 놓와사 한다</li> <li>○패리 썬 냥 매질 안한다</li> </ul>
--	---

2) 식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외밭디서 송까락질호민 외가 다 털어진다</li> <li>○갯 동맨 호박에 송끄락질 호민 털어진다 (저디 호박 을았저 호영 손으로 그리치민 털어진다)</li> <li>○놈의 호박을 술째기 타당 먹으민 죽을 땀 배가 부성 죽은다</li> <li>○유월 탈 탕먹지 말라(유월 탈 탕먹으민 함박 허물 난다)</li> <li>○개염이탈 탕 먹을 땀 “아여 머리여, 아여 대강이여”호영 먹어사 한다(“나 머리랑 벗어지지 말곡, 가마귀 머리랑 벗어지라”호영 먹어사 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놀뻬를 먹으민 니 인다(니 권다)</li> <li>○놀속 뻬상 물즙지랑 새탕궤루 탕 먹으민 그 자리에서 직스한다</li> <li>○강이 등창에 생칭 피왕 먹으민 죽나</li> <li>○개썸난 때 물친(바당엣 거) 먹으민 매 물찌마다 개썸난다</li> <li>○누냉이를 질레레 브리민 죄 짓나 (곡숙개를 브리민 죄 받나)</li> <li>○부정호 때 장 담그민 장 벤한다</li> <li>○메주를 짝글르게 죄여지민 그 집안이 늦다 (장맛이 었다)</li> <li>○장맛이 그르치민 승시가 난다</li> </ul>
---	---

<p>(장이 뒤따라지면 승협이 든다)</p> <p>○장황에 돛줄래 빠지면 그 집이 망한다(장황에 중이가 빠지면 집안에 나쁜 일이 생긴다)</p> <p>○집안이 안되젠하면 소곰ㄱ지 벤한다</p> <p>○꿀 굴아난 ㄱ래에 콩 굴민 뚝비 못한다</p> <p>○ㄱ래 우티 앓지 안한다(ㄱ래 우티 안 앓나)</p> <p>○되팡 말팡 푸는첸 옆으지 아니한다 (말이나 되나, 푸는 체나, 신착은 옆으민 그 집이 망한다)</p> <p>○해진 후제 되약새기 빌려주지 아니한다 (해진 후제 되빱 빌려주민 손해간다)</p> <p>○체나 푸는체는 머리우티 안 썬다</p> <p>○소두경광 시린 주곡 맡으곡 하면 소도리난다</p> <p>○비 올 때 소두경으로 장황을 안 덕근다</p> <p>○술 걸 땀 날 보왕 솟을 걸어서 한다 (~날 보왕 솟덕 앓지지 아니 하면 동티난다)</p> <p>○술덕 우티 앓지 아니한다</p> <p>○술 들어 올 때 문지방 우티 놓아난 솟을 앓지민 해롭다(~문지방에 놓아나민 해롭다)</p> <p>○소두경 우티 우금(남죽) 올려 놓민 손해본다 (~늘 올려 놓민 해롭다)</p> <p>○사기 그릇은 놈이 벌르고대라 대신 받지 말라</p> <p>○솥을 끼와줄 땀 옷봉으로 걸어두영 끼와주어서 한다</p> <p>○빈 ㄱ래질하면 죽굴땀 할망 귀 막나</p> <p>○빈 방앤 짓치 아니한다</p> <p>○빈 허벅 정 놈으 집 올래 안에 들어가지 아니한다</p> <p>○절변 떡을 갈랑 먹으면 싸움한다</p> <p>○떡 치당 통시에 강 오민 부정탄다</p> <p>○새미떡은 솥을 때에 귀로만 툽툽 드리치지 아니하면 쉬가 다 터져분다</p> <p>○시리 막에 떡을 먹으면 등굽나 (허리 아픈다, 허리 아픈게 존다)</p> <p>○막떡은 늙은이 밖이 안 먹나 (젊은이는 막떡을 안 먹는다)</p> <p>○어린 아이가 굶떡을 먹으면 귀신이 붙든다</p> <p>○떡시리가 삼발나게 버러지면 그 집이 가심 버러질 일 난다</p> <p>○시리떡 처난 시릴 젊은 예즈가 잇지 아니한다(시리떡 처난 시릴 젊은 예즈가 잇이면 월경이 독하게 온다)</p> <p>○시리 앓정 짐오르기 전이 땀 사름이 들어사</p>	<p>민 떡이 선다</p> <p>○시린 앓진 때 정짓문으로 들어가민 떡이 선다(~정짓문으로 사름이 들어가민 그 떡이 선다, 시리솥디 불숨을 때 시리 앓진 방위로 사름이 들어오민 떡이 선다)</p> <p>○밥거려 놓왕 우금 재게 굶지 말라(밥 거려놓왕 우금 재게 굶으면 큰 딸 안 된다)</p> <p>○밥거릴 때 우금으로 술천을 털지 아니한다</p> <p>○밥물 덜은 거 먹으면 머리 벗어진다 (창지 막아진다, 글 못한다)</p> <p>○깃물로 불 끼우민 눈 먼 즈속 난다</p> <p>○국 먹당 장칼 냉기민 빈복한다</p> <p>○국사발을 왼쪽에 놓왕 밥 먹지 아니한다</p> <p>○밥사발을 독ㄱ립에 받투왕 먹으면 빈복한다</p> <p>○타진 그릇에 음식을 담양 먹으면 빈복한다</p> <p>○밥 먹당 쳇 숙가락에 밥방울이 떨어지면 머정었다</p> <p>○밥 먹을 때 숙가락 부러지면 그날 머정 벗어진다</p> <p>○밥상에 굴룬 숙그락이 올르민 그 밥 문 먹기 전이 그 숙그락으로 밥 먹을 사름이 당한다</p> <p>○숙그락츄록 멀리 심으면 먼딜로(가차이 심으면 가차운 딜로) 씨집(장개) 간다</p> <p>○숙그락 봉그민 입넉개한다(소리난 일난다)</p> <p>○뚝배에 밥 놓왕 먹으면 그 사름이 드라나게 된다</p> <p>○지방우티 걸터야장 밥먹으면 빌어먹은다</p> <p>○사름이 상 가달을 냉기지 말라(아으덜 신데 레 상 가달 냉기민 초치 안 한다)</p> <p>○아침이 죽쑤영 먹영 외방가민 머정었다</p> <p>○낮이 혼 음식 밤이 먹음은 좋곡, 밤이 혼 음식 낮이 먹음은 나쁘다</p> <p>○밤중이 들어온 음식을 먹으면 해롭다</p> <p>○잔치에 쇠괴기 씨민 살림이 안된다</p> <p>○잔칫 때 호박국광 매역국은 안 끌린다</p> <p>○절간이 갈 때 괴기 먹영 가민 안된다 (범당에 갈 때 괴길 먹영 가민 죄받나)</p> <p>○동짓날 꽃죽 쑤영 먹으면 객신 돌림에 미치지 안한다</p> <p>○동짓날 콩죽 쑤영 먹으면 곳불한다</p> <p>○외방갈 때 즈베기 먹으면 머정었다(제수었다)</p> <p>○땅에 떨어진 거 봉강 먹으면 땅할오망 된다</p> <p>○어린애기 버러진 사발에 밥 주지 말라.</p>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두린 아이신디 독새기 맥이민 머리가 둔한다</li> <li>○아으덜 누냉이 굵어 먹지 말라 (누냉지 먹으면 글 못 한다)</li> <li>○커오는 아으덜 목 주지말라</li> <li>○홀아방이 콩죽 누냉이 맛보민 각시 못얼나 (각시 얻을 생각 었나)</li> <li>○매누리가 독대강이 먹으면 씨어멍 눈 밝이 난다</li> <li>○곳뽕 걸린 사름 신 집이서 죽수영 먹으면 그 집 식귀가 다 곳뽕에 미친다</li> <li>○뱅정 나가는 사름이 석돌전이 독 잡앙 먹영 가민 늦다(나쁘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음식을 싱겁게 먹는 사름은 몸에 털이 돋은다</li> <li>○안주 안 먹으면 사위 덕 못본다</li> <li>○풀 먹으면 글 못한다(묵, 누냉이)</li> <li>○약을 두 사름이 혼디 사당 먹지 아니한다</li> <li>○인습 든 약불에 담뱃불 부저민 약효가 었다</li> <li>○살림집이 물황급이 몰르민 그 살림이 노고 록을 안한다</li> <li>○먹는 물에 오줌 싸민 황천가민 머리꼭으로 그 오줌을 죽앙 물광 오줌을 든 굽갈라 내여 농랭한다</li> <li>○술팽 홍글민 싸움난다</li> </ul>
--	---

### 3) 주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칠석날에 통시 손보민 늦다</li> <li>○칫간(통시, 돛통시)에 가 온 낭 못짓나</li> <li>○돛통을 베우민 동티난다</li> <li>○젊은 사름은 통신 배우지 아니한다</li> <li>○통시를 아무 방위로나 파민 좋지 안한다</li> <li>○돛통담으로 집을 짓이민 사름이 죽은다</li> <li>○칫간 뜬은 돌은 한간(상방문, 대문) 냉기지 말라(통시 헛신 돌은 한간 냉기민 해롭다)</li> <li>○천화일에 집 일민 불난다</li> <li>○올래를 아무딜로나 내민 늦다</li> <li>○아무날이나 정을 손보민 동티난다(~정주먹 고치민 동티 난다)</li> <li>○문전 발레로 물코 트민 해롭다</li> <li>○마당 도투민 승협이 한다</li> <li>○마당잇 혹은 올래레 썰어가민 북 나간다</li> <li>○살단 집이 마당에 물통 파민 해롭다(손해본 다, 동티난다)</li> <li>○사는 집이 뒷담 높이민 그 집이 손해본다</li> <li>○집 가질 북테레 늘리지 말라(집 가질 북착테 레 내어늘리민 늦다)</li> <li>○집터가 느지민 손해를 본다</li> <li>○새 집 짓영 성주목신을 안지우민 '본향에도 오지 말라'한다</li> <li>○새 집 짓영 삼년 안에 개 잡앙 먹으면 늦다 (물쇠기 숯양 먹으면 나쁘다)</li> <li>○새 집 짓일 때 중싱 말을 호민 여망이 었다</li> <li>○집은 7새집으로 안 짓나</li> <li>○집 짓영 곧 초상집에 가지 안 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집 짓일 때 지동굽에 낭주죽이 들민 그 집 이 선 떡이 익지 아니한다</li> <li>○집 짓일 때 낭글 거스로 세왕 짓이민 그 집 이 선 떡이 안 익은다</li> <li>○삼방낭글 조왕발레 가민 떡이 선다</li> <li>○안꺼리보단 밖거릴 높게 짓이민 해롭다</li> <li>○운웃이 짓는 집은 말코지 집 밖이 못 짓은다</li> <li>○드러오는 이스집은 받아주곡, 나아가는 이스 집은 밀어볼라</li> <li>○이스끝 상스끝이 몹지 안호민 해롭다</li> <li>○이스호영 나가는 사름이 방썰민 그 집 임제 가 씨원치 못한다(이스호영 나가는 사름이 방썰민 그 집 임제가 굿이다)</li> <li>○이스홀 댐 남죽(배수기)광 비츠록은 안 7정 간다</li> <li>○막은 방으로 이스 안한다</li> <li>○칠월 으드렛날 북착으로 이스호민 잡귀가 범한다</li> <li>○상뜨르가 소릴 내민 대주가 죽은다</li> <li>○날래 년 명석, 올래에서 집안티레 몰아와사 호주 집안티서 올래 몰아가지 아니한다</li> <li>○마리 문전테레 돌아야장 푸는체질 안 한다 (푸는체질호민 나쁘다, 망한다)</li> <li>○푸는체질은 올레렌(올레 발레렌) 아년다(올 레레 돌아야장은 안한다)</li> <li>○머릴 북테레 호영 자민 단행한다</li> <li>○백장 펜광 솔 건 펜테렌 머리 돌리지 아니 한다</li> </ul>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엎어정 자민 빈복한다</li> <li>○누워 잘 때 임명이에 풀 올려 놓민 나쁘다 (누워 잘 때 한숨 쉬민 늦다)</li> <li>○놈으 집이 강 배개 우티 올라 아지민 비리 올른다(배개 꼴앙 앓지 아니한다)</li> <li>○방 빗츄룩은 안 세운다</li> <li>○빗차락을 머리말디 놓왕 자민 꿈사리 어지 럽다</li> <li>○빗차락(또는 빗치룩)으로 사름 뜨리민 복 털 어진다</li> <li>○친정엿 비차락은 물러가지 아니한다</li> <li>○외방갈 때 방썰민 머정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숫물을 놈광 곶이 씨민 싸움한다(흔시숫대 에서 둘이 시수호민 서로 썩나, ㄷ툏다)</li> <li>○시숫물을 하영 놓왕 시수호민 저싱가민 그 물을 먼 먹으랭 한다</li> <li>○방 안에서 우산을 패우지 아니한다</li> <li>○집안에서 쇠푸름 불민 도둑든다</li> <li>○집안네 숙대낭 하영 싱그민 즈손이 나가분다</li> <li>○집안이 거미줄이 하민 머정었다</li> <li>○문 글강이민 나그네 든다(대문을 끼가기민 동냥바치 온다, 손님이 들어온다)</li> <li>○살아난 집이 돌아왕 살민 그 사름은 죽은다</li> </ul>
---	---

## 2. 통과의례(通過儀禮)

### 1) 임신·출산·육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놈으우 된 때 그르음식을 먹으면 애기의 술 성이 거칠어진다</li> <li>○놈으우 된(애기 밴) 때 뒷개고기 먹으면 얼챙이 난다</li> <li>○애기 밴 예펜이 가마귀 괴기 먹이민 그 애 기가 크민 잇음 잘 한다</li> <li>○예펜이 애기 밴 때 독늘개기 먹으면 그 애 긴 그릇 벌른다(예펜이 독대강이 먹으면 그 애기가 욱으면 그릇을 벌른다)</li> <li>○예펜이 애기 밴 때 독발을 먹으면 그 애기 냥민 발 실렵나</li> <li>○애기 밴 때 독새기 하영 먹으면 그 애기 몸 에 허멸 난다(애기 밴 때 꿈에 독새기 먹어 뵈민 그 애길 냥민 애기 몸에 허멸 난다)</li> <li>○애기 난(몸 갈른) 때 둘 잡으면 부정탄다</li> <li>○애기 난(몸 갈른) 때 독새기 솥양 먹으면 좃 안 난다</li> <li>○애기 밴 때 강이 먹으면 좁제기 애기 난다</li> <li>○애기 난(몸 갈른) 때 생성 구민 애기 술성이 나쁘다</li> <li>○애기 난(몸 갈른) 때 개괴기 먹으면 늦다</li> <li>○놈으우 된 땀 물 넘영 가민 해롭다</li> <li>○아이 밴 예청 물줄 냉기지 아니한다</li> <li>○애기 밴 예펜이 뱃줄 가달 냉기민 그 애기 날 때 뱃도롱줄이 애기 애개기에 걸려진다</li> <li>○예즈가 애기 밴 때 화릴 가달 냉기민 애기 몸에 허멸 난다(화답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놈으우 된 땀 뺨질 걷지 아니한다</li> <li>○애기 밴(놈으우 된) 땀 곡소리 안한다</li> <li>○애기 밴 때 나쁜 뱃에 걸린 사름이나, 중싱 잡는 걸 배래지 안 한다</li> <li>○놈으우 된 사름은 버랭일 잡지 아니한다</li> <li>○애기 밴 예펜이 고냉이 죽이민 고냉이 닳은 애길 난다</li> <li>○놈으우 된 예즈가 뺨신을 보양 옷지 말라</li> <li>○애기 밴 때 쇠머리말디 강 오줌 싸지 말라 (쇠머리 말디 강 오줌싸민 니치림 흘린다)</li> <li>○애기 밴 사름은 덩그렁막겔 꼴앙 앓지 아니 한다(애기 밴 사름이 덩그렁 막겔 꼴앙 아지 민 그 애길 나민 조쟁이가 크다)</li> <li>○애기 밴 예펜이 방엿혹을 꼴앙 아지민 애길 오래 뵈나</li> <li>○놈으우 된(애기 밴) 사름은 시릴 들렁 탱기 지 안한다</li> <li>○애기 밴 사름은 놈이 눈까실 내여 도랭 혀도 그 가실 내여주지 아니한다</li> <li>○동닛칫 불난 때 애기 밴(놈으우 된) 예펜이 화룩하게 나가민 그 애기에 간질 난다</li> <li>○배염 문 사름 죽꼴디 애기 밴 사름이랑 가 지 말라</li> <li>○애깃방석을 막은 방에 강 물으면 다신 애기 못냥곡, 집 어염에 강 술민 애기가 좃곡, 멀 리 강 브리민(술민) 애기가 두물게 난다</li> <li>○애기뵈을 계엿지 권 디 강 술민, 그 애기 몸</li> </ul>
--	--



<p>땡이에 슿락스락 혼 게 낭 그릅나</p> <p>○애깃봇을 멀리 보내민 애기 어명이 다신 애기 못난다</p> <p>○애깃봇을 사흘 전인 안순다(애깃봇을 사흘 전이 술민 할망 애둔다)</p> <p>○애깃봇을 산빌레레 강 안순다(애깃봇을 산빌레레 강 술민 다신 애기 못난다)</p> <p>○애깃봇을 우렛담 배겼디 강 묻으민 애기 어명이 다신 애기 못난다</p> <p>○애기 난(몸 갈른) 때 풀질흐민 앵기 양지에 버짐 오른다</p> <p>○애기 난(몸 갈른) 땀 애길 예즈웃으로 끄리지 말앙 애기 아방 알웃으로 끄려사 한다</p> <p>○애기 난(몸 갈른) 땀 중싱이 잡지 아니한다</p> <p>○애기 난(몸 갈른) 때 높 시불턱 알리지 말라</p> <p>○애기 날(몸 가를) 때 애기 머리가 동테레 털어지민 동부제 되곡, 서테레 털어지민 서가난 되곡, 담테레 털어지민 남장수 되곡, 북테레 털어지민 북단맹 한다</p> <p>○애기 날(몸 가를) 때 손 산 방위레 돌아아지나 누나 흐민 순산흐지 못한다</p> <p>○애기 날(몸 가를) 때 못질흐민 늦다</p> <p>○물애기가 배속에서부터 니 돌앙 낳민 장수치 아년다(크지 아니한다)</p> <p>○뱃도롱줄 즈르게 그치민 오줌이 즈진다</p> <p>○아들 낳민 올래에 솟기 매영 솟광 고치 시겔 드라매여사 한다</p> <p>○물애기 낭 사흘 전이 윈 사름이 들어오민 애기에게 해롭다</p> <p>○애기 낭 사흘 전이 옷을 버리민 그 애기가 똥을 잘 똥다</p> <p>○애기 낭 사흘 전이 날래 널민 그 애기가 크민 곡속을 허대겨분다</p> <p>○애기 낭(몸 갈랑) 사흘 전인(사흘 안네) 동녕 주지 아니한다</p> <p>○애기 낭 사흘 전이 술강알에 불첵 파내민 안 된다</p> <p>○애기 낭 일뢰 전이 볍음질흐민 애기 몸에 부 시럼지 난다</p> <p>○애기 낭 일뢰 전이 곡속방울이 불레레 들엉, 카나 괴길 불레레 지딩 구나 흐민 그 애기 양지에 허멀이 난다(부시럼지 난다)</p> <p>○애기 낭 일뢰 전이 스답에 풀흐민 풀스지</p>	<p>아니한다</p> <p>○애기 낭 일뢰 전이 영장칩이 가민 해롭다</p> <p>○애기 낭 일뢰 전이 집이서 그릇을 벌르민 어린 애기에 살성이 간다</p> <p>○애기 낭 일뢰 전이 곡속을 놈 주어불민 그 애기가 옥아 가민 곡속을 혁꺼분다(허대겨분다)</p> <p>○쳇 애기 낭 사흘 전이 놈신디 무싱걸 주어불민 조치 아니한다</p> <p>○물애기 난 집이서 일뢰전이 누게라 왕 물건을 그정 나가부나, 또시 그 집테레 상제가 들어 가불민 그 집 애기 어멍 죽이 즈래질 아니한다</p> <p>○애기 낭 일뢰 전이 밖이서 흑을 파민 그 애기가 죽은다</p> <p>○애기어멍 쳇 애기 낭 좇 맥일 때 툃사름이 왕 방 죽이 잘잘 느롬져 안느롬져 흐영 그르민 애기할망이 승보양 죽이 잘 안난다</p> <p>○애기 낭 혼달 안에 누게라 속절해불민 애기어멍 좇줄 가둔다</p> <p>○애기어멍 쳇 애기 낭 혼돌 전인 놈으 애기엔 좇 안맥인다(애기어멍 쳇 애기난 때 혼돌 전 이 놈이 애기에 좇을 맥이민 할망이 승보양 좇을 만나게 한다)</p> <p>○애기 낭 체얌으로 바깥디 나갈 땀 솟을 썩가 사 한다</p> <p>○애기 낭 백일 전인 애기 업지 안 한다</p> <p>○애기 돛전이 돛괴기 주지 말라(애기 돛전이 돛괴기 주민 정세 돌아진다)</p> <p>○애기 쳇 돌날 밥·떡·쌀·연필을 출령 할망상을 놓아주어사 애기가 잘 크다(애기 쳇 돌날 할 망상을 놓아주지 아니흐민 애기가 잘 안 크다)</p> <p>○애기 낭 일러부는 집이 애기 날 땀 애기 잘 키우는 사름이 강 궂난애기신디 “아이구, 나 애기!” 흐민 그 애기가 잘 크다(애기 낭 일러부는 집이 애길 낳민 애기 잘 키우는 집 의 즈식으로 수양을 주어사 잘 키운다)</p> <p>○애기 하영 낳는 사름이 애기 날 때 애기 못 낳는 예펜이 왕 “할망 흘술 빌림 서쟁”흐영, 애기할망을 빌영 가불민 그 예펜은 애길 낳지곡, 할망 빌려준 사름은 다신 애길 못 난다</p> <p>○애기가 너무 잘 논명 자랑흐민 할망이 승보</p>
--	---

<p>양 그 애기가 운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줄자는 애기가 옷테레만 치받으멍 올랑 자는 애긴 맹이 쪼르곡, 알레레만 쫄쫄 느르 자는 애긴 맹이 진다</li> <li>○ 애기 머리가 총대기 꼴랭이 모냥으로 등기민 그 애긴 팔즈가 썬다</li> <li>○ 애기 머리뺍(대강이) 딱리지 말라</li> <li>○ 애기 몸곰아난 물 찰락하게 비우지 말라(애기 몸곰아난 물 찰락하게 비우민 애기가 노 램탄다)</li> <li>○ 애기 아까왕 너미 입을 맞추민 애기에 뇨다</li> <li>○ 애기 세드리 울리지 말라</li> <li>○ 애기가 자당 밤중에 즈지 울민 그 애기가 해롭다</li> <li>○ 아아가 곳인 거 불뜨민 밤이 자당도 두령칭 이 운다</li> <li>○ 애기 지성귀를 솔강알 불에 최우지 말라</li> <li>○ 애기웃이나 지성귀 밤이 밖이 널영 이실 마 치민(비에 적지민) 그 애기에 존뵤이 한다</li> <li>○ 물애기 옷을 막개로 빨민 애기가 저끔탄다</li> </ul>	<p>(애기가 노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애기구덕 머리말디 불괵을 놔두민 나쁜 것이 접새 안한다</li> <li>○ 애기구덕 바위돌룬 므침을 머리말 착으로 강흔 구덕이선 애기 못 질룬다</li> <li>○ 발디서 애기 그늘캐 해여난 거, 그냥 내불엇 당 뒷녁날 또 그늘캐에 강 야길 놀리민 그 그늘캐엔 귀신이 불엇당 야길 괴롭게 한다</li> <li>○ 물애기 낭 일년만 되민 좃을 테라</li> <li>○ 물애기 불싼데레 앞호영 앓지 말라</li> <li>○ 아방을 너미 돌르는 애기는 아외운다 (맹이 쪼른다)</li> <li>○ 애기 신디 멘경 배우민 어멍 돌룬다</li> <li>○ 좃을 짱 느진 디 브리지 말라</li> <li>○ 니빨을 빼영 놔우우 된 사름신디 배움인 그 애기 니가 늦게 돌은다</li> <li>○ 어린애기 니 돌을 때 얼레기질흐민 니가 성긴다</li> <li>○ 애기를 아니 배여본 사름은 저싱가민 죄 받 은다</li> </ul>
---	--

## 2) 결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스로 장개가민 집안 망한다</li> <li>○ 오뉴월에 혼스흐민 나쁘다</li> <li>○ 쇠날에는 관을 씨지 아니한다</li> <li>○ 스주가 맞지 아니흐민 결혼 못한다</li> <li>○ 메뉴리 구홀 때랑 급흔 일 웃어도 급흔 일 신 듯지 듯는 사름이랑 구흐지 말라</li> <li>○ 새각기나 새시방이 체암 나갈 때 느단 발을 문저 내여 놓아사 그 살림이 질이 간다</li> <li>○ 새시방 탄 톨 등 털민 그 살림은 안된다</li> <li>○ 동니 잔칫집이 새시방이 가기 전이 상체가 문 첨 가지 아니한다</li> <li>○ 새각씨가 씨집갈 때 집 밖겅디 나가볼민 대문 밖겅디 소금을 뿌려사 한다</li> <li>○ 새각씨 들어올 때 씨어멍 봐볼민 그 씨어멍 광 새각기 새에 순 벗어진다(잔칫날 새각기 드라당 앓정 새각기가 밥상 받기 전이 씨어 멍이 새각시 얼굴을 보민 씨어멍 메뉴리 새에 순 벗어진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각시가 씨집강 상받기 전이 옷트레 눈뜨민 뇨다</li> <li>○ 새각시 씨집가는 날에 울민 늙어 죽도록 울 일만 난다</li> <li>○ 잔치홀 때 새각시나 새시방 옷에 홀옷광 소 개 옷은 입지곡 줍옷은 안 입진다</li> <li>○ 잔칫날 브름 불민 살림에 풍파가 생긴다</li> <li>○ 잔칫날 새각시가 씨집강 방안티서 괴광테레 돌아아지민 부제로 잘살곡, 바깥테레 돌아아 지민 그 집을 서냥 못한다(떠난다)</li> <li>○ 잔칫날 새시방이 새각시침 올래에 오랑 느 리 건 질카르지 말라</li> <li>○ 잔칫때 흥새가 비리민 안된다</li> <li>○ 잔칫집이 소로기가 넘어가민 불화가 생긴다 (나쁜 일이 생긴다)</li> <li>○ 큰 각시 박대흔 늙은 되지 아니한다</li> <li>○ 두갯 싸움은 멀리지 안한다</li> <li>○ 사둔침이 강 노랑 강생이 물려오민 안 된다</li> </ul>
--	---

### 3) 죽음·장례(葬禮)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픈 사람 떡 찌시민 그 뺑에 진다</li> <li>○눈 사람안티 절흐민 눈 사람이 해롭다</li> <li>○중뵈 든 사람이 약 먹영 머릴 북착테레 흐영 누민 약효가 엇나</li> <li>○으름에 너미 즘을 장 즘뺑에 걸리민 그 사람 살기 어렵다</li> <li>○자귀낭 아래 즘을 자민 초학뺑에 걸린다</li> <li>○콩각지 불습으민 돌림뺑으로 아픈다</li> <li>○해낮이 뺑을 본 사람은 그 해에 죽은다</li> <li>○죽은 사람으 옷이나 신을 스용말라</li> <li>○죽은 사람 묶으는 뵈 짓배론 안 묶은다</li> <li>○총각으로 늙영 죽으민 저싱가민 망대기씨운다</li> <li>○치녀 죽은 시체는 질긋디 문영 입건지흐라</li> <li>○노정박스흔 사람 집안테레 드러놓민 해롭다 (집안테레 드러놓지 아니흐다, 집밖이 나장 죽은 시체 집안티 드러놓민 그 집안이 망흐다, 올래 밖엿디서 난 영장 집안테레 드러놓지 아니흐다, 집안테레 드러놓민 집안망흐다)</li> <li>○아이 죽영 나가볼민 방안티서 그릇 벌르다 (벌러사 흐다)</li> <li>○아이들이 방장대 짚으곡 곡흐는 승을 털민 그 동니에 영장난다</li> <li>○삼이웃테(동니) 영장난 때 바농질을 흐나 머릴 곱으나 스답을 흐나 흐민 그 죽은 사람이 저싱장 소도리 흐여볼민 그 사람도 재계 죽게 된다</li> <li>○동니나 부미 초상난 땐 성복흐기 전인 머리 빗지 아니흐다(동니나 부미 초상난 때 성복흐기 전이 머리 빗이민 머리턱이 빠진다)</li> <li>○시체 모신 방에 고냉이 소리가 나민 관이 일어산다(영장난 때 굴묵 어귀 막지 아니흐민 해롭다)</li> <li>○동관흐영 나갈 때 관이 조왕을 비추민 늦다 (조왕할망이 노랜다, 솟이 울렁 벌러진다)</li> <li>○동관흐영 나갈 때 관이 문지방에 다대기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치민) 즘손이 안 된다(병어리 즘손 난다, 딸 모르고 귀 막은 즘손 난다, 꺾이 썬나)</li> <li>○동관흐영 나갈 때 혼백상 진 사람은 뒷테레 브래지 안흐다</li> <li>○영장 나갈 때 질칼르민 늦다(질카르지 말라)</li> <li>○영장난디 가 온 사람이 사흘 전이 매주를 숭으민 그 매주로 담은 장은 맛이 엇인다</li> <li>○영장 매영 갈 때 선묘 앞서서 해매흐지 아니 흐민 즘손 안 된다</li> <li>○영장 문을 때 산쪼곱에 돌맹이나 낭불 리가 들어가민 늦다</li> <li>○영장 멩직아난 손은 된장으로 쿡쿨 시치지 안흐민 그 손은 캔다</li> <li>○장발디 밥흐레 간 솟이 영장 비추민 벌러진다</li> <li>○행상흐영 가땡 배땡(무겁땡) 흐민 더 뵈다 (무거운다)</li> <li>○행상흐영 나갈 때 멩전 들른 사람이 뒤테레 브래지 아니흐다</li> <li>○호충에 꺼린 사람은 입관홀 대광 하관홀 때 보민 직스한다(불리흐다)</li> <li>○흔 동니에 곱은 날에 영장이 나곡 잔치가 시민 그 새시방이 나가기 전인 초혼을 못 불르다</li> <li>○상제가 세압 막으민 영장흐지 못흐다(상제가 세압 막은디 영장흐민 삼년 안네 죽은다)</li> <li>○상제가 삼년상을 냉기기 전이 누게광 장난을 흐땡 머리 심영 동기민 안된다</li> <li>○삼일장 시뵈만 흐민 집안 망흐다</li> <li>○산에 물이 들민 늦다(그 즘손이 망흐다)</li> <li>○산을 잘 못 씨민 즘손 망흐다</li> <li>○산 천리홀 때 유골을 백보 백이 강 놓아사 흐다(~백보 백이 강 놓지 아니흐민 상제가 직스한다)</li> <li>○산터 보레 갈 땐 짚은 예줄 만나민 스망일곡 늙은 예줄 만나민 머정 벗어진다</li> </ul>
---	--

### 4) 제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일제스 때 조왕 앞서서 바룻피기 구민 거얼어진다</li> <li>○기일제스 땐 고사리 탕설 올려사 흐다</li> <li>○산이서 꺾은 고사리 식게 멩질에 안썬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식게 때 조왕 걸명엔 바룻피기랑 고사린 아니 툃다 논다</li> <li>○식겅 때 구쟁이 적 흐민 둥글어 탱기는 즘손 나곡, 문칫떡 치민 무후흔 즘손 난다</li> </ul>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갯 때 적닥살 다실리민 즈손 가분다</li> <li>○ 쓱쇠(식쇠) 괴긴 식게에 아니 씬다</li> <li>○ 철리터 곡속은 식개 멧질에 아니 씬다</li> <li>○ 식갯밥은 치영 먹지 아니한다(~치지 말라)</li> <li>○ 식갯밥에 머리턱 들민 뇧다(멧밥에 머리턱 들민 조상이 노한다)</li> <li>○ 부미가 죽영 성복제 지낼 때 안 올려난 음식은 대소상 식개 멧질 때도 안 올린다(성복제 지낼 때에 아니 올려난 제물은 대상 소상이나 식개 멧질이 돌아오랑 올려도 싱감 아니한다)</li> <li>○ 멧밥 먹당 남은 걸로 지집아이 옷에 풀혀영 입지민 식개 때마다 월경온다(초상에 올렸던 멧밥은 풀 아니한다, 멧밥 먹단 남은 걸로 애기옷에 풀혀영 입지민 그 아이가 출세하지 못 한다)</li> <li>○ 놉으 집이서 식개 넘어냥 떡 ㄱ저왕 먹을 땐 흑곡씩 그창 캐우려 두영 먹지 안하민 나쁘다(놉으 집 식개 넘어냥 음식이 들어오민 어른이 문저 그차 먹어 냥 아이들안티 준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상을 박접하민 앞질이 어둡다</li> <li>○ 식게를 합제하민 집안 망한다</li> <li>○ 비린 사름은 제 보지 말라(좍조지 안 한다, 제 보민 안된다)</li> <li>○ 식갯날 머리 빗이민 간이 망한다</li> <li>○ 식개 멧질날 바농질 안한다</li> <li>○ 식갯날 스답줄을 매민 조상이 오당 돌아가분다</li> <li>○ 식제 홀 때 어린 아으가 올민 그 집안이 좋지 아니흔 일이 생긴다</li> <li>○ 식개 땐 고냉일 혼 펜테레 치왕, 나상 늑뜨게 아니한다</li> <li>○ 식갯날 싸우민 조상이 식개 먹으레 아니온다(식갯날 즈손들이 싸우민 조상이 식개 먹으레 오당 돌아가분다)</li> <li>○ 식갯날 피 내우민 조상의 영혼이 오지 아니한다</li> <li>○ 소분홀 때 풀을 우티로 그치민 걸흔 즈손난다</li> </ul>
--	--

### 3. 세시(歲時)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월 초흘날부터 보름날 ㄱ진 ㄱ래 방애 아니한다</li> <li>○ 정월 초흘날 물허벅 지민 등 오그라진다 (정월 초흘날 매맞이민 죽장 매맞인다, 정월 초흘날 애기덜 육혀곡 따리민 그해 내냥 육혀곡 따려진다, 정월 초흘날 일하민 그 해 내냥 일만 한다, 정월 멧질날 드투민 그 해 내냥 드툏다, 정초에 스답하민 그 해 내냥 스답만 한다, 정초에 죽을 먹으민 그 해 내냥 궁한다))</li> <li>○ 정월 초흘날 날 새백이 예펜이 놉으집이 가민 그 집인 근심이 생긴다((정초에 예펜이 왕 올 민 그 해 내냥 머정 벗어진다))</li> <li>○ 정월 초흘날 늑좁을 자민 눈썹이 센다</li> <li>○ 정월 초흘날 스나인 낭민 좋으냐, 지집아인 낭민 질하지 못하다</li> <li>○ 정월 초흘날이 무기일이 당하민 그 해에 승험이 든다</li> <li>○ 정초에 죽제비 보민 머정 벗어진다</li> <li>○ 정월 대보름날 방쉬혀여 분거 체얌 본 사름은 액 맡은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월 대보름날 비질 하민 뇧다(나쁘다)</li> <li>○ 정월 대보름날 아척이 인척 거리에 나가지 말라</li> <li>○ 정월 멧질날 송굽 ㄱ시민 빈복한다((정초에 소금장시가 들어오민 가난한다, 정초에 그릇 벌르민 머정엇나, 정초에 밥숙끄락 일르민 머정벗어진다, 정초에 신발 일르민 그해 내냥 재수엇나))</li> <li>○ 멧질날에 일하민 죽을 때 헛손 맨다</li> <li>○ 정월달에 개괴기 먹으민 머정엇나((정월 초상에 물괴기 먹으민 그해 내냥 머정 벗어진다))</li> <li>○ 정월달에 불난 집은 그 해에 시번 불이 난다</li> <li>○ 이월달엔 물괴길 먹지 말라</li> <li>○ 영등에 곡속밭디 검질 매민 굶뻥이 꺾다(굽버랭이 꺾다)</li> <li>○ 영등에 스답혀영 널지 아니한다(영등에 스답혀영 널민 구데기 꺾다)</li> <li>○ 새 철 냥 배 으정 멧기민(멧이민) 배얌이 하영 멧긴다</li> <li>○ 새 철 드는 날은 독독 소리 안 내운다(새 철</li> </ul>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드는 날 뚝뚝 소리 내우민 머쉬에 손해간다, 새 철 드는 날 뚝뚝 소리 내우민 중이 권다, 쥐머리 도진다, 새 철 드는 날은 불 아니 썬다, 새철 드는 날 불 싸민 청이 머리 도진다)</li> <li>○새철 드는 날 돈을 놔 귀와주민 그 해 내낭 머정었나</li> <li>○정월 낭 췌 첫날에 ㄱ래, 방애, 막개질 아니 혼다((정초 췌 첫날에 콩흔 될 쇠 맥이민 다 른 제 혼 섬 맥인 것광 맞스다))</li> <li>○염송애기날(염소날)에는 약을 먹지 말라</li> <li>○원숭이날에는 낭글 졸르지 말라(낭을 츠르지 말라)</li> <li>○개날에는 개를 잡아 먹지 말라</li> <li>○돛날엔 통시엿 돛을 내치지 아니혼다</li> <li>○독날에 독 잡아 먹으면 그 집이 독이 안된다</li> <li>○독날에 빙애기 안느리운다</li> <li>○독날엔 지붕을 일지 말라</li> <li>○독날에는 회집을 말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믄날에는 우물을 파지 아니혼다</li> <li>○범날에는 봉제혼다(범날에는 산제하지 말라)</li> <li>○신일에 메주 등그민 장맛이 었다</li> <li>○인일에 장을 등그민 그 장 다 먹기 전이 그 장으로 손 시칠 일이 난다</li> <li>○쟁이날엔 짐을 치지 말라</li> <li>○배염날에는 먼 질을 떠나지 아니혼다</li> <li>○배염날에 집 일민 지붕이 배염줄이 골파진다</li> <li>○삼패일에 출행해서는 박아놓고 안된다</li> <li>○나흘날 질을 떠나민 ㄴ다</li> <li>○사흘날이나 나흘날은 손이 남방애 시니, 이 날이 착이서는 미신 일이든 혼민 해롭다</li> <li>○오뉴월엔 아진 방식도 못 고쳐 안나(오몽 안 혼다)((오뉴월은 토왕지절이니 이때 이스혼 민 송힘든다))</li> <li>○선돌 구름날 처낙이 누영 정월 초하를날 인 칙 일어나지 아니혼민 눈썹이 쟈다</li> <li>○대소한 새에 나간 사름 지드리지 말라</li> </ul>
--	---

#### 4. 생업(生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새해 낭 췌 첫날엔 밭 아니 간다</li> <li>○새해 낭 췌 씨 빨 땀 막은 방테렌 빼여가지 아니혼다</li> <li>○새해 낭 췌 씨 빼는 고숙밭디 ㄱ로질렁 넘 어 가민 그 용시에 ㄱ로 지미진다</li> <li>○고쳐일에 산뒤 갈민 몰랑 죽은다</li> <li>○감제씨 문을 땀 영장밭디 강 온 사름이나 비린 예즈가 그 썰 문으민 썬은다</li> <li>○춤외왔디 영장을 본 사름이나 몸곳인 예펜이 들어가민 외왓 망친다</li> <li>○곡숙밭디 종즈를 슝와불민 황천의 죄를 받는다</li> <li>○검질 매여낭 굴갱이 씻이민 검질 짓나</li> <li>○놈의 밭디 용시를 임제보단 몬져 혼여당 먹 으민 죄가 크다</li> <li>○용시혼는 밭디서 남즈가 씨 빼는 디 예펜이 굴룬 소리 아니혼다(예펜이 좃게 빼염져 혹 게 빼염져 고갯소리 아니혼다)</li> <li>○용시홀 때 혼 밭디서 시 사름이 썰 빼민 그 중 혼 사름 뵤 썬 진다</li> <li>○빙애기 앓정 반 이상 안 깨우민 그 집 그 해 용스가 아니 존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디딜팡애 갈래죽 세우민 그 해 그 집의 용 시 안 된다</li> <li>○밭 갈레 갈 때 빈 허벅 진 예펜이 질 칼르민 그 날 뱃보섭이 부러진다</li> <li>○밭디선 니 아니 잡나</li> <li>○산뒤왔뒤 똥 아니 썬다</li> <li>○콩밭디 똥을 싸민 배락 마진다</li> <li>○물에 강 죽을 사름은 팔년간을 메웠당 혼벨 탕 강 죽은다((죽을 놈은 혼배에 오른다))</li> <li>○바당애 갈 때 빈허벅 진 사름 질 칼르민 머 정 벗어진다</li> <li>○바당애 구물 놓왕 그 구물에 거북이 올라오 민 삼년 머정었나</li> <li>○바당이 배 뜯어진 낭글 집안에 ㄱ져오민 그 집은 망혼다</li> <li>○보제기질 삼 스대를 혼민 초상을 물에 녹진다</li> <li>○성제광 예비아들은 혼 배애 타지 말라</li> <li>○장시혼는 배애 예즈가 오르민 머정 벗어진다</li> <li>○저실에 바당애 땀 하영 들민 사름 하영 죽 은다</li> <li>○정월 초사흘날 바농질혼민 바당애 땀기는 사름은 손치 썬운다</li> </ul>
---	---

○죄짓날에 대 비민 다시 돈지 아니한다	○곡, 경 아녀영 곱살을 으라개 이시 대겨지민 그날 머정 벗어진다
○한죄짓날에 빈 보리 작만흐민 듯뿌리 인다	○장스흐는 집이 정월 초흐를 날 새백이 예편이 가지 말라
○흔 통에서 물꾸럭 시겔 심으민 그 심은 사름은 머정 엇어진다	○식전이 물건을 외상으로 주민 그날 해원 외상 줄 일만 난다
○장시흐는 사름 솟 불르민 머정엇나(재수엇다)	
○장스 나가는 날 아척이 조반홀 때 쳇번 곱살로 불을 내영 밥을 흐여지민 그날 머정 좋	

5. 신앙

○본향에 갈 때 안스흐민 늦다	○코시흐는 집이 개괴기광 물괴기 먹은 사름이 가민 부정탄다(~죄 받는다)
○귀신을 위찬흐레 갈 땐 앞테레만 고추 브래명 가사 혼다	○방쉬(방새)ㄴ정 나가는 디 만난 사름은 직통액 맡은다
○비린 사름은 당에 못간다	○돌림뱅 흐는 집이서 지름을 씨민 그 동니 전체가 그 뱅에 걸린다
○본향에 갈 때 비린 걸 먹영 가민 부정탄다	○돌림뱅 홀 때 굿인 가마귀가 울민 뱅이 도진다
○영장난 디 갔당 온 몸은 본향엔 못간다	○마누라흐는 애기 신 집이 식개 멩질이 돌아와도 마누라 적시 메를 문침 거령 놉두영 식개 멩질 메를 거린다
○본향에 갈 쫄을 고평개 맥이민 늦다	○애기 마누라홀 때 집안네 곡속이나 돈을 놉신테레 주민 그 애기가 송보양 죽은다
○본향이 낭근 거실지 아니한다	○ㅁ실에 한집 든 땐 곡소리도 안 혼다
○본향에 땡기단 사름이 안땡기민 그 집 아으덜 몸에 부시럼지 난다	○당폭낭글 거실민 천벌을 받는다
○본향제일이 엇인 당은 생기 맞추와사 간다	○밤질 갈 때 버드낭 목둥일 쫄영 걸으민 잡신이 안붙는다
○자원당을 넘어갈 땐 인정 걸어사 혼다(~돌새길 대끼나 춤이라도 바쁘지 아니흐민 귀신이 나온다)	○귀신이 생사름 보왕 반가왕, 알은 체 흐민 생 사름은 괴로움이 된다
○불난 집잇 사름은 불찍아십 잇기 전인 죄인 몸이 되영 동닛침이 못 간다((불난 집잇 사름은 불찍앗임 전이 어디 가민 불리흐다))	○밤이 썩소릴 내우민 귀신이 나온다
○사름 죽어난 집이 귀양풀이 안흐민 그 집이 살앙 이가 엇다	○밤질 걸을 때 뒤테레 브래민 잡신이 범한다
○액막이 홀 때 질카르민 그 액 맡은다	○신안일 박접흐지 아니한다(정시 박접흐민 아니된다)
○푸다시 흐 뒤에 아픈사름신디 속절흐민 뱅이 도진다	○복덕개 큰 여 아랜 큰 심방이 신디, 그 아래 요왕할망이 사두서 줌네가 물에 들민 그 할망이 드라간다
○성주 거시리지 아니혼 집이선 식개 멩질을 못 혼다	○술강알에 장삼개염지 일민 그 집은 손해 본다
○시왕 청홀 때 질갈르민 체시질에 걸린다	○뱃동 아래 선금웃이 트라진 사름은 ㅁ심도 트라진다
○썩소리 내와난 귀신은 북소리론 안풀어진다 (~북소리 내왕은 풀어지지 아니한다)	○쿨락씨 술강알에 들민 아이들 머리에 부시럼지 난다
○조왕 거실민 안된다	○일름을 붉은 글씨로 씨민 급흔 일 난다(늦다)
○조왕 발레 하늘래기 싱그민 그 조왕에 동티 안난다	○택일을 잘 못흐민 꺾이 썩나
○동니 일(굿)을 쳐 낭, 그 날 액수가 느지민, 서방광 남방이 아니민 북방 스이에 놀낭 놀체스가 느령 일뢰 안에 액흔 사름이 죽게된다	○손산날엔 손산 착에서 일을 흐민 해롭다
○코시흐영 어가라 방 썰민 북이 나간다	



○하늘 올 때에 등땡이로 녹지 말라	변 거렁 캐우리지 아니흐민 해롭다
○드르에서 밥 먹을 땐 숙그락으로 흑곰씩 시	

## 6. 자연

### 1) 동물

○배염이 질 칼르민 머정엇나	○놈으깃 개가 집안테레 들어왕 죽으민 늦다 (놈으 개가 이녁집테레 들어왕 죽으민 액운 이 온다)
○배염이 집안티 들어오랑 사름 눈에 벤식흐 민 늦다	○난밖이서 개가 집안에 들어왕 죽으면 그 집 안에 영장이 난다
○배염이 집가지에 즈주 나뎡기민 집안에 액 운이 쏘나(~집안이 쪼긴다)	○두린 개가 사름 몰민 그 사람도 광 난다
○칠성 배염 거실민 승험든다	○개가 돌을 들리먹으민 그 해에 돌립뱅이 도 진다
○배염 딱령 죽이민 생살죄에 걸령 그 사름은 죽은다	○고냉이가 늦을 시이민 비가 온다(나그네 들 어 온다)
○배염을 송끄락으로 ㄱ리치민 송끄락이 썩나	○고냉이를 박대흐민 그 고냉이가 배염 곱은 걸 물영들영 심술을 피운다
○가마귀 굿이 올민 그 집은 손해본다	○고냉일 죽이민 액운이 들어온다
○가마귀가 백보 안에서 서테레 돌아상 올민 질 뱅이 들어온다	○고냉이 죽은거 하늘 배우민 집안이 망흐다
○가마귀가 백보 안에서 남테레 돌아상 올민 귀신이 들어온다	○밤이 여히가 올민 늦다(동니에 영장나쟁흐민 여히가 온다)
○가마귀가 백보 안에서 북테레 돌아상 올민 급 혼 손실을 당흐다	○여히가 산을 파민 즈손이 해롭다
○가마귀가 즈지 올민 돌립뱅이 생긴다(도진 다, 영장난다)	○초즈낙이 득이 올민 구설이 생긴다(그 집이 손해본다)
○중뎡 든 사름네 지봉 우티서 가마귀가 올민 그 사름은 죽은다	○암톡 올민 집안 망흐다
○먼 질 칼 때 가마귀 올민 머정엇다	○독터럭 불에 안 짓나
○밤 가마귀가 낭가지에나 담 우티서 굿이 올 민 동니에 화덕진군이 느린다	○비야기 느리왕 사흘 전이 ㄱ래 방애 흐민 비야기가 ㄱ래골듯 감장돌명 문 죽은다
○가마귀가 밖거리 지봉에서 안꺼리로 돌아상 올민 예펜들끼리 소도리 맞춘다	○빙애기(비야기) 느리울 때 덩그렁 막개질을 팡팡 흐민 그후 사흘 전이 막개질을 흐여도 승험이 엇곡, 그 막개질을 아니흐영 느리운 빙애긴 사흘 전이 막개질을 흐민 빙애기 대 갱이에 골 흥글영 문 죽어본다
○가마귀가 놀아가명 사름 머리에 흰 똥 굴기 민 상제들곡, 검은 똥 굴기민 빙이 든다	○쇠가 주둥이 돌령 우는 발레서 도독이 든다 (쇠가 돌아상 질게 우는 발레에서 도독을 마 치나 영장이 난다, 쇠머리 상흐영 우는 털로 영장난다)
○가마귀 새끼가 시개민 승년이 든다(승년진다)	○쇠막에 불난 때 ㄱ래 방앨 안 내치민 쇠므 쉬가 밖으로 안 나온다
○개 올민 영장난다	○쇠므쉬 질루는 집인 배경목낭광 몽쿠실낭근 불짓지 아니흐다
○개가 굴(땅)을 파민 늦다(나쁘다)	○배경목낭그른 쇠 딱리지 말라
○개 지봉 우티 올라가민 승험이 든다	
○개를 스년 이상 질루지 말라(개를 스년 이상 질루민 승험든다 혹은 유불가 삼년, 구불가 7년이민 그 집은 망흐다)	
○겐 봉그지 아니흐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쇠 질루는 집인 덧남[木名] 짓지 아니한다</li> <li>○ 얹남맹이에 태성 박은 쇠나 물은 주인을 해친다</li> <li>○ 함문물광 목카니 질루민 해롭다</li> <li>○ 어럭쇠 질루민 그 집안에 화가 닥친다(손해본다)</li> <li>○ 중싱이 새끼난 때 상제가 출입흐민 부정탄다</li> <li>○ 도새기 새끼 나기 사흘 전이 짓주민 새끼낭 문밖 죽여본다</li> <li>○ 뿔개 새끼 날 때 사름이 보민 승보양 에미가 새끼 잡아먹는다</li> <li>○ 노리가 동니에 오랑 울민 그 동니에 액장이 난다</li> <li>○ 노리도 본자국에 들민 죽나(노리가 제자국에 들민 죽나, 산에 노리가 집안으로 귀여들민 그 집이 망한다, 산짐승이 집에 들민 그 집의 대주가 꺾어진다)</li> <li>○ 꿩이 집안테레 들어오민 그 집안에 액운이 생긴다(꿩이 집안에 들어오민 느진다, 꿩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집 안에 놀아들민 좋지 아니한다, 집안티 들어온 놀중싱을 잡으민 해롭다)</li> <li>○ 꿩이 질레레 걸음 걷는걸 잡으민 머정엇나</li> <li>○ 생 꿩 손으로 심으민 머정 벗어진다</li> <li>○ 비들기 괴기 먹으민 죄 받는다</li> <li>○ 소르기가 지붕 우티 왕 아지민 승시난다</li> <li>○ 제비새기가 대들포 안에서 집짓영 살당 죽으나 으스흐민 그 집은 망한다</li> <li>○ 중이 꼴랭이 멩직으민 손꺼심 인다(씩나)</li> <li>○ 중이궁기(중이고냥)에 오줌 싸민 조쟁이가 붓나</li> <li>○ 갱이가 중이고망(쥐궁기)에 들민(기여들민) 집안 망한다</li> <li>○ 거민 낮전이 이녁 우티 오르민 그날 스망일곡, 낮후제 이녁 우티 오르민 시름이 생긴다</li> <li>○ 발진 거미가 얼르민 지시령이 놀튼다</li> <li>○ 검은 용이 하늘로 올라가민 그 해 사람이 하영 죽나</li> </ul>
--	---

2) 식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실낭근 불 아니 짓나</li> <li>○ 본지낭근 불 아니 땀나</li> <li>○ 유지낭근 불 아니 짓나</li> <li>○ 배경목낭근 집이 안싱근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버드낭을 불 지드민 그 집 아이 몸에 부시럼 난다</li> <li>○ 버드낭광 쉽사리론 불습으민 댜쉬에 손해본다</li> <li>○ 버드낭그로 막맹이 멩글민 해롭다</li> </ul>
---	---

3) 산·하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창에 돌대끼민 저싱가민 머리격으로 그 돌을 다 건져내랭 한다(~돌드리치민 저싱가민 머리격으로 그 돌을 건져 내랭 한다)</li> <li>○ 냇물 느려올 때 질카르지 말라(산내 챗번 도질 때 질카르민 직스한다, 내창에서 우으로 내흘러 느리는데 질카르지 말라)</li> <li>○ 물레레 오줌싸민 저싱가민 그 물엿 오줌을 문 굴려내랭 한다(물레레 오줌싸민 저싱가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그물광 오줌을 7려내랭 한다)</li> <li>○ 물에 소세 스민 동니 영장난다</li> <li>○ 산잇낭기 풍설에 문 실어지민 전장이 일어난다</li> <li>○ 산잇 돌이 문 몰아지국 낭기 문 썰어지민 시 상이 개판된다</li> <li>○ 솔뽕 하영 죽은 해엔 좋지 못하다</li> </ul>
--	--

7. 인간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름쟁이 뒤랑 대여주곡 먹는 놈 뒤랑 대지 말라(잘 먹는 놈의 뒤랑 대지 말곡, 노름하는 놈의 뒤랑 대여주라)</li> <li>○ 놈신디 공흔 말흐민 이녁 앞테레 그 곳인 말이 돌아온다(놈신디 공흔 말흐민 앞질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몹질 못한다)</li> <li>○ 놈신디 춤 밖으민 이녁 세에 버짐난다(놈안티 춤 밖으민 함박허물 난다)</li> <li>○ 놈을 나무래민 죽영가민 피우는 지름통에 들어간다</li> </ul>
--	--



○놈의 즈식 숭보민 이녀 즈식도 경흔 즈식을 난다(놈의 숭 털민 이녀 숭이 된다)	○물질레 강 허벅 벌렁 온 아이 따리멍 육흐민 다시도 물질레 가민 허벅 버른다
○시 사름이 사진 칠 때 가운데 상 친 사름은 몰린다	○집안의 대주가 외방 나간 때 그 집 아이들이 아방 어디 갔수장? 아방 어디 갔수장?"흐민 대주가 용심낭 들어온다
○한숨 쉬민 한숨 쉰 갑이 난다	

## 8. 성별

### 1) 남성

○소나이가 쿡박(쿨락박새기)으로 물을 거렁 먹으민 쉬엄 안난다
------------------------------------

### 2) 여성

○비바리가 머릴 푸렁 문지방을 넘으민 씨집 못간다	을 냉기민 늦다, 예즈가 늙뜨민 집안 망한다, 예즈가 불숨으멍 부짓깁이로 솟강알지멍 서방안터 큰 소리치민 집안 망한다)
○비바리로 늙영 죽으민 저상 가민 망대기 씌운다	○예즈가 한간에서 불림질흐민 그 집은 망한다
○상뒤집이 가 온 비바리, 드르카온 장 브린다	○예즈의 속옷을 울담에 널민 나쁘다
○소리 존 사름 지니지 말라(세지 말라, 가복 혼다, 팔제가 씨다, 제간장 썩인다)	○예즈의 옷으로 남즈옷을 땡글민 머정벗어진다
○므실카는디 예펜을 만나민 머정엇다	○예펜이 남죽을 솔바우에 털때기민 남즈 주인이 관서에 빨린다
○식전 아척부터 예펜이 큰 소리로 집안을 들벌르민 그날 머정엇다(식전 아척부터 예펜네가 올레 밖졌디 들리게 소리치민 재수엇다)	○예펜이 설거지를 흐당 남즈 먹는 그릇이 벌러지민 그날 남펜네가 머정엇나
○식전이 예즈광 말드툼을 흐나 육지거릴 흐민 그날 머정 벗어진다(재수 벗어진다)	○젊은 여즈는 맥을 꿀앙 앓지 아니한다
○예즈가 밤이 스담흐지 안흐다(예즈가 밤이 스담 막개질흐민 동니 청년에 해 간다, 밤이 스담흐민 동니 사름이 굿나)	○젊은 여즈가 어디 강 치맏통에 씨 빌어오면 그씨 쉬경대로 애길 난다
○예즈는 꿩을 안심은다	○제 버린 방이 예즈가 들어가민 늦다
○예즈가 비온 날에 머리 곱으민 그 부미 장 솟 날엔 비가 온다	○예즈가 광이 지민 그 남펜의 멍이 쭈다 (예즈가 상보쌀을 매민 남펜의 멍이 쪼르다)
○예즈가 상므르 피소우게 이왓을 흐민 그 집이 망흐다(예즈가 상므를 울리게 말음성을 높이민 그 집 망흐다, 예펜의 소리가 상므를	○예즈가 첫포름 불민 팔즈가 씨다
	○예즈 정월생은 늦다(나쁘다)
	○지집아이 구월에 난 범해친 드라가도 안흐다
	○임댕이 귀여난 예즈는 좋지 못흐다(갑복지지 상이라, 팔즈가 굿다)
	○몰해치 예즈는 팔즈가 씨다

## 9. 사물

○ㄴ샬 값 아니 주영 말아오민 나쁘다	○흰 물르래기로 머리 묶으민 상제들 일 난다
○칼광 수건은 봉그지 아니한다	○담배 불 내영 두 사름만 불영 시 사름끼지 랑 불이지 말라
○질레에서 칼을 봉그지 말라	○습든 약엔 담배 안부친다
○땀수건을 선새흐민 그 사름광 눈물로 이빨흐다	○돈은 손에 놓왕 놀리지 말라
○멘경 벌르민 머정 벗어진다	○봉근 돈은 수장에 놓왕 땡기민 머정 엇다
○밤이 멘경 보민 므습탄다	○드리 박은 후 체암이 젊은 사름 안 넘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물통을 든 매우민 모르기가 된다(물통을 단 번에 든 매우지 아니한다, 물통을 매우민 동 터 난다, 물코 막으면 모르기 된다)</li> <li>○새 목간통을 맹글양 채얌이 몸굼은 사름은 맹이 <b>쭙</b>다(목간통을 새로 맹글양 그디서 채 얌 몸굼은 사름은 삼년내에 울당 죽는다)</li> <li>○새백이 놈으 집이 강 불담아 오민 그 집인 머정웃인 일이 생긴다</li> <li>○숯 불르민 소도릿귀에 난다(입넉개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론 불숨지 아니한다(노로 불숨으면 목은 빗이 돌아진다)</li> <li>○호박줄로 불숨으면 아으틸 머리에 부스럼지 난다</li> <li>○남방엘 깨영 숨으면 동터난다</li> <li>○마농불훤 솔강양에 지드민 허떨난다 (보리 아니옵나)</li> <li>○밀낭그로 불숨으면 목은 비리가 도진다</li> </ul>
---	--

10. 신체 부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시락머리 ㄱ진 사름은 두불 속이다</li> <li>○놈의 머리턱에 이넉 머리턱을 섞으면 썩나</li> <li>○머리턱 내분 곁 생이가 물영가민 생진 가난 한다</li> <li>○머리 풀영 땡기민 상제 든다</li> <li>○사두서 머리 빗이민 입넉개한다</li> <li>○사름 머리 우티 맞지 아니한다</li> <li>○호로 머리 시번 빗지 말라(호로 머리 시번 빗이민 고망갈보 난다)</li> <li>○누영 자는 양지에 먹칠호민 맹썩른다(누영 자는 얼굴에 먹칠호지 아니한다, 즈잘 때 숙 끄대기 칠호민 죽는다)</li> <li>○코가 크민 가난한다(코가 나쁘민 가난한다)</li> <li>○콧대 오근 사름광 질컬음도 말라</li> <li>○콧등 산 사름은 입이 느실다</li> <li>○귀가 어우민 놈으 말을 잘 듣나</li> <li>○식전에 컷땡배기 맞이민 그날 머정 벗어진다</li> <li>○앞니 성긴 사름은 재물이 샌다</li> <li>○니빨이 옥쇠된 사름광은 벗도 호지 말라</li> <li>○니빨을 빼민 “새 니랑 돌아오곡, 목은 니랑 돌아가라”호명 지봉 옷테레 대끼지 아니호 민 니가 돌지 아니한다(니빨 빼영 술 먹으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죽는다)</li> <li>○자당 니 ㄱ는 사람은 즈든다</li> <li>○밤이 발콕 송콕은 안ㄱ신다(밤이 발콕 송콕을 ㄱ시민 이넉 조상이 죽어갈 때 눈 빨라진다)</li> <li>○송콕 발콕을 ㄱ상 아무디나 멧겨부렁 옷밤 이나 생이가 그걸 주워먹으면 그 사름 눈이 어둡나</li> <li>○송콕 발콕을 그차분거 지러기가(생이가) 먹 으민 그 사름은 가심뱅이 난다</li> <li>○손엿 물은 개우티도 안뿌린다</li> <li>○손에 즈금웃이 하민 즈셈이 한다(스주가 좋 들 못한다)</li> <li>○뒷손 찌민 불리한다(빈복한다)</li> <li>○발을 털민 복 나간다(다릴 털민 복 털어진다)</li> <li>○톡 반양 아진 사름 빈복한다(톡박양 아지민 걱정이 생긴다)</li> <li>○놈의 독지를 짚으면 머정 벗어진다 (아침이 독지 짚으면 징심밥 못 얻어먹나)</li> <li>○ㄱ른 태 밀민 군주망을 입은다(군망을 입은 다. 군말 듣다)</li> </ul>
--	--